

지자체별
영상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KOREAN FILM
COUNCIL

연구 2016-02

지자체별 영상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2016. 09

영화진흥위원회 연구보고서 2016-02

지자체별 영상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기획 및 진행

김현수	영화진흥위원회 미래전략본부 산업정책연구팀 팀장
박희성	영화진흥위원회 미래전략본부 산업정책연구팀 연구원

연구진

책임연구원	홍교훈	전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사무국장
공동연구원	염신규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
보조연구원	배용찬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석사수료
	원환섭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박사과정
해외사례연구원	김아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비전임강사
	김지현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전임연구원
전임자문위원	김창남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자문위원	김혜준	모두를 위한 극장 이사장
	변재란	순천향대학교 영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조광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허 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

발 행 인 김세훈

발 행 일 2016년 9월 1일

영화진흥위원회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

경남정보대 센텀산학캠퍼스 13층, 14층

전화 (051)720-4700 팩스 (051)720-4849

홈페이지 www.kofic.or.kr

굳디자인연구소/제작

부산시 연제구 연제로 27번길 6(5층, 연산동)

전화 (051)796-6600 팩스 (051)796-6610

홈페이지 www.good-d.co.kr

© 영화진흥위원회, 2016

ISBN 978-89-93190-89-2 13680 비매품

※ 이 연구보고서는 2015년 영화진흥위원회 지정과제 연구 결과물입니다.

목차

● 연구요약	15
I. 서론	21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3
2. 연구범위	23
II. 영상문화 개념과 범위	25
1. 영상문화 관련 정책 및 개념 현황	27
1) 법적 정의	27
(1) ‘영상’ 관련 법정 개념 정의	27
(2) ‘문화’ 관련 법정 개념 정의	29
2) 선행 정책 연구 검토	31
2. 영상문화의 개념 및 범위	33
1) 영상문화의 개념	33
2) 영상문화의 범위	34
3) 영상문화 활성화 연구를 위한 정책구획 설정	35
III. 지역 영상문화 정책 현황	37
1. 지역 문화 환경의 변화	39
1) 중앙정부의 지역문화 정책 현황	39
(1) 지역문화의 개념의 심화와 확장	39
(2) 생활문화 개념의 도입	43

2) 관련 법률	45
(1) 문화기본법	45
(2) 지역문화진흥법	47
(3)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47
(4) 관련 법률에 근거한 생활권 문화 활성화의 기본 방향	48
2. 영상문화 정책 현황	50
1) 영상문화 정책 현황 및 분석	50
(1) 법 제도 분석(영비법, 영상진흥기본법)	50
(2) 영화발전기금 예산 주요 사업	53
2) 지자체 영상문화 정책 현황 및 분석	54
(1) 영상 관련 자치 법규(조례) 현황 및 분석	54
(2) 지자체별 관련 업무 및 분석(광역단체)	58
3. 영상문화 기반시설 현황 및 분석	61
1) 지역영상미디어센터	61
(1)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개념 및 역할	61
(2) 설립현황	62
(3) 영상문화 활동	65
(4) 지역 영상미디어센터의 성과 및 한계	67
2) 작은영화관	68
(1) 작은영화관 설립근거	68
(2) 작은영화관 현황 및 운영주체	70
(3) 작은영화관 자원구조	71
(4) 작은영화관 성과 및 한계	73
3) 기타 영상문화 관련 지원 기관	74
(1) 영상위원회	74
(2) 지역콘텐츠 산업진흥 관련 기관	75
(3)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77
(4) 지역문화재단	78
(5) 성과 및 한계	79
4. 영상문화 관련 시민 활동 현황 및 분석	81

1) 독립/예술 영화 관련 단체	81
(1) 독립영화협회	81
(2) 시네마테크, 예술/독립영화전용관	82
2) 작은영화제	83
(1) 작은영화제의 개념 및 특징	83
(2) 작은영화제 현황 및 분석	85
3) 영상문화 공동체	86
(1) 시민 영상문화 동호회	86
(2) 대안 상영 공동체	89
(3)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91
4) 영상문화 관련 지역 및 전국 네트워크	92
(1) 독립영화 관련 네트워크	92
(2) 시민사회단체 연계 네트워크	93
(3) 다양성 영화 상영 관련 네트워크	93
(4) 영상문화 기반시설 연계 네트워크	93
(5) 기타	94
5) 성과와 한계	94
(1) 시민 영상문화 활동의 성과	94
(2) 시민 영상문화 활동의 한계	95
5. 학교 영상문화교육 현황 및 분석	96
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96
2) 시청자미디어센터 학교 미디어교육	98
3)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학교 미디어교육	100
4) 성과 및 한계	106

IV. 사례분석 109

1. 국내사례	111
1) 부천시 지역문화진흥 및 영상문화 정책 사례 분석	111
(1) 부천시 문화정책의 변화 및 주요사업	111

(2) 문화관련 조직	111
(3) 특징 및 분석	114
(4) 부천의 영상문화 정책	114
2)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 및 영상문화 정책 사례 분석	115
(1) 전라북도 영상문화 정책 현황	115
(2) 작은영화관 조성 및 활성화 사업	118
(3) 주민시네마스쿨 사업	119
(4) 시사점	120
3) 학교 영상문화 정책 ‘예술꽃 씨앗학교’ 사례 분석	121
(1) 예술꽃 씨앗학교	121
(2) 사업 특징	121
(3) 사업 목적	122
(4) 예술꽃 씨앗학교 연차별 운영 로드맵 및 지원예산	122
(5) 예술꽃 씨앗학교 현황 및 영상문화 분야 학교 현황	123
(6) 사업 추진체계	124
(7) 시사점	125
2. 해외사례	126
1) 영상 문화 활성화를 위한 영국의 정책 사례	126
(1) BFI의 입지 및 역할	126
(2) BFI의 재정	127
(3) BFI의 영화진흥 계획 2012-2017 〈Film Forever: Supporting UK Film〉 ..	128
(4) 지역 정부와의 연계 사례	130
(5) 영국의 영상문화 활성화 전략 및 시사점	135
2) 영상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랑스의 정책 사례	136
(1) 프랑스 지역영상문화 정책의 기본틀: 협약 정책	138
(2) 조직 구조	140
(3) 예산 구조	143
(4) 대표 사업	146
V.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방안	151

1.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 정책의 기본 방향	153
1) 영상 관련 균형발전의 원칙	153
2) 시민문화권에 기반한 생활문화로서의 영상문화 진흥	153
3) 문화자치의 원칙에 따른 중앙-광역-기초의 역할 분담	154
4) 거버넌스를 통한 효율적이고 개방적인 활동의 지원	154
2.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달 체계 수립 방안	155
1) 지역영상문화 전달체계 모델	155
(1) 지역문화재단 안에 영화 관련 파트 마련(프랑스 모델)	155
(2) 지역별 독자 조직체계 설립	156
(3) 영화진흥위원회 지역 분원 설립	156
2) 대안: 지역 영상문화 협력네트워크 구성	156
3. 영상문화 공동체 활성화 방안	159
1) 영상문화 공동체 정의	159
2) 영상문화 공동체 유형	159
3) 영상문화 공동체 활성화 정책 방향	160
4) 지원 내용	160
4. 학교 영상문화교육 활성화 방안	161
1) 영상문화교육의 정의	161
2) 학교 영상문화교육 모델 제안	161
3) 학교 영상문화교육사업 추진체계	162
4) 학교 영상문화교육사업 운영안	163
5. 지역 영상문화 기반시설 강화	164
1)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164
2) 작은영화관 지원	166
3) 기타 영상문화 관련 지원 기관	167
4) 지역 영상문화 전문 인력 양성	169
6. 시민 영상제작 활성화	170

7. 영상문화 소외계층 영상문화 활성화 방안	172
1) 문화 소외계층 범위	172
2) 문화복지 개념	173
3) 문화복지 개념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	173
4) 지원내용	173
8. 향후 과제 및 제언	174
1) 법제 정비의 필요성	174
(1) 영상진흥기본법 폐지	175
(2) <영상진흥기본법> 강화 및 <영비법> 전면 개정	176
2) 제언	176
참고문헌	178

표 목차

[표 1] ‘영상진흥기본법’에서의 ‘영상문화’ 관련 내용	27
[표 2] ‘영상진흥기본법’에서의 정의 규정	28
[표 3] 영상물과 영화의 법적 정의의 차이	29
[표 4] ‘문화기본법’에서의 문화에 관한 정의	29
[표 5]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규정	30
[표 6] ‘문화’에 대한 법적 정의/표현	30
[표 7] 정책 과정에서의 영상 정책 구획	35
[표 8]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지역문화와 생활문화의 정의	44
[표 9]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지원 내용	44
[표 10] ‘문화기본법’에 따른 책무	46
[표 11] 관련법에 따른 생활문화 관련 영역과 내용	48
[표 12]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49
[표 13]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49
[표 14] 문화산업 관련 지자체 조례	54
[표 15] 영상 및 영상산업 관련 진흥조례	55
[표 16] 영상미디어센터 관련 조례	55
[표 17] 영상위원회 관련 조례	56
[표 18] 작은영화관 등 공공상영관 관련 조례	56
[표 19] 기타 영상 시설 등에 관련한 조례	56
[표 20] 문화콘텐츠 및 영상관련 조례 현황	57
[표 21] 지자체별 영상관련 업무 현황	58
[표 22] 지자체별 영상문화 관련 주요 사업 분포	60
[표 23]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현황	62
[표 24]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운영주체 현황	64
[표 25]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주요 사업 영역	66
[표 26]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사업 운영현황(사례)	66

[표 27] 문화기본법	69
[표 28] 작은영화관 정책 경과	69
[표 29] 작은영화관 개설 현황(2016.9 기준)	71
[표 30] 작은영화관 운영 현황	72
[표 31] 2015년 작은영화관 기획전 운영 현황	73
[표 32] 영상위원회 현황	74
[표 33] 지역콘텐츠 산업진흥 관련 기관과 영상문화 관련 사업 현황	75
[표 34]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현황	78
[표 35] 전국 독립영화협회 현황	82
[표 36] 전국 시네마테크, 예술/독립영화 전용관 현황	82
[표 37] 작은영화제 운영 현황	84
[표 38] 2015년 지역영상미디어센터와 연계한 영상문화동호회 현황	86
[표 39] 주요 대안상영공동체	90
[표 40] 영상문화 관련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주요 사례	92
[표 41] 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추진 계획안	99
[표 42] 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거점학교 운영현황	99
[표 43] 진주시민미디어센터 학교미디어교육 현황	100
[표 44]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학교미디어교육 현황	101
[표 45]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학교미디어교육 현황	101
[표 46] 경기도 소재 학교 미디어교육 형태와 학교 급별 차이	104
[표 47] 전북지역 학교 미디어교육 실행 방안 적절성(5점 만점 척도)	105
[표 48] 전북지역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5점 만점 척도) ..	105
[표 49] 부천시 문화정책의 변화 및 주요사업	111
[표 50]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운영 개요	113
[표 51] 전라북도 영상문화 관련 정책	118
[표 52] 예술꽃 씨앗학교 연차별 운영 로드맵	122
[표 53] 예술꽃 씨앗학교 현황	123
[표 54] 예술꽃 씨앗학교 중 영상문화 관련 학교 현황	123
[표 55] 경북 봉화초 영화분야 성과 목표와 추진방향	124
[표 56] 제주 남원초 영화분야 성과 목표와 추진방향	124
[표 57] 예술꽃 씨앗학교 사업추진체계	125
[표 58] BFI 수입원	127

[표 59] DRAC 내 영상 분야 담당 자문관 배치 현황(2015년 11월 12일 기준)	141
[표 60] 2009년 CNC와 지역정부의 지원금 집행내역	144
[표 61] 2009년 DRAC의 영상분야관련 지출 내역	145
[표 62] 2014년 CNC와 지역정부, DRAC의 지원금 집행내역	145
[표 63] 2014년 DRAC의 영상분야관련 지출 내역	146
[표 6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지자체 영상물 촬영 지원과 영상위원회 관련 조항 ·	168
[표 65]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지원대상	172
[표 66] 영상진흥기본법 폐지에 따른 법제 정비방안	175



[그림 1] 영상문화 활동 희망 분야	86
[그림 2] 영상문화단체 활동의 의미	86
[그림 3] 영상문화활동의 장애요소	86
[그림 4]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	86
[그림 5] 영상문화동호회 활동 목적	89
[그림 6] 영상문화동호회 활동 의미	89
[그림 7] 영상문화 활동의 장애요인	89
[그림 8] 영상문화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	89
[그림 9]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 추진 체계도	97
[그림 10] 전북지역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 협력체계 안	103
[그림 11] 경기도 소재 학교 미디어교육 형태	104
[그림 12] 전라북도 영상산업 발전 비전과 목표	117
[그림 13] 프랑스 2004-2014 지역영상예산	144
[그림 14] 프랑스 지역영상예산 분담 비율	144
[그림 15] 학교 영상문화교육사업 추진체계	163

연구요약

■ 영상문화 개념에 관한 법적 정의

- 영상 관련한 법적 정의는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해 내려져있으며 ‘영상물’과 ‘영상산업’에 관한 정의가 존재함. 이 밖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영화에 관한 개념 규정이 이뤄지고 있음
- ‘영상문화’는 영상산업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에 관련하여 법적으로 구체적인 규정을 하지 않고 있음. 문화란 것이 본질적으로 구체화된 법정 규정을 만들기 어려운, 유동적이고 추상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임
- 별도로 ‘문화’에 관한 개념규정은 “문화기본법”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 담겨있음. ‘문화’는 개인과 집단 ‘일상의 양식’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가치체계, 전통, 신념을 아우르는 대단히 총체적인 개념으로 내용(콘텐츠)과 형식(표현방식)을 모두 아우르고 있으며 예술 영역은 문화와 일상을 매개하는 주요한 요소임

■ 선행연구에서 영상문화

- 일상적으로 영상은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 컴퓨터라는 미디어를 통해 생산된 이미지로 생각되며 이에 따라 영상 리터러시 교육(영상문화교육)의 필요성, 상영 정책(산업/공동체/민간)의 새로운 접근이 제시됨
-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콘텐츠 리터러시, 이용자 복지와 문화향유권에 초점을 두는 관점도 존재함
- 영상매체를 하나의 새로운 시대언어로 이해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이슈 및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유기적인 연계를 맺는 새로운 문화운동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 바로 미디어문화운동임

■ 이 연구에서 영상문화의 개념은 실제 사회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화정책 및 공공문화 사업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영상과 연관되었거나 영상을 매개로 한 행위를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임. 또한 그 범위는 행위에 따라 제작 형태, 배급 및 상영형태, 교육, 축제(영화제)로 나뉘볼 수 있음

■ 또한 이에 따른 정책 구획은 영상문화의 특성과 정책(집행)과정에 따라 나뉘 볼 수 있으나 아직 영상문화 정책의 도입이 미진한 상황이라 중첩과 공백을 감안해서 봐야 함

■ 지역문화정책 정책 환경의 변화

- 한국의 문화정책은 중앙집권적 국가 주도의 문화정책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로 지역문화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함
- 문화정책 분야 일반에서 지역문화진흥이 강조되기 시작한 배경은 ▶창조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기반 조성 ▶부족한 문화예술 진흥재원의 확충 ▶재원확충과 연계한 민간 자원의 동원 활성화 ▶민간의 전문성과 참여의 제고 ▶정치로부터의 자율성과 문화정책의 일관성 제고 ▶문화행정의 효율성 제고 등임
- 문화의 민주화 정책과 문화민주주의 정책의 방향이 소개되면서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이 공급자 중심에서 향유와 매개를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음
- 문화민주주의 관점에서의 능동적 문화 향유의 기반은 시민들이 자신들이 사회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주체를 형성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 여전히 다수의 대중들은 수동적 문화향유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문화정책과 문화운동은 개인과 공동체의 일상에 밀착한 경험과 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참여적 문화향유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생활문화’영역이 새로운 정책 과제로 도입

■ 지역문화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른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등의 도입. 이에 따른 생활권 문화 환경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 영상문화정책환경 분석

- 영상진흥기본법, 영비법 등 영화 관련 법 체계의 분석: 이제 영상문화의 문화적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이런 다양한 시대적 한계를 극복하고 법의 패러다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함
- 지원기관 및 관련 예산 사업: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노후장비 교체 지원 사업, 서울영상미디어센터 2015 주요 사업 전략 및 추진계획,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 영상문화의 확장과 변화에 따른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대한 수요가 있으나 아직까지 관련 예산 사업을 만들 수 있는 정교하고 객관적인 논리 개발에는 한계가 있음

■ 지자체 영상문화 정책 현황 및 분석

- 지자체 영상관련 조례: 문화콘텐츠의 일부로 다루지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며 영상(영화)을 별도의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는 곳은 광역지자체에서도 6곳에 불과함. 해당되는 정책에 관한 조례를 아예 안 갖고 있는 지역도 5군데임. 체계적이거나 일관된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드물고 지역적 편차가 존재함
- 시민 문화권 향상을 위한 지역 영상문화조례: 문화기본법이 문화권을 기본적 사회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지역영상문화 조례 역시 영상문화에 관한 다양한 시민주체들의 참여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자리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별 영상 관련 업무 추진 체계: 지역의 규모나 영상문화환경에 따른 인력과 사업의 규모가 크게 차이가 있음. 영상 관련 업무가 문화산업(콘텐츠) 업무의 일부로 결합되어 있거나 한 명의 공무원이 영상을 포함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음
- 대부분 지역이 영상을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의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를 주된 업무로 삼고 있음. 생태계 지원은 극히 적은 상황이며 생활문화 활성화에 따른 동호회 지원 등이 필요한 상황이나 영상분야가 주로 산업영역에 있어서 생활문화영역과의 협력 및 업무 연계가 쉽지 않음

■ 영상문화 기반시설 현황 및 분석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전국 37개소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각각의 운영 주체와 설립 주체가 매우 다양함. 따라서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설립 주체별로 분류할 수 있음
-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미디어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이끌어내고 있음. 미디어에 대한 기술 및 이론 교육을 진행하여 교육 참여자들의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킴. 또한 지역미디어센터는 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미디어교사양성과정, 생애주기별 교육 등의 모델을 개발하여 미디어교육의 양/질적 확대를 시도하고 있음
-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장비 노후화 및 구형화가 진행되고 있음. 전문인력의 이탈 역시 심각한 상황임
- 작은영화관: 인구 수가 적어 민간 사업자가 극장을 운영하지 않는 지역에 공적 자금을 지원해 극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작은영화관 사업은 개봉 영화를 상시 상영해 지역민의 영화 관람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현재 운영 중인 작은영화관 23개 중 20개가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위탁 운영 방식은 작은영화관 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에게 고용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어 운영 안정성을 지속하기 어렵고, 해당 인력의 업무 집중도를 낮춰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수 있음. 반면 작은영화관 운영을 공무원이 담당할 경우에도 공무원 순환보직제로 인해 해당 경력이 단절되어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영상위원회, 지역콘텐츠 산업진흥 관련 기관,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역문화재단 등이 지자체의 영상문화에 관한 지원업무를 일부 담당함
- 다양한 기반시설 및 지원기간 간의 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함

▣ 영상문화관련 시민 활동 현황 및 분석

- 독립영화협회: 독립영화협회는 지역을 기반으로 극영화, 다큐멘터리, 실험영화, 공동체상영, 시네마테크 활동을 하고 있음. 독립/단편/예술 영화 제작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역 내 영상 제작을 위한 네트워킹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도 함
- 시네마테크, 예술/독립영화전용관: 예술/다양성 영화, 독립영화 활성화를 위한 상영회 실시, 감독과의 대화, 영화상영 후 다양한 감상활동 프로그램 실시. 영화감상관련 소모임 운영
- 작은영화제: 작은영화제는 시민들의 영화(영상) 창작 활동을 기반으로 지역 문화단체 또는 미디어센터 등에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영화제 등을 지칭. 지역 문화나 사회적 소외계층(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주체적 메시지를 담은 영화(영상)를 상영
- 시민영상문화동호회: 현재 지역영상미디어센터 20곳을 중심으로 70개 이상의 영상문화동호회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음. 이들의 활동분야는 영상제작, 영화 읽기 및 감상으로 주도적인 영상문화 향유를 지향함.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역자치단체, 지역영상위원회 등의 외부 활동 지원을 통해 운영
- 대안상영공동체: 대안상영공동체란 대안적 상영문화 가치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상영 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함. 기존 거대 영화 자본과 멀티플렉스 상영시스템에 의해 제작, 상영되는 영화의 획일성에서 다양성 영화와 새로운 상영문화를 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음
-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지역을 기반으로 영상 제작자 및 미디어교육 활동가들이 민간영역에서의 영상제작, 미디어, 문화, 예술 교육 그리고 상영 등의 다양한 활동을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형태로 전환해 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지역 및 전국네트워크: 독립영화 관련 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 연계 네트워크, 다양성 영화 상영 관련 네트워크, 영상문화 기반시설 연계 네트워크 등

■ 학교 영상문화교육 현황 및 분석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감수성을 키우고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술 강사를 파견하여 문화예술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2015년에는 총 10,731개 학교 중에서 영화는 448개 학교, 만화애니메이션은 1,035개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음
- 현재 학교 문화예술 교육은 교육과정 내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자율 활동 중 창의적 특색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교육과정 외 학교문화예술교육은 토요일아리, 자율 동아리,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에서 진행됨
- 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법 90조 2(시청자미디어센터)를 근거로 설립된 법인으로 미디어교육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사업을 함. 방송법을 근거로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미디어교육을 실시함
-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전국 5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시범적으로 자유학기제 연계 미디어교육 실시. 이후 대상학교를 확대할 계획임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학교 미디어교육: 미디어센터 별로 학교와 연계된 특색 있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실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시청자미디어센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각각의 영역에서 문화예술 접근, 방송미디어 접근, 미디어리터러시 접근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각 실행주체가 가진 설립 근거와 배경에 따라 영상문화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차이가 나타남

■ 국내외 사례 분석

- 부천시 지역문화진흥 정책 및 영상문화 정책 사례 분석: 생활문화기반 조성과 영상 미디어사업의 연계
-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 정책 및 영상문화 정책 사례 분석: 영상문화영역 확대 시도, 영상산업발전을 배경에 둔 영상문화복지 정책의 한계, 다양한 자원 확보를 통한 영상문화 정책 수립, 지역문화진흥계획수립과 광역문화재단 설립 과정에서 영상문화 영역 확보의 필요성

- 학교 영상문화 정책 ‘예술꽃 씨앗학교’ 사례 분석: 장기 지원 사업, 사업운영과정의 체계성, 지역사회의 문화예술교육 인식 확산, 학교 중심 문화예술교육 거점화, 예산 안정, 협력체계 구축 등
- 영국 사례: 영국영화협회(British Film Institute, 이하 BFI) 주도 정책, 지역정부와의 연계 사례(영화교육의 중요성 강조, 제작 및 소비 환경 변화에 주목, 중앙-지역 간 연계, 협력 강화)
- 프랑스 사례: CNC-지자체-문화부(DRAC) 3자간 협정 체결 정책

■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방안

- 기본방향: 균형발전의 원칙, 시민문화권에 기반한 생활문화로서의 영상문화진흥, 문화자치 원칙에 따른 중앙-지역 간 역할 분담, 거버넌스를 통한 효율적이고 개방적인 활동 지원
- 정책 전달체계 모델: 지역 영상문화 협력네트워크 구성(특정 조직, 기관을 중심으로 한 일률적 사업 추진 체계보다는 다양한 지역 자원의 참여 유도)
- 영상문화공동체 활성화: 영상문화공동체 유형 및 지원 등
- 학교 영상문화교육 활성화: 초·중·고등학교 영상문화교육 실행 방안
- 지역영상문화기반시설 강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작은영화관 지원 등
- 지역영상문화 전문 인력 양성: 양성 및 재교육, 관련정책 정비
- 시민 영상제작 활성화: 장비 보급의 확대 및 다양화, 영상교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시민 영상제작과 다양성(독립)영화 제작에 대한 지원 확대
- 영상문화소외계층 영상문화 활성화: 문화 복지 개념 도입을 통한 정책 방향 수립

■ 향후 과제 및 제언

- 법제 정비: 영상진흥기본법과 영비법 전면 개정을 통한 영상문화 지원 강화
- 제언: 산업 부문과의 조화로운 정책 설계, 구체적 사업 발굴과 제도 정비의 유기성, 생활문화 영역에서의 지역 영상문화 활동 확대, 제도화와 규범화에 따른 문화적 다양성의 보장방안 확보 등

I

KOREAN FILM
COUNCIL

서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범위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 지역 문화발전의 새로운 정책적 틀로서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시행된 이후, 지역문화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를 발굴, 창조하기 위한 국가·지역차원의 실질적 계획수립의 필요성 대두
- 영화(영상) 감상, 영상제작, 영상미디어교육 등 지역민의 참여적 영상문화 활동은 보편적인 문화 활동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작은영화관 등 지역 밀착형 영상문화 인프라 조성·운영은 확대되고 있으나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종합적 발전전략과 지원체계를 고려한 지역영상문화 활성화 방안 수립은 미흡함
-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지역영상문화와 관련한 개념의 범주를 설정하여 정책수립의 프레임을 제시하고자 함. 또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에 따라 변화된 정책 환경과 지역영상문화 현상의 현황을 고려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및 영화진흥위원회를 포함한 중앙정부의 정책과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진흥정책 수립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영상문화 활성화 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작은영화관 등 지역영상문화시설(기관)의 발전방안 및 연계방안, 지역 내 영상문화 관련 단체 간 연계·협력방안, 생활문화동호회로서 영상문화동호회 지원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범위

- 영상문화 개념 정의와 범주 설정
 - ‘영상문화’ 관련 이론적 배경 고찰과 개념 정의
 - 영상문화 정책의 범주 및 프레임 설정
 - 관련 법제 분석 등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에 따른 정책 환경 분석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에 따른 정책전달체계의 변화 방향 분석

-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 현황 및 영향 분석
- 영상문화 관련 정책 환경과 현황 분석
 - 영화진흥위원회 등 중앙정부의 영상문화 관련 정책 현황
 - 광역 지자체별 영상문화 진흥 정책 현황(재정구조, 예산전달체계)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작은영화관 등 기반시설 운영 및 영상위원회 등 지역 영상문화 관련 주체 현황
 - 학교 영상문화(영화)교육 관련 정책 현황
- 사례분석
 - 지자체 차원의 영상문화 활성화 정책 사례 분석
 - 경기 부천시(지역문화기본계획 수립 중), 전라북도(지역문화진흥시행 계획, 작은영화관 조성 정책 등)
 - 해외 영상문화 활성화 정책 사례(영국/프랑스)
 - 학교 영상문화교육 현황 분석
 - 학교문화예술교육(영화, 애니메이션),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중심으로
-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체계 수립 방안
 - 법제 정비방안, 중앙정부 및 광역·기초 자치단체 정책체계 수립방안 등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작은영화관 등 발전·연계방안
 - 지역 내 영상문화 관련 주체 간 협력 및 연계 방안
 - 영상문화동호회 활성화를 통한 생활형 영상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 영화진흥위원회의 영상문화 활성화 사업 모델
 - 학교 영상문화(영화)교육 활성화 방안

II

KOREAN FILM
COUNCIL

영상문화 개념과 범위

1. 영상문화 관련 정책 및 개념 현황
2. 영상문화의 개념 및 범위

1. 영상문화 관련 정책 및 개념 현황

1) 법적 정의

(1) ‘영상’ 관련 법정 개념 정의

- 법적 표현으로서 ‘영상문화’가 등장하는 것은 “영상진흥기본법”임. 제1조 법의 목적부터 시작하여, 타 법률과의 관계, 정부의 시책, 조사·연구·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진흥재원의 운용, 국제 교류 및 협력, 영상자료의 보존 등 총 8개의 조문에서 영상문화를 법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

[표 1] ‘영상진흥기본법’에서의 ‘영상문화’ 관련 내용

〈영상진흥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영상문화(映像文化)**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정부의 시책)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조사·연구·개발 및 보급) 정부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영상 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영상 관련 진흥재원의 운용) 정부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재원(財源)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 (국제 교류 및 협력) 정부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보 교류 및 공동 조사·연구
2. 영상산업에 관한 기술 협력

3. 영상물의 공동 제작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영상자료의 보존) 정부는 **영상문화**의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영상물을 수집·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특이할만한 부분은 이 법에서 ‘영상문화’는 ‘영상산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임. 이 법에서 법적으로 정의내리고 있는 개념은 ‘영상물’과 ‘영상산업’이며 ‘영상문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념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음

[표 2] ‘영상진흥기본법’에서의 정의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물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상물’의 개념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로 보고 있으며 ‘영상산업’은 “영상물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이란 점에서 영상문화는 영상물에 관련하여 산업 영역 바깥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 요소로 파악할 수 있음
- ‘영상문화’에 관련한 구체적인 개념 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화란 것이 본질적으로 구체화된 법정 규정을 만들기 어려운, 유동적이고 추상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임
- 한편 ‘영상물’에 대한 규정은 영화와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에서 ‘영화’에 대한 개념 규정과 다음과 같은 차이를 갖고 있음

[표 3] 영상물과 영화의 법적 정의의 차이

근거법	▶ 영상진흥기본법	▶ 영화와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대상	▶ 영상물	▶ 영화
규정	▶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	▶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
형태	▶ 연속적 영상	▶ 연속적 영상
매개물	▶ 필름, 테이프, 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	▶ 필름, 디스크 등 디지털 매체
상영 또는 재생방식	▶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 송수신	▶ 영화상영관을 포함한 시설에서 공중에게 관람
기타	▶ 저작물 개념이 있지 않음	▶ 저작물 개념이 들어가 있음

- 연속적 영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영상물’과 ‘영화’는 공통적이지만 매개와 상영(재생)에 있어 영상물이 영화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영화’는 작품(저작물)의 개념이 존재하고 있으나 ‘영상물’은 작품이란 개념의 유무와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음. 즉 법적의미에서 ‘영상물’이란 영화를 포함하여 컴퓨터 프로그램(그래픽)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제외한 모든 재생 혹은 상영되는 영상물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CCTV동영상부터 광고영상, 개인적 동영상(결혼식, 야유회 등) 등 대부분 종류의 재생 가능한 푸티지를 편집 유무와 상관없이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음

(2) ‘문화’ 관련 법정 개념 정의

- 법적 표현으로서 ‘문화’가 등장하는 것은 “문화기본법”으로 이 법 제3조에서 다음과 같이 문화에 대한 법적 정의를 내리고 있음

[표 4] ‘문화기본법’에서의 문화에 관한 정의

<p>〈문화기본법〉</p>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p>

- “문화기본법”이외에 문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법으로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

진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다양성법)을 꼽을 수 있으며 이 법에서는 ‘문화다양성’과 ‘문화적 표현’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음

[표 5]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규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 “문화적 표현”이란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 ‘문화’에 대한 법적 정의와 표현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표 6] ‘문화’에 대한 법적 정의/표현

구분	▶ 문화	▶ 문화다양성	▶ 문화적 표현
근거법	▶ 문화기본법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정의	▶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	▶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	▶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
키워드 분석	▶ 문화예술 ▶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 가치체계, 전통, 신념 ▶ 총체적 개념	▶ 집단과 사회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표현 ▶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방식의 다양성 ▶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의 다양성	▶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 ▶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

- 구체적이고 명료해야 할 법적 표현에서조차 ‘문화’에 대한 정의와 표현은 구체성이 높지 않으며 그 범위 역시 매우 포괄적임. 몇 가지 키워드를 놓고 보자면 ‘문화’는 개인과 집단 ‘일상의 양식’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가치체계, 전통, 신념을 아우르는 대단히 총체적인 개념임. 또한 내용(콘텐츠)과 형식(표현방식)을 모두 아우르고 있으며 예술 영역은 문화와 일상을 매개하는 주요한 요소임

2) 선행 정책 연구 검토

■ 영상문화교육 교육과정 기초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03.3

- 일상적으로 영상은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 컴퓨터라는 미디어를 통해 생산된 이미지로 인식됨
- 영상개념은 외연은 기술발전에 따라 역사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음. 초기에 이 용어의 외연적 중심은 사진과 영화였지만 오늘날에는 비디오나 뉴미디어가 새로운 중심을 차지. 이와 같은 개념적 외연의 역사적 변화는 개념의 내포에도 영향을 미침
- 영상의 개념은 외연과 내포의 어디에 방점을 두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유발
- 영상의 문제를 미디어간의 단절보다는 연속성이라는 차원에서 접근. 연속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텔레비전이나 뉴미디어가 시각적 표현의 방법 면에서 영화와 일정하게 연속성을 지니며 또한 영화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얘기도 있음
 - 기술발전에 따른(관습화된 영화로 한정짓지 않고) 미디어간의 연속성 문제의식을 전제로 정책 제안
- 어떤 영상물이 어떤 전문적 제작과정을 거쳤는가와 그 영상물을 ‘본다’라는 사실은 다른 차원의 문제. 대개 ‘본다’라는 행위는 투명한 행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마치 ‘읽기’라는 행위가 그 나름의 내재적 논리와 역사적 규칙을 가지고 있듯이 ‘보기’ 역시 그 나름대로의 고유한 논리와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음
 - 영상 리터러시 교육(영상문화교육)의 필요성, 상영 정책(산업/공동체/민간)의 새로운 접근
 - 영상문화진흥정책의 영역: 제작-소통-상영(주체)-보기(교육)

■ 콘텐츠의 문화적 향유 확대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1.12

- 콘텐츠를 문화적 관점과 이용자 관점에서 콘텐츠 향유 확대 방안 모색

-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콘텐츠 리터러시, 이용자 복지와 문화향유권에 초점
- 콘텐츠는 인간의 창조성을 모태로 하는 모든 창작 활동의 산물이며 상징적 가치와 기호적 가치를 포함하는 문화적 가치의 결정체
- 콘텐츠 향유는 콘텐츠의 소비나 이용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참여와 체험을 의미
- 콘텐츠를 산업정책의 대상에서 탈피하여 포괄적인 문화정책의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
- 콘텐츠 정책은 이용자들에 대한 공공 서비스의 확대와 함께 궁극적으로 문화복지 확대라는 기본 목적을 지님
- 문화정책의 관점에서 콘텐츠 이용자 복지를 제고하고 콘텐츠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함
-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요구되는 정책 방향과 정책 기본 프레임, 이를 토대로 한 실현가능한 정책 과제들의 도출이 필요

▣ 문화사회를 위하여. 심광현, 이동연, 문화과학사, 1999p

(‘문화사회’를 향한 새로운 문화운동의 과제. 심광현 5. 지역사회와 미디어문화운동)

- 영상매체가 하나의 새로운 시대언어가 되기 시작
- 새로운 미디어기술은 누구나 쉽게 지적, 감성적 의사소통의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있음
- 오늘날 간편해진 디지털영상매체는 그림이나 사진, 소설과는 달리 장기간의 특별한 기술적 수련 없이도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입체적이고 생생하게 담아내거나 변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를 지닌다. 디지털영상매체는 과거의 다른 매체들과는 달리 주체와 매체, 대상 사이에 놓인 기술적, 언어적 괴리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삶의 경험과 정서, 상황적인 판단에 생생하고 용이하게 접근하게 해줌으로써 문화적 소통의 지평을 대대적으로 확장시킴
- 디지털미디어를 이용하여 바로 이렇게 사적 경험으로부터 공공영역에의 비판적 개입에 이르는 넓은 스펙트럼을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정치적 다큐, 다양한 의사소통을 가능케 할 문화적 장치로 발전)
- 이런 가능성에 착목하여 지역사회의 이슈 및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유기적인 연계를 맺는 새로운 문화운동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 바로 미디어문화운동
- 새로 열리는 문화적 기회를 문화적 공공영역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한 채, 중앙과

지역의 행정관료 시스템이 주도하도록 방치할 경우, 새로운 영상진흥정책이 제공하는 기금과 기회 및 ‘문화의 집’과 같은 프로젝트들이 지역사회의 삶과 유기적 연관을 맺는 문화적 활성화와는 무관하게 일회적인 행사성 기회로, 문화적 활력을 결여한 또 하나의 하드웨어로 전락하기 쉽기 때문

- ‘문화적 권리’ 확대, 대중적인 ‘문화적 권리’, 자율적인 차원에서의 ‘문화적 권리’로 사고
- 시혜적인 성격의 ‘소극적 복지’가 아니라 역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자아실현을 위한 선택권리로서의 ‘적극적 복지’라는 개념이 필요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화적 권리’는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함

2. 영상문화의 개념 및 범위

1) 영상문화의 개념

- 상식차원에서 영상문화의 개념에 대한 추상적 이미지는 이미 상당 부분 자리 잡고 있음.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사회에서 영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영상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였고 이전 세대의 활자를 넘어서서 가장 유효한 소통 매체로 자리잡았음. 이미 오래 전부터 ‘영상세대’란 말이 공공연하게 사용될 정도로 영상이 주요한 문화적 매개 수단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영상문화라는 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할 것으로 보임
- 영상문화란 표현이 말 그대로 영상물을 매개로 한 다양한 문화적 행위들과 이와 연관된 다양한 사회적 행위들을 아우르는 총체적 개념이란 점은 분명한데 정책대상으로서의 영상문화를 규정하는 것은 이런 일반론적인 영상문화의 개념적 접근과는 다른 맥락이 발생함. 즉,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행위들을 명시해야한다는 것임
- 이 지점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 지점인데, 첫째, 영상문화가 갖고 있는 본원적 속성인 총체적이고 포섭적인 특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특히 최근의 영상 플랫폼 환경의 빠른 변화를 감안해야 함. 둘째, 영상산업과 영상문화로 대비하고 있지만 영상(영화)은 초창기부터 산업적 영향력과 문화적 역할이 혼재되어 발전해왔음. 따라서 간단하게 두 가지 영역이 나뉘는 것이 아니며 활동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셋째, 영상문화활동이 단순히 수동적인 향유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 창작과 상영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함

- 따라서 공공 정책 대상으로서의 ‘영상문화’를 정의, 범위, 정책구획 설정의 부분은 실제 사회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화정책 및 공공문화 사업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영상과 연관되었거나 영상을 매개로 한 행위를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임

2) 영상문화의 범위

- 현재 이뤄지고 있는 영상 관련 행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범위가 설정이 가능함.

① 제작 형태

- 극장상영, 텔레비전 방영 등을 목적으로 이미지의 연속으로 이뤄진 영상물을 만드는 행위로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다양한 플랫폼에 따른 다변화된 제작이 이뤄지고 있음
- 영상물의 제작 목적에 따라 크게 상업적인 제작 행위와 비상업적인 제작행위로 나뉘어지나 반드시 그 두 가지 영역이 완전히 구분된다고 볼 수 없고 두 가지 영역 사이에 존재하는 형태의 제작 행위도 존재함. 배급되는 방식에 따라 비상업적인 영상물로 의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업적 성격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함
- 제작되는 형태에 따라 극영화, 다큐멘터리, 텔레비전 드라마, 보도영상, 뮤직비디오¹⁾, 홍보영상물(CF), 비디오아트, 교육용영상, 인터넷방송, 게임 인트로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고 있으며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임
- 영상산업과 대비되는 개념에서 영상문화는 주로 비상업적인 영역에서 이뤄지는 영상제작 활동을 포괄함

② 배급 및 상영형태

- 상업적 배급망을 통한 상업극장에서의 상영행위나 상업적 목적의 판매 및 대여되는 비디오, DVD, IPTV를 통한 서비스를 영상산업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를 제외한 비영리적 상영행위 및 방영 형태
- 이윤이 창출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주된 목적이 산업 측면에 치우쳐져 있지 않을 때는 영상문화 활동으로 볼 수 있음

1) 뮤직비디오 역시 본래 음반의 홍보영상물 성격으로 시작되었으나 현재에 와서는 별도의 장르로 취급되고 있음.

③ 교육

- 영화 문해력 교육
- 시민미디어 교육
- 비영리적 전문영화 교육

④ 축제

- 지자체 주도의 영화제
- 민간 주도의 작은영화제

3) 영상문화 활성화 연구를 위한 정책구획 설정

- 문화정책 과정에서 영상문화가 다루지는 것은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구획을 나눌 수 있을 것임

[표 7] 정책 과정에서의 영상 정책 구획

구분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법 제도적 측면	영화 관련 법령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
행정조직	중앙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광역 시도	시, 군, 구(광역시)
지원기구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영상위원회/문화재단/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등	
실행주체 (행위자)	관련 협회, 단체	미디어센터/작은영화관/각종 영화제 조직/ 시네마테크/영상(영화)동호회/지역 독립영화단체/개인	
사업	영상향유권 사업 다양성 영화 지원 사업 영상(영화)교육 사업 등	지역 영화(영상) 관련 사업	
예산	국고 영화발전기금	지방비	

- 위의 표를 통해 임의적으로 영상문화정책 과정의 각 요소들을 나뉘웠으나 현 시점에서 지역을 통한 영상문화 정책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자치 역시 이제 막 정착되고 있는 시점이라 현실적으로는 중첩과 공백이 존재하고 있음

III

KOREAN FILM
COUNCIL

지역 영상문화 정책 현황

1. 지역 문화 환경의 변화
2. 영상문화 정책 현황
3. 영상문화 기반시설 현황 및 분석
4. 영상문화 관련 시민 활동 현황 및 분석
5. 학교 영상문화교육 현황 및 분석

1. 지역 문화 환경의 변화

1) 중앙정부의 지역문화 정책 현황

(1) 지역문화의 개념의 심화와 확장

- 지역문화 정책의 배경
 - 지역이란 넓게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의 대단위로 거론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지역은 한 나라 안의 소지역
 - 생활이 이루어지는 생활 공동체인 지역이 문화와 연결되는 것은 자명한 노릇이며 교통,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지역문화는 지역공동체를 내부로부터 결속시키는 역할을 해왔음
 -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지역과 국가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가 살아 가고 존재하는 현실은 지역을 기초로 하고 있음. 과거와 같이 폐쇄적인 지역 공동체는 사라졌으나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유연한 지역 공동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
 - 지역에서 문화가 더욱 중요한 것은, 문화의 본질이 생활방식인 동시에 사고방식이고 가치기준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임. 지역이 일상의 기본단위이며 근거지란 측면에서 지역문화의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는 추세임

- 지역문화 진흥의 문화 정책적 배경과 과제
 - 문화정책 분야 일반에서 지역문화진흥이 강조되기 시작한 배경은 ▶창조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기반 조성 ▶부족한 문화예술 진흥재원의 확충 ▶재원확충과 연계한 민간자원의 동원 활성화 ▶민간의 전문성과 참여의 제고 ▶정치로부터의 자율성과 문화정책의 일관성 제고 ▶문화행정의 효율성 제고 등으로 요약됨

① 문화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요구

- 한국에서의 근대적 차원의 문화예술진흥정책이 입안·시행되기 시작한 시점은 1970년대 초반임. 1972년~1973년 사이에 ‘문화예술진흥법’(법제도) 제정, 문화예술진흥기금(재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지원기구) 출범으로 제도적 지원의 꼴을 갖추
- 1970년대 초반 형성된 한국의 문화예술진흥정책·제도의 기본적 방향은 유신정권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국가주의가 강하게 관철되어 나타남. 국가주도, 민족주의, 고급예술 중심이 기본 방향으로 자리잡음
- 1980년대 후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대중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와 취향이 다변화되면서 국가 주도의 문화예술진흥정책은 한계에 직면하였으나 제도적 틀로 자

리 잡은 국가 주도, 고급 예술 중심의 관성이 쉽게 변화하지는 못했으며 현재에도 제도의 틀 속에는 과거 국가 주도 문화정책의 흔적이 쉽게 발견됨.(문화예술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해 최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논의 등에서도 “기존 문예진흥법이 제정 당시의 박정희 정부의 민족주의(또는 국가주의, 복고주의)적 목적을 표방하고 있는데 사회 변화에 따른 다원화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목적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되는 것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지역문화의 경우, 과거 국가 중심의 문화정책의 틀 안에서는 소외되거나 전체 국가문화의 작은 일부분으로 평가되었으나 문화예술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이뤄지면서 그 자체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중심 & 주변”이라는 전통적 이분법 시각의 탈피가 강조되고 있음

② 거버넌스(협치)의 등장, 민간자율과 작은 정부

- 민주화 이후 국가 운영의 정부 주도성을 탈피하여 전통적 의미의 중앙·지방정부 행정 기능으로는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이 등장. 행정의 전문화, 세분화, 분권화가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음
-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이에 따른 신공관리론, 시장기반 행정론, 기업가적 정부론 등장 이후 정부기능의 축소, 민간 부문의 정부 정책 참여 확대 및 정책결정 참여 강조 추세가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
- 이와 같은 형태의 작은 정부 추구는 한편으로는 민간자율성 확대라고 해석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책임성을 축소하고 시장논리에 위임시켜버린다는 비판적 측면도 있음. 이런 점에서 민간자율과 정책공공성의 균형을 세울 수 있는 공공정책의 새로운 관점들이 강조됨
- 이를 위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다양한 시민사회의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상호 의존 및 협력하는 통치방식 또는 네트워크 체제 즉, 거버넌스 체제의 효과적 구성·운영이 필요한. 이를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자율성, 민주성과 효율성을 균형있게 조화시키는 방식을 찾아야 할 것임

③ 시설 운영의 전문성 제고 필요성 증대

- 문화행사 및 이벤트의 증가는 지자체의 문화예산 증가를 가져왔고, 전문가들의 문화정책(행정) 참여를 두드러지게 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했으며, 문화행사 및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는 인프라(시설)를 경쟁적으로 건립하는 추세를 강화시키기도 하였음

- 이처럼 문화행사 및 이벤트가 폭증하고, 이를 운영할 전문적 문화인력이 증가하는 한편, 문화행사 개최를 위해 필요한 문화 시설이 확대되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게 되었음
- 즉, 이러한 콘텐츠웨어(문화행사), 휴먼웨어(인력), 하드웨어(시설) 및 문화정책 및 행정의 근간이 되는 법제도(소프트웨어) 전반을 컨트롤하고 일관된 철학과 원칙 아래 관리할 수 있는 지역문화재단과 같은 전문적 기구의 설립이 필연적으로 요구되기 시작한 것임

④ 지역 문화의 욕구 증대

-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향토문화를 가꾸고(문화원), 문화예술 활동을 벌이고(예총, 민예총, 문화동아리), 지역을 문화적으로 바꾸고(문화기획자, 문화시민운동가), 문화적 참여기회의 확대를 꿈꾸던(문화자원봉사자, 문화 마니아) 다양한 사람들이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체계적 수립과 시행, 평가를 기대하고 있음
- 이들은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통해 지역 문화정책(행정)에 참여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을 스스로 가꾸면서 자신들의 문화적 지향을 달성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삶의 지평을 넓히고 질적인 측면의 만족도를 높이려 하고 있음

⑤ 공급자 중심의 시설 운영에서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 서비스 중심 정책으로의 변화 필요

- 그 동안 공급자 중심의 시설 운영에 머물던 소극적 지역 문화예술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 서비스 정책으로 정책 마인드 변화가 요구됨
- 이런 관점에서, 현재 시설관리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 문화주체들을 형성, 발전시키고 이들의 수요와 욕구에 부합되게 시설 기능을 설정하고 운영방식도 조정해야 할 것임
- 시설관리 입장에서 문화 관련 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주의 시대의 산물로 볼 수 있음
- 즉, 과거의 문화행정은 건립해 놓은 것이 있고, 개발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 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었을 뿐, 지역주민의 삶과 건립된 시설이 어떤 관계를 맺느냐, 문화예술 시설들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고려대상이 아니었거나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되는 경향을 보였음
- 따라서, 지역 주민에게 어떤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지역주민이 원하

는 것이 무엇이나, 어떻게 주민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만들 것이냐의 측면을 고려해야 함

- 이러한 입장은 기존 시설관리 위주로 운영되었던 다양한 문화시설(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들의 상호 연계와 시너지 효과를 고민해야 하며 여기에는 주민들의 일상을 문화와 접합시키는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지역문화진흥정책을 둘러싼 주요 정책기조와 방향

- ① 문화의 민주화 정책

- 문화의 민주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문화
 - 문화정책은 고급예술에 대한 입장에 따라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로 양분됨
 - 프랑스의 문화장관 앙드레 말로는 고급예술이 문화발전의 핵심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국가가 이를 보급하고 예술교육을 책임지는 ‘문화의 민주화’ 정책을 펼쳤음
 - 고급예술을 위한 ‘문화의 집’ 건립이 핵심 사업으로 전국에 24개가 건립, 운영되고 있음
 - 문화의 민주화정책에 대한 반대
 -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 구상은 엘리트주의 정책이라는 강한 반대에 부딪혔으며 문화의 집만큼 중시한 예술교육은 교육부의 미온적 태도로 무산되다시피 했으며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지자체들이 크게 부딪치면서 정책이 지속되지 못하였음
 - 그러나 이 정책은 프랑스가 세계의 문화흐름을 주도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

- ② 문화민주주의 정책

- 문화민주주의 정책: 모든 사람들의 문화
 - 문화의 민주화 정책과 쌍벽을 이루는 문화민주주의 정책은 고급예술보다 스스로 만드는 문화를 더 중시하는 정책으로 60년대 민권운동과 문화혁명의 영향을 받아 생겨났음
 - 일방적인 가치의 강요를 거부하고 대중예술, 지역고유의 예술, 이주민 등 소수자의 문화가 갖는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면서 다양한 문화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음
 - 지역주민과 노동자, 이주민 등 소수자들의 자발적 문화 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함
 -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을 중시하는 정책들은 대부분 ‘문화민주주의’ 영향을 받은 것임

- 다양한 예술이 가능한 대중예술 공연장, 시민들의 예술창작 공간 조성 등이 주된 정책임

③ 창의산업 육성 정책: 문화예술의 산업화를 통한 경제적 발전 추구

- 문화경제 활성화: 문화예술의 산업화를 통한 경제적 발전 추구
- 문화활성화 계획을 심사하여 선정한 도시에 EU가 예산 일부를 지원
- 초기 선정된 도시들은 유서 깊은 문화도시들로 큰 성공을 거둠
- 문화인프라와 인적 자원이 빈약하면 큰 투자를 하고도 실패함
- 창조산업 육성정책: 문화기반 경제로의 변화에 대응
- 경제에서 예술의 중요성 확대 → 디자인 등 창조산업을 집중 육성
- 영국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선진국가가 이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
- 한국도 이러한 정책의 일부 도입하고 있음(2004년 창의한국 발표)

(2) 생활문화 개념의 도입

● 생활문화 개념의 배경

- 문화-예술 활동의 전통적 관점은 생산자(창작자)-소비자(향유자, 수용자)의 이분법으로 대상을 구분하고 있거나 생산자-매개자-소비자의 단선적 연결로 이해하는 방식이었음
- 그러나 문화활동의 증대와 시민문화의 자발적 문화욕구 성장은 과거와 같은 단순한 소비, 혹은 향유 형태가 아닌 향유 행위 속에 참여와 생산, 혹은 재생산과 같은 능동적 향유행위를 발전시켜왔고 특히 대중친화적인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문화소비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음
- 문화정책의 관점에서 보자면 고급(엘리트) 문화예술의 대중화가 중심을 이뤘던 ‘문화의 민주화’ 정책과 관점이 대중들의 문화적 역량을 성장시키는 동인이 되었다면 이를 기반으로 시민대중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배경과 문화정체성에 기인하여 스스로의 문화 취향과 욕구를 실현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있는 ‘문화민주주의’ 관점이 더욱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
- 문화민주주의 관점에서의 능동적 문화 향유 기반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주체를 형성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 여전히 다수의 대중들은 수동적 문화향유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문화정책과 문화운동은 개인과 공동체의 일상에 밀착한 경험과 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참여적 문화향유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

- 이런 흐름들은 한편 프로슈머(prosumer) 개념의 등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 생산에 참여하는 소비자를 의미하는 이 말은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그의 저서 《제3의 물결》에서 21세기에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허물어질 것이라 예견하면서 처음 사용됨. 프로슈머는, 소비는 물론 제품 생산과 판매에도 직접 관여하여 해당 제품의 생산 단계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미인데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소비자, 혹은 소비행위의 양태를 설명하는 의미임
- 과거에도 다양한 문화예술동아리, 동호회 활동이 있었으나 최근 법제화된 지역문화진흥법 등에서 생활문화를 별도의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문화 프로슈머의 등장과 활동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여기서 생산되는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임
- 생활문화 개념의 정책적 도입
 -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생활문화 개념을 본격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률적 정의도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음

[표 8]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지역문화와 생활문화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 지역문화진흥법은 생활문화와 생활문화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조항을 담고 있음

[표 9]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지원 내용

-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관련 법률

(1) 문화기본법

- 2013년 12월에 제정된 문화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문화적 권리가 법으로 보장받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음. 문화기본법은 문화예술 분야를 총괄하는 일종의 모법으로 기능하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누려야 할 문화적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국민의 문화적 권리의 신장과 더불어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이 중요한 문화정책의 원리로 등장하게 되었음
- 문화기본법 5조를 보면, 국민의 문화권 보장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8조와 9조를 보면,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문화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또한 제10조 “문화인력의 양성”, 제11조, “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제13조 “문화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이 명시되어 있음. 이러한 조항들은 문화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개별 법 조항에서 지원 근거를 갖고 있었지만,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룬다는 특별함을 부여받게 되었음

- 문화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제도적으로 가장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제 5조4항의 문화영향평가 제도

[표 10] ‘문화기본법’에 따른 책무

〈문화기본법〉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영향평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말하자면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목적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정책의 영역을 넘어선다는 것임
- 문화영향평가의 목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하는 각종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할 때, 1) 문화적 관점을 견지하고 2) 국민의 삶의 질을 고려하며 3) 문화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것에 있음. 문화영향평가에 있어 이러한 세 가지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의 고려로 집약할 수 있음. 문화적 관점을 견지한다는 것은 개발이나 경제적 이익의 추구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적 수준을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문화적 가치가 확산된다는 것은 곧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임

(2) 지역문화진흥법

- 2000년대 초반부터 민간의 문화예술계로부터 지역문화 발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중앙정부 역시 지역문화의 자생적 발전구조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함.(2001년 “지역문화의 해” 선포)
- 200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추진위” 결성. 17대 국회, 18대 국회에서 각각 발의되었으나 정치적 문제와 우선순위에서 밀리며 법제화가 좌절됨
- 그러나, 19대 국회가 개원하자 여·야에서 각각 발의되었음. 박근혜 대통령 역시 공약 사항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약속함. 이에 2013년 12월, 법률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지 10여년 만에 7개의 장과 24개조의 조항으로 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
- 이 법의 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진흥의 기본원칙(제3조)에 근거한 책무(제4조)를 지게 되었으며,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제6조), 생활 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과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의 사업(제8조, 제9조)을 할 수 있게 되었음
- 또한, 지역문화전문인력을 양성(제10조)하고, 지역문화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제11조), 문화도시와 문화지구를 지정·관리할 수 있게(제16조~18조) 되었음
- 제19조와 제20조에서는 지역문화진흥기관(지역문화재단)의 설립·운영의 법적, 제도적, 사업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
- 이에 근거하여 지자체는 지역문화진흥 재정을 확충하고, 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자체 장이나 주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단 등을 설립하여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비교적 활발하게 펼칠 수 있게 되었음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은 지역문화시설, 인력, 제도, 법률적 강제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나, 지역문화진흥체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적 변화라 할 것임

(3)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 국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동법 제1조)으로 2015년 5월 제정
- 이 법에서 포함하는 ‘여가’의 개념은 ‘자유 시간 동안 행하는 강제되지 아니한 활동’이며 다음의 활동들이 포함됨

[표 11] 관련법에 따른 생활문화 관련 영역과 내용

관련법	내용
문화예술진흥법	▶ 문화예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콘텐츠, 문화콘텐츠, 디지털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멀티미디어콘텐츠, 공공문화콘텐츠, 에듀테인먼트
관광기본법	▶ 국민관광
국민체육진흥법	▶ 체육, 생활체육

- 여가활동과 관련 여가시설, 여가교육, 여가산업, 여가전문 인력에 대한 정의가 이뤄지고 있음
- 국민 여가에 대한 기본적 권리가 ‘일과 여과의 조화’(동법 제5조)라는 표현으로 정의됨
- 국민 여가 활성화에 대한 기본계획(문화체육관광부) 및 시행계획 수립(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이 5년 주기로 의무화되어 있음
- 여가교육, 여가시설과 공간확충, 여가전문인력 양성, 사회적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관련 민간단체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여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삼고 있음
- 국민의 여가 생활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며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생활문화 지원과의 관계에서도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나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과 더불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광의의 문화적 여가활동 활성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음

(4) 관련 법률에 근거한 생활권 문화 활성화의 기본 방향

- 생활권에 근거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이 문화정책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님. 1950년대부터 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향토문화 및 문화교육 사업이 있어왔고 문민정부 시절이던 1996년에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시민 문화활동을 모토로 ‘문화의집’을 전국에 조성하였음
- 그러나 상대적으로 한국의 문화예술정책이 엘리트 예술 중심으로 이뤄져왔기 때문에 문화정책에서 생활권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으며 강좌 등 단순기능 습득 위주의 프로그램이 주종을 이뤄왔음. ‘문화의집’ 도입 이후 시민들의 적극성에 기반한 문화참여를 주요한 가치로 삼는 새로운 방향이 시도되기도 했으나 2000년대 초반 이후 사실상 중앙정부의 지원이 끊어지면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 박근혜 정부 이후 ‘문화융성’의 가치를 내세우며 무엇보다 생활문화 및 문화향유를

강조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세 번째 ‘문화융성의 비전 목표’로 ‘문화융성을 통한 국민행복 시대’를 설정하였고, 추진전략 목표를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로 설정함.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라는 전략 목표에는 ‘개인’이라는 문화주체와 ‘모두가 누린다’는 문화향유의 확대라는 정책의 목표가 내재되어 있음

- <문화기본법>을 통해 ‘문화권’이 법적으로 정의되고 <지역문화진흥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등이 제정되면서 생활문화가 문화정책의 주요한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음
- 특히 <지역문화진흥법>은 ‘생활문화’와 ‘생활문화시설’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표 12]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구분	주요 세부내용
2조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 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비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지역문화진흥법 및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생활문화시설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있음

[표 13]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0038호, 2014.10.27, 제정]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생활문화를 위하여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다음 시설을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생활문화시설로 본다.	
생활문화센터 ²⁾	▶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는 문화시설
지역영상 미디어센터	▶ 지역주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되는 시설
지역미디어시설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방송 및 신문, 잡지 등의 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지역문화 예술창작공간	▶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2) 문체부는 지역의 유희시설이나 기존 문화시설을 생활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음. 2014년에는 35개 시설을 2015년에는 32개 시설을 선정하여 국고를 지원하였음

2. 영상문화 정책 현황

1) 영상문화 정책 현황 및 분석

(1) 법 제도 분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상진흥기본법)

- 1962년 1월에 제정된 <영화법>은 영화 분야를 독자적으로 규정한 첫 법률
- <영화법>은 박정희 정권의 영화에 대한 통제와 육성 이 중 정책을 반영하고 있으며, 약 35년간 시행되면서 9차례의 개정. 1995년 <영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됨
- <영화진흥법>은 1995년 12월 30일 제정되어 2006년 4월 28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이 시행되기까지 한국 영화 정책의 주요 변화를 규정.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영비법>은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구분하던 영화와 비디오의 관련 법제를 통합한 것으로 뉴미디어 시대의 콘텐츠 개념을 담고 있음

① 영상진흥기본법

- <영화진흥법>이 <영비법>으로 개정되면서 제정(2007년)
- 영상문화의 발전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
- 영상물 및 영상산업의 정의(제2조): 영상물이란 필름·테이프·디스크 등에 기록된 연속적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를 말함.(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것 제외) 영상산업은 영상물의 제작기술이나, 영상물 제작·활용·유통·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
-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는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 또한, 영상산업의 현대화와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영상물 제작기술의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영상물의 원활한 유통과 배급의 촉진을 위한 방안도 강구
- 정부가 영상산업의 현대화와 안정적인 제작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 정부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에 종사할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

행하고, 영상문화의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영상물을 수집·보존·관리할 것도 규정. 또,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교환이나 공동조사·연구, 기술협력, 영상물의 공동제작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교류하거나 협력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함

②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6년)

- 〈영비법〉은 영화와 비디오물이 연속적인 영상물로서 그 규율 대상이 동일한 콘텐츠인데도, 〈영화진흥법〉과 〈음비법〉의 다른 법률로 규율하고 있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통합 규정해 그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정.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영상물 이용이 디지털과 온라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어 이를 포함할 수 있도록 비디오물의 개념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됨
- ‘제1차 개정 영비법’(2007년): 영화발전기금의 설치를 주 개정사유로 하고 있음.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 영화와 영화·비디오물 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해 ‘영화진흥금고’를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으로 변경하고,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운용하도록 함. 한미 FTA의 선결조건으로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영화발전기금을 확대한 개정안.(또한 ‘영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 영화 의무상영일수(스크린쿼터제)를 기존의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40%) 이상에서 5분의 1(20%) 이상으로 축소)
- ‘제5차 개정 영비법’(2008년): 영화가 디지털 매체로 제작·상영되는 현실을 규율하기 위한 것. ‘디지털 시네마’란 영상저작물을 디지털 파일 형태로 가공·처리하고 이를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디지털 영사기 및 전기통신 기자재로 공중에게 상영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제2조), 영화진흥위원회의 임무에 관련 업무를 추가
- ‘제8차 개정 영비법’(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영화업자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영화의 제작·상영 및 유통 과정에서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28조)는 의무를 부과. ‘영화관 경영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 상영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이하 전산망)에 가입해야 한다(39조)’는 의무 가입규정을 만들

③ 2016년 8월 개정시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 개정취지 (법제처 제공 개정이유)
 - 영화는 산업적 측면과 함께 국민들의 창의적 생각을 북돋우고, 공감을 통해 건강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영상문화적 측면도 매우 중요하므로, 그동안 영상산업 지원에 집중

되었던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지역 영상문화 전반으로 확대하여 한국 영상문화 발전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함

- 한편 현행법 제38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화상영관 지원, 원활한 영화 배급, 공공 상영 및 영상문화교육시설 구축 등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는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이에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영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지역 영상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 지원을 추가하는 한편, 지역 주민·단체의 영상문화 진흥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둬으로써 한국 영상문화 전반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 법의 목적에 ‘영상문화의 진흥’을 포함하고 영화진흥기본계획·시행계획에 지역 영상문화 증진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3조)
-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에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추가(제14조)하고,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지역 영상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 지원’을 추가(제25조)함
-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영상문화 증진을 위하여 영화 제작을 직접 하는 지역 주민이나 지역 영화 관련 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의 2제2항 신설)

④ 소결

- 영상 및 영화 관련 법률 체계는 기본법(영상진흥기본법)과 진흥법(영비법)으로 분법화되어 있는데 이 체제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기본법에서는 영상물 전반을, 영비법에서는 영화와 비디오물을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어 일관성 있는 법적 체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문화관련 법률들과 마찬가지로 영비법 역시 모태가 되는 영화법 시절부터 진흥이나 문화발전의 측면보다는 규제의 측면이 강하게 자리잡아왔음. 현재 영비법에 그런 요소가 많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잔존하는 요소들이 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이어진 영화산업 중흥기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영상문화 전반보다는 영화의 산업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중심이었던 것이 사실임. 이제 영상문화의 문화적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이런 다양한 시대적 한계를 극복하고 법의 패러다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검토하여 ‘영상진흥법’으로의 개정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영화발전기금 예산 주요 사업

-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 목적의 영화발전기금 지역 사업은 ‘지역민의 영화 관람기회 확보’와 ‘영화 미디어리터러시 향상과 창작참여’의 두 가지 방향으로 집행되었음

– 지역민의 영화 관람기회 확보 사업

사업 내역	사업 내용	2015년 예산 (천 원)	비고
시네마테크 전용관 운영지원	▶ 시네마테크전용관 임대 및 위탁운영 (한국시네마테크협회) · 임대료, 프로그램 운영비용, 지역 시네마테크 활동지원 예산 지원	460,000	서울아트 시네마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 영화관 부재 지역 및 영화관람 소외계층 대상 영화 이동상영 서비스 제공 · 한국영상자료원 위탁운영	400,000	
작은영화관 기획전 지원	▶ 전국 작은영화관에서 상영할 예술·고전영화 등 다양한 영화상영 및 관객참여 프로그램 제공	638,000	

– 지역민의 영화 미디어리터러시 향상과 창작참여 사업

사업 내역	사업 내용	2015년 예산 (천 원)	비고
서울영상 미디어센터운영	▶ 시민 대상 영화 창작, 해독 교육프로그램 운영 ▶ 시민의 영상문화 활동에 필요한 장비, 공간 대여	787,000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운영활성화 지원	▶ 전국미디어센터 운영인력 교육 ▶ 지역 영상문화 동호회 및 프로그램 비용 지원	293,000	

• 특징

- 지역 영상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있다기보다 정책적 필요와 지역의 수요에 따른 사업 개발이 지엽적으로 이뤄져 왔으며 여전히 참여와 제작보다는 향유 확산(격차 해소)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 주종을 이룸
- 일관된 지원 체계 및 예산 전달체계가 확립되었다고 보기 힘들며 관련 정책 기관, 정부 주무부처 내 실국 별 사업으로 자리하고 있음
- 영상문화의 확장과 변화에 따른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대한 수요가 있으나 아직까지 관련 예산 사업을 만들 수 있는 정교하고 객관적인 논리 개발에는 한계가 있음

- 지역의 영상문화동호회, 작은영화제, 상영단체 등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지자체, 문화재단, 지역영상위, 지자체 문화산업진흥원 등에서의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들이 있으나 지역별로 제각각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 지방자치 특성상 이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편차가 심하고 지역 영상문화 관련 예산에 관한 통합적 관리 운용의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2) 지자체 영상문화 정책 현황 및 분석

(1) 영상 관련 자치 법규(조례) 현황 및 분석

- 각 지자체의 문화정책은 자치 법령(조례)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며 최근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관련 조례들이 적극적으로 제정되고 있는 추세임
- 따라서 지자체의 조례현황 분류 및 분석을 통하여 지역의 영상문화정책에 대한 의지와 척도를 파악할 수 있음

① 영상관련 조례의 유형별 분류

〈문화산업 및 콘텐츠 관련 조례〉

- 영상은 오랫동안 문화산업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해왔기 때문에 문화콘텐츠의 일부로 정책대상이 되고 있음
-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관련 조례들을 제정한 광역지자체는 9곳에 이르며, 기초지자체의 경우 2군데에서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한 기관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놓았음

[표 14] 문화산업 관련 지자체 조례

분류	자치법규
광역(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경기도) ▶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경상북도) ▶ 광주광역시 문화콘텐츠 진흥 조례(광주시) ▶ 대구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대구시) ▶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대전시) ▶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부산시) ▶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인천시) ▶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전라북도)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제주)
기초(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천 남구) ▶ 안동시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경북 안동)

〈영상 및 영화 관련 진흥조례〉

- 영상 및 영화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갖고 있는 곳은 광역 6곳, 기초 5곳임
- 주로 영상산업 육성을 조례명에 명기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영상진흥기본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문화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음. 지자체 장의 영상진흥시책의 수립 의무 등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으나 구체적으로 영상산업 진흥 외의 영상문화에 관한 부분은 추상적으로 서술되어있음

[표 15] 영상 및 영상산업 관련 진흥조례

분류	자치법규
광역(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부산) ▶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인천) ▶ 강원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강원) ▶ 충청북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충북) ▶ 전라북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전북) ▶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제주)
기초(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중구 영상산업 육성 조례(인천시 중구) ▶ 고양시 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 조례(고양시) ▶ 구리시 영상·영화진흥 조례(구리시) ▶ 정읍시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 진흥 지원 조례(정읍시) ▶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전주시)

〈영상미디어센터 관련 조례〉

- 영상미디어센터를 설치한 지자체는 영상미디어센터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으며 기초지자체가 대부분이나 광역 중에는 충청남도가 유일하게 미디어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를 갖고 있음

[표 16] 영상미디어센터 관련 조례

분류	자치법규
광역(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충남)
기초(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 강서구) ▶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수원시) ▶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부천시) ▶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강릉시) ▶ 원주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원주시) ▶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설치·운영조례(화천군) ▶ 옥천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옥천군) ▶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천시) ▶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익산시) ▶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순천시) ▶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천 남구)

〈영상위원회 관련 조례〉

- 영상위원회 관련 조례는 기초지자체 2군데에 있음. 고흥에도 유사한 조례가 있었으나 2013년 폐지

[표 17] 영상위원회 관련 조례

분류	자치법규
기초(2)	▶ 사단법인 제천시 청풍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천시) ▶ 부안군 영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부안군)

〈공공 상영시설(작은영화관) 관련 조례〉

- 최근 만들어지고 있는 작은영화관 등 공공상영시설에 관한 조례

[표 18] 작은영화관 등 공공상영관 관련 조례

분류	자치법규
기초(6)	▶ 화천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화천군) ▶ 고흥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고흥군) ▶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부안군) ▶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순창군) ▶ 장흥군 작은영화관 「정남진시네마」 운영 관리 조례(장흥군) ▶ 진안군 마이골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진안군)

〈기타 관련 조례〉

- 그 밖에 영화 및 영상 관련 조례들은 주로 테마파크, 촬영소 등 시설 관련 조례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표 19] 기타 영상 시설 등에 관련한 조례

분류	자치법규
광역(2)	▶ 부산광역시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부산) ▶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경기도)
기초(13)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 운영 조례(해운대구)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부천시) ▶ 남양주시 영상단지추진위원회 조례(남양주시) ▶ 나주영상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나주시) ▶ 나주영상테마파크시설 위탁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나주시) ▶ 부안영상테마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부안군) ▶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합천군) ▶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천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삼 영화마을 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울산 울주군) ▶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전주시) ▶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전주시) ▶ 밀양시 연극촌·영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밀양군) ▶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익산시)

② 현황 및 특징

-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영상(영화)을 문화콘텐츠의 일부로 다루고 있으며 별도의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는 곳은 광역지자체에서도 6곳에 불과함. 해당되는 정책에 관한 조례를 아예 갖고 있지 않은 지역도 5군데임. 반면에 문화콘텐츠 관련 조례와 영상 관련 조례를 중복해서 갖고 있는 곳이 4군데임
- 이는 영상 등 문화산업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정책적 추진이 편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음

[표 20] 문화콘텐츠 및 영상관련 조례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문화콘텐츠 조례		○	○	○	○	○			○				○		○		○
영상 조례		○		○						○	○		○				○

- 지역영상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조례보다는 지자체의 상황과 히스토리에 따른 제도화로 인해 비균질적인 모습을 보임. 영상문화를 포괄하는 경우보다는 영상산업 육성이나 영상테마파크와 같은 영상사업(시설) 관련 조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체계적이거나 일관된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드물고 지역적 편차가 존재함
- 시설 및 기관 운영관련 내용들의 비중이 적지 않으며 산업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작은영화관 등 공공상영시설에 관한 조례 제정이 최근 이뤄지고 있음
- 상위법의 개정 방향에 따라 영상문화 관련 내용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지자체 조례의 개선이 요구됨

③ 지역 영상문화진흥 조례의 필요성

- 영상문화 개념들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지역문화 진흥 정책의 큰 그림 안에서 영상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원 프로그램 중복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야 함
- 지역영상문화의 의의를 정확히 밝혀 중앙 중심의 영상문화정책(영화정책)의 패러다임과 ‘중앙→지방→민간’의 하향식 일방향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일상과 결부된 영상 문화 환경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영상문화정책 및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제도가 필요함

④ 지역영상문화 조례의 방향

- 지역영상문화 조례에 대한 인식전환: 지금까지 개별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지역 영상문화 사업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포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진흥 전략을 체계화하고 시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종합적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지역 문화정체성 반영: 문화 시설 중심의 획일적 조례 내용을 탈피하여 지역의 영상문화자원과 환경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에 기초한 지역영상문화 조례 수립이 필요함
- 시민 문화권 향상을 위한 지역 영상문화조례: 문화기본법이 문화권을 기본적인 사회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지역영상문화 조례 역시 영상문화에 관한 다양한 시민 주체들의 참여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자리할 필요가 있음

(2) 지자체별 관련 업무 및 분석(광역단체)

① 영상관련 업무 추진 체계

[표 21] 지자체별 영상관련 업무 현황

지역	추진 체계	주요 업무
서울	경제진흥본부 - 창조경제기획관 - 문화융합경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창작공간 운영 ▶ 좋은영화와 함께하는 우리마을 소극장 운영 ▶ 서울영상진흥재단 설립 추진 ▶ 서울 및 수도권 영화산업 거버넌스 구축 추진 ▶ 서울영상진흥위원회 운영 ▶ 시네마테크 건립 추진 ▶ 서울촬영 지원 ▶ 해외영상물 서울로케이션 마케팅 지원 ▶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 ▶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 ▶ 충무로영상센터 운영
부산	문화관광국 - 영상콘텐츠 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콘텐츠진흥관련 육성 종합계획 수립 ▶ 「국제 영상콘텐츠 밸리」 조성사업 ▶ 부산국제영화제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글로벌종합촬영소건립(기술부분),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 영화진흥위원회 부산사옥 건립지원, 부산센텀영상클러스터 공원조성 ▶ (재)「영화의전당」운영 관리 및 지도감독 ▶ 작은영화관 지원 관련 ▶ 영화·영상산업 생태계 조성 및 전문 인력 양성 관련 등
대구	문화체육관광국 - 문화콘텐츠과	▶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 등 관련업무 문화콘텐츠 R&BD 지원업무 음반·비디오물 제작·배급업에 관한 업무
인천	문화관광체육국 - 문화예술과	▶ 영상위원회 운영 및 영상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지역	추진 체계	주요 업무
광주	문화관광정책실 - 문화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콘텐츠 기획창작스튜디오 운영 지원 ▶ 광주국제영화제 및 여성영화제 지원 ▶ 영화 드라마 로케이션 제작 지원 등
대전	과학문화산업본부 - 문화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 드라마 촬영 지원관련 업무 총괄 ▶ 대전 영상위원회 운영관리 ▶ 첨단영상 문화산업 발굴육성 ▶ 신기술 영상산업 지원 등
울산	문화체육관광국 - 문화예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업무 ▶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 개발 ▶ 게임, 영상미디어 등 문화예술 산업분야 육성·지원
세종	균형발전국 - 문화체육관광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경기	문화체육관광국 - 콘텐츠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 찾아가는 영화관 ▶ DMZ국제다큐영화제 지도 감독 및 사업 지원 ▶ 영화·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 경기영상위원회 운영 및 지도 감독 ▶ 다양성 영화산업 육성 및 지원 ▶ 로케이션 지원
강원	문화체육관광국 - 문화예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산업 육성지원(미디어, 영상 활성화 지원) ▶ 디지털 작은영화관 운영지원
충북	문화체육관광국 - 문화예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산업 콘텐츠 관련업무 등
충남	문화체육관광국 - 문화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영화관 및 영상위원회 운영 등
전북	문화체육관광국 - 문화예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 관련 행사(국제·시민·독립영화제) 지원 ▶ 문화콘텐츠산업 통계조사 및 지표설정 관리 ▶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 지원 ▶ 지역문화콘텐츠 데이터베이스 구축 ▶ 한류 영상 로케이션 관광 자원화
전남	관광문화체육국 - 문화예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위원회 구성 운영 ▶ 영상산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영화관련 업무 추진 및 지원
경북	문화관광체육국 - 문화융성사업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영화관 건립
경남	문화관광체육국 - 문화예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영화, 다양성 영화 등 영상산업 육성·지원 ▶ 경남 어린이 영상문화관 지원 ▶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및 작은영화관 건립 지원
제주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콘텐츠 활성화 지원 ▶ 문화산업 관련 사업 추진 ▶ 제주영상위원회 관련 업무

- 영상 분야를 별개의 과로 편성하고 있는 곳은 부산국제영화제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영상인프라가 집중된 부산광역시 한 군데이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문화예술과, 문화산업과, 문화정책과에 배치하고 있음
- 지역의 규모나 영상문화 환경에 따른 인력과 사업의 규모가 크게 차이가 있음. 영상 관련 업무가 문화산업(콘텐츠) 업무의 일부로 결합되어 있거나 한 명의 공무원이 영상을 포함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음
- 독립 영화나 다양성 영화들이 영상산업의 진흥에 포함되어있는 경우도 있음(경남도)
- 지역특성에 따라 업무 영역의 차별성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음(대전-과학기술과의 융복합)

② 주요 업무 영역

- 아래 표는 각 지자체에서 주요 업무 영역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실제 사업 시행과는 차이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업무에 포함되어 진행되는 경우도 있음

[표 22] 지자체별 영상문화 관련 주요 사업 분포

	산업 지원	종합계획 등 정책 수립	미디어센터 지원	작은영화관	영상위원회	영화제 지원	생태계 지원
서울	○		○	○	○	○	
부산	○	○		○		○	○
대구	○		○				
인천	○				○		
광주	○					○	
대전	○				○		
울산	○						
세종			○				
경기	○		○	○	○	○	○
강원	○			○			
충북	○						
충남				○	○		
전북	○	○				○	
전남	○	○			○		
경북				○			
경남	○		○	○			○
제주	○				○		

- 대부분 지역이 영상을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의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영상을 주된 업무로 삼고 있음

- 산업지원 이외 업무로는 미디어센터, 작은영화관, 지역 영화제 지원 등이 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다양성 영화 등 비상업적 영상의 제작지원이나 인력양성과 같은 생태계 지원은 극히 적은 상황임
- 생활문화 활성화에 따른 동호회 지원 등이 필요한 상황이나 영상분야가 주로 산업진흥의 시각에서 다뤄지고 있어서 생활문화영역과의 협력 및 업무 연계가 쉽지 않음
- 지역의 영상인프라 조사,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지역영상정책 수립을 위한 업무는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3. 영상문화 기반시설 현황 및 분석

1) 지역영상미디어센터

(1)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개념 및 역할

- 영상정보시대의 도래와 함께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조성되었고 미디어 수용자의 활동 범위도 확장되었음.³⁾ 미디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미디어 활용능력에 대한 요구가 생겨났으며, 이러한 수요에 발맞춰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정부부처에 의해 설립되기 시작함
-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개인·공동체에게 미디어에 관한 퍼블릭 액세스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문화기반시설임. 지역민의 영상문화 향유권 확충을 위해 다양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과 영상기자재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고 있음⁴⁾
- 국내의 경우, 2002년 영화진흥위원회가 개관한 미디어엑트를 필두로 미디어센터들이 전국 곳곳에 설립되기 시작함
- 현재 41개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설립되었으며, 지역민의 미디어활용능력 제고와 참여적 미디어활동 활성화, 미디어 접근권 확대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⁵⁾

3) 정혜승, 「영상미디어센터 위탁 운영 사례를 통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학위논문, 2015, 4쪽

4) 허경 외, 『지역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작은영화관 및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 지원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3, 45쪽

5) 경희령 외,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교사양성체계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12, 16쪽

• 주요 운영프로그램

- 미디어교육: 미디어 체험·읽기·제작, 학교 및 관련 기관 연계
- 시민영상콘텐츠 제작지원 및 동아리지원: 장비 및 컨설팅 지원, 콘텐츠 유통 지원, 시민영상동아리활동(제작/감상) 지원 등
- 상영관 운영: 영화상영 및 영화감상동아리 지원 등
- 소외계층 미디어활동 지원: 노인,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 지역문화시설 연계 사업: 작은도서관, 공부방, 청소년시설, 문화의 집 등과 연계한 미디어문화 사업

(2) 설립현황

[표 23]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현황

권역	지역	명칭	주소	웹사이트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영상미디어센터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길 2 본관 4층	www.media-center.or.kr
	성북구	성북 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서울시 성북구 아리랑로 82 아리랑시네센터 4F	sbtv.kr
		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71 노블레스클래식 2F/3	kcmf-seoul.or.kr/comc
	중구	충무로 영상센터 '오! 재미동'	서울시 중구 퇴계로 지하 199 충무로역사 내 지하1층	ohzemidong.co.kr
	강서구	강서영상미디어센터	서울시 강서구 우장산로 66 강서구민회관 2층	gsmedia.gangseo.seoul.kr
	마포구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트'	서울시 마포구 서강로9길 52 동북이세빌딩 3층	www.mediaact.org
	용산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스스로넷'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55 청소년미디어센터	www.ssro.net
	은평구	은평뉴타운도서관 미디어라이브러리센터	서울시 은평구 진관2로 111-51	www.enlib.or.kr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CAMF'	주안로 82 주안영상미디어센터 5층	www.juancamf.or.kr
	연수구	인천 시청자미디어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54번길 19	blog.naver.com/incheoncomc
	강화군	강화미디어센터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비고개로19번길 12 2층, 3층	www.ganghwamediacenter.co.kr
대전광역시	대전	대전 시청자미디어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12번길 20	blog.naver.com/medianuri
울산광역시	울산	울산MBC 시청자미디어센터	울산시 중구 한사랑길 79 울산문화방송 별관 2층	www.mbcmediacenter.co.kr

권역	지역	명칭	주소	웹사이트
경기	부천	부천 시민미디어센터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107 복사골문화센터 6층	www.bcmc.or.kr
	고양	고양 영상미디어센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로 33	www.gymc.or.kr
	성남	성남 영상미디어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www.snmedia.or.kr
	수원	수원 영상미디어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93	www.swmedia.or.kr
충남	천안	천안영상미디어센터 ‘비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111	www.camedia.or.kr
	서천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145번길 30	mediasp.kr
충북	제천	제천 영상미디어센터 ‘봄’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242	www.jcbom.com
	옥천	옥천군 영상미디어센터	옥천군 옥천읍 관성로 4길 10	ocmc.oc.go.kr
대구 광역시	대구	대구영상 미디어센터 ‘씨눈’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1(신천동102) 대구콘텐츠센터 12층	www.dgmedia.or.kr
	대구	대구MBC 시청자미디어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0 대구MBC 7층	www.mbcmediacenter.co.kr
경북	안동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경상북도 안동시 서동문로 207 영상미디어센터	gcube.or.kr
부산 광역시	부산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2	www.comc.or.kr
경남	김해	김해 영상미디어센터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060	okcom.in
	창원	경남MBC 시청자미디어센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서9길 11-11 창원MBC 7층	www.mbcmediacenter.co.kr
	진주	진주 시민미디어센터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6-1 3층	www.jjmedia.or.kr
	양산	양산 영상미디어센터	경상남도 양산시 모래들길 57-57	www.facebook.com/yangsanmedia
강원	원주	원주 영상미디어센터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139 건강문화센터 4층	www.wonjumc.kr
	강릉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강원도 강릉시 울곡로 2923-12 행복한 모루 4층	www.gnmedia.or.kr
	화천	화천생태영상센터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용화산로 1037	화천생태영상센터.kr
	춘천	강원 시청자미디어센터	강원도 춘천시 서면 박사로 882	blog.naver.com/gangwoncomc
제주	제주	제주 영상미디어센터	제주도 제주시 신산로 82번지	www.jejumedia.com

권역	지역	명칭	주소	웹사이트
광주광역시	광주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	광주시 서구 회재로 905	comc-gj.or.kr
		동구 영상미디어센터	광주시 동구 남문로 646	www.donggumc.kr
전남	순천	순천영상미디어센터	금곡길 25	www.scmedia.or.kr
	목포	목포MBC 시청자미디어센터	전남 목포시 영산로 334 목포MBC內	www.mbcmediacenter.co.kr
전북	익산	익산공공영상 미디어센터 ‘재미’	전북 익산시 인북로 424 (신동 131)	www.ismedia.or.kr
	전주	전주 시민미디어센터	전라감영5길 18 한국산업은행 전주지점 3층	www.0simi.org
		전주MBC 시청자미디어센터	선너머1길 50 전주문화방송 지하1층	www.mbcmediacenter.co.kr

- 전국 41개소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각각 운영 주체와 설립 주체가 매우 다양함.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설립 주체별로 아래와 같이 분류해볼 수 있음⁶⁾
- 문화체육관광부가 설립 주체로 되어있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총 17개소이며, 5개소의 MBC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문화진흥회가 설립하였음.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7개소에 이르며, 민간 2개소, 영화진흥위원회 2개소,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가 시청자미디어센터가 5개소를 설립하였음

[표 24]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운영주체 현황

설립주체	운영주체		센터명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17개소)	영상 위원회 계열	(사)제주영상위원회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사)청풍영상위원회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사)전남영상위원회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진흥원 계열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씨눈’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비채’
		(재)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안동영상미디어센터
	문화 재단 계열	(재)김해문화재단	김해영상미디어센터
		(재)부천문화재단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재)고양문화재단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재)성남문화재단	성남미디어센터
		(재)강릉문화재단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6) 손동혁 외, 『지역미디어센터 실태조사 및 모델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13, 10쪽

설립주체		운영주체	센터명
	민간 단체	(재)수원청소년육성재단	수원영상미디어센터
		남구학산문화원	주안영상미디어센터 ‘CAMF’
		(사)원주민예총/원주시민영상협의회	원주영상미디어센터 ‘모두’
		(사)삼동청소년회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
		(사)관악FM	서천군미디어문화센터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강화미디어센터
농림부/지자체		옥천군	옥천군영상미디어센터
환경부/지자체		(사)관악FM	화천생태영상센터
방송통신위원회 (6개소)		(재)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방송문화진흥회 (5개소)		경남독립영화협회	경남MBC시청자미디어센터
		대구MBC	대구MBC시청자미디어센터
		전북대학교	전주MBC시청자미디어센터
		목포대학교	목포MBC시청자미디어센터
		울산MBC	울산MBC시청자미디어센터
영화진흥위원회 (2개소)		영화진흥위원회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퍼블릭액세스실현을위한전북네트워크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
지방자치 단체 (7개소)	서울시	(사)서울영상위원회	충무로영상센터 ‘오!재미동’
	성북구	(재)성북문화재단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강서구	강서구청	강서영상미디어센터
	서울시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청소년미디어센터 ‘스스로넷’
	광주동구	(사)꿈과도전	동구영상미디어센터
	양산시	양산시	양산영상미디어센터
	은평구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은평뉴타운도서관 미디어라이브러리센터
민간 (2개소)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엑트’
		진주시민미디어센터	진주시민미디어센터

(3) 영상문화 활동

-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다양한 사업을 기획함으로써 지역민에게 영상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각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영상 중심의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영상문화 향유권의 외연 확장을 시도(아래의 [표 25]⁷⁾ 참조)

7) 황치성 외, 『미디어센터 네트워크 구축』, 한국언론진흥재단, 2013, 56쪽 재인용

[표 25]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주요 사업 영역

구분	세부사업
미디어교육	▶ 상설강좌, 공동체미디어교육, 미디어교육 강사 양성
창작지원	▶ 제작지원, 시민제작단(동아리)지원
영화상영	▶ 상영관 운영, 찾아가는 영화관, 아카이브 운영, 영화감상동아리 지원
공간장비 대여	▶ 교육실/상영관/동아리방 등 대여, 영상제작 장비 등 대여
기타	▶ 지역 내 미디어/문화 네트워크 구축, 전국적 네트워크 활동, 스태프 재교육 사업

- 미디어교육에 관하여 각 센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의 지원을 받아 미디어 상설강좌를 지역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제작지원의 경우 지역민을 모집하여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재원을 보조함으로써 시민 미디어활동가를 배출함. 또한 각 센터에서는 상영관 운영과 영상문화 동호회 지원 등을 통해 상영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편집실, 녹음실과 같은 공간을 제공하고 영상 제작 장비를 대여해줌으로써 영상콘텐츠에 대한 지역민의 접근성을 제고함⁸⁾ (아래의 [표 26]⁹⁾ 참고)

[표 26]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사업 운영현황(사례)

사업 구분			사업명
교육	영상	체험	촬영스튜디오
		기초	간단영상 만들기
			장애인 영상제작
		중급	단편영화제작 워크숍
			다큐멘터리제작 워크숍
			프리미어 및 애프터이펙트
	생활	기초	스마트폰 완전정복
	청소년	기초	방학 특강
		토요 학교	왓자지껄 원주이야기
	특강	기초	촬영스튜디오 기초 활용
		중급	촬영장비 특강
	상영지원		
		독립·예술영화개봉	
		도담도담시네마	
		원주여성영화제	
	원주다큐페스티벌		

8) 허경 외, 『지역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작은영화관 및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 지원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3, 61쪽

9)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및 사업평가 보고서』, 원주시청, 2015, 17~18쪽

사업 구분	사업명
제작지원	사전제작지원
	상시제작지원
	장비유지보수
정책사업	미디어+인문학 강좌
	개관 기념상영회
	미디어+문화매거진 모두
	모두갤러리

(4) 지역 영상미디어센터의 성과 및 한계

■ 성과

-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영상미디어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민의 영상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이끌어내고 있음. 영상미디어에 대한 기술 및 이론 교육을 진행하여 교육 참여자들의 영상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킴. 또한 지역미디어센터는 타 기관과의 연계성을 통한 미디어교사 양성과정, 생애주기별 교육 등의 모델을 개발하여 미디어 교육의 양/질적 확대를 시도하고 있음
- 제작/상영지원을 통하여 지역민이 영상문화를 접할 수 있는 저변을 마련함. 이러한 영상문화 활동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민에게 주도적인 영상문화 향유환경을 제공하고, 시민미디어 활동가 양성 및 시민콘텐츠 제작 기반을 조성하여 퍼블릭액세스의 활성화를 이룩함¹⁰⁾
- 이렇듯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지역민의 영상문화향유권 확대, 창조적 시민콘텐츠 육성, 영상분야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등 2005년 사업 시행 이후 꾸준히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밀착형 영상문화지원시설임
- 전국 37개소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문화융성 및 생활 속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거점으로 시민 호응도가 높은 상황임

■ 한계

- 대부분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경우 재정 구조가 취약한 상황임. 미디어센터 이용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해 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한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비용은 부족함. 지역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중앙 정부부처에서는 설립지원을 넘어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을 고려해야 함¹¹⁾

10) 김진영, 「영상문화교육을 위한 국내 미디어센터 운영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예술교육연구』, 한국문화교육학회, 2014, 199~200쪽

- 2013~2014년 7월까지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과 제작 지원을 통해 약 600여편의 시민콘텐츠가 제작되었음.¹²⁾ 하지만 이러한 시민콘텐츠의 유통은 답보 상태. 그러나 다채널·멀티플랫폼의 미디어유통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지역민이 제작한 문화콘텐츠의 유통 전략 수립이 가능함. 이를 위해 시민콘텐츠의 유통에 관한 정책 수립과 미디어센터와 채널·플랫폼사업자와의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장비 노후화 및 구형화가 진행되고 있음. 이는 미디어센터 개관 후 장비교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 장비의 저사양화를 방지하기 위해 노후장비 교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 상술한 것처럼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취약한 재원 구조를 고려하였을 때, 중앙 정부를 비롯한 공적 보조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지닌 문제점 중 하나는 전문인력의 이탈임. 미디어센터 직원에 대한 고용 안정성 및 복지 제도, 재교육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 열악한 직원 처우는 해당 미디어센터의 비전 달성과 미래설계에 영향을 끼치므로 이에 관한 보완책이 필요¹³⁾

2) 작은영화관

(1) 작은영화관 설립근거

- 인구수가 적어 민간 사업자가 극장을 운영하지 않는 지역에 공적 자금을 지원해 극장을 설립, 운영하는 작은영화관 사업은 개봉 영화를 상시 상영해 지역민의 영화 관람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 중소 도시 거주자들의 문화 향유권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 지방특별회계 포괄보조금사업 가이드라인’에서 작은영화관 건립지원 사업의 목적을 “극장부재 기초지자체에 최신 영화를 볼 수 있는 상설 상영관을 건립, 지역주민의 영화문화 향유권을 강화하고,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것으로 명시함
- 2014년 제정시행된 <문화기본법>은 제4조에서 모든 국민은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에 참여할 권리인 ‘문화권’을 가진다고 선언하였고, 제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문화복지가 차별없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11) 미디어엑트, 『2008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운영 평가』, 문화체육관광부, 2009, 330쪽

12) 유은혜, 『201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① 지역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진단과 제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5, 31쪽

13) 손동혁 외, 『지역미디어센터 실태조사 및 모델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13, 91~97쪽

규정하고 있음. 작은영화관의 설립과 운영은 이러한 <문화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27] 문화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7조(문화정책 수립·시행상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고 문화의 창조성이 확산되도록 할 것
2. 국민과 국가의 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여건을 조성할 것
3. 문화 활동 참여와 문화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문화 창조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할 것
4. 차별 없는 문화복지가 증진되도록 할 것
5.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문화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6. 문화의 국제 교류·협력을 증진할 것

- 작은영화관 정책은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문화 향유권 강화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연구」를 시작으로 관련 연구가 시작됨.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방특별교부세로 작은영화관 설립을 지원하면서 2016년 현재 총 23개 작은영화관이 설립되었음

[표 28] 작은영화관 정책 경과

연도	경과	비고
2010	▶ 전북 장수 한누리시네마 개관	
2012	▶ 10월: 영화문화 향유권 강화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연구 (문화체육관광부/영화진흥위원회)	인제군 하늘내린센터 상영관 운영 (Cinema by CGV)
2013	▶ 3월: 지역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작은영화관 및 지역영상 미디어 센터 설립 지원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 4월: 지역주민의 영화향유권 강화를 위한 정책설명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협력) ▶ 5월: 작은영화관 설립지원 신청(문화체육관광부부 지방특별회계) ▶ 11월: 작은영화관 운영활성화 워크숍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영화진흥위원회)	– ‘문화융성’ 국정과제 채택 – 홍천군 작은영화관 개관

연도	경과	비고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작은영화관 조성·운영 매뉴얼 발간(영화진흥위원회) ▶ 4월: 작은영화관 기획전 지원사업 (영화진흥위원회/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 5월: 작은영화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설명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영상자료원 및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협력) ▶ 5월: 작은영화관 설립지원 신청(문화체육관광부 지방특별회계) ▶ 9월: 작은영화관 워크숍 개최(문화체육관광부/전라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기본법〉 및 〈지역 문화진흥법〉 시행 - 화천군 작은영화관 개관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전북 작은영화관 정책세미나개최(전라북도/영화진흥위원회/전주시민미디어센터/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 5월: 작은영화관 설립지원 신청(문화체육관광부 지방특별회계) ▶ 5월: 작은영화관 기획전 지원사업 운영 (영화진흥위원회/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2) 작은영화관 현황 및 운영주체

- ‘작은영화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전체 100석 내외의 총 2개관으로 구성된 소규모 상설 상영관을 지칭함. 극장이 없는 인구 10만 명 이하의 중소 지역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간 영화 향유권 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공공 문화 시설임
- 작은영화관에서는 지역 간 개봉 시기 차이 없이 같은 영화를 볼 수 있도록 개봉 영화를 상시 상영하며,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 사업을 통해 작은영화관의 기획전을 운영하고 있음. 전라북도 지역의 경우 지자체의 지원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영화(영상)제작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 2010년 개관한 전북 장수의 ‘한누리시네마’를 시초로 2016년 9월 기준 전남 2개, 전북 9개, 강원 5개, 경북 2개, 경남 2개, 울산 1개, 인천 1개, 충남 1개 총 23개의 작은영화관이 설립·운영되고 있음
- 전북 장수를 포함한 17개 지역이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전북 고창과 완주는 각각 비영리기관인 고창문화원과 지역문화단체인 (사)완주군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에 위탁 운영 중임.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곳은 전북 김제의 ‘지평선시네마’와 울산 울주의 ‘알프스시네마’, 전남 고흥 ‘고흥작은영화관’ 등 총 세 개임

[표 29] 작은영화관 개설 현황(2016.9 기준)

No	지역	극장명	개관년도	운영방식
1	전남	장흥	정남진시네마	위탁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2		고흥	고흥작은영화관	직영 (고흥군)
3	전북	장수	한누리시네마	위탁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4		김제	울망줄망 지평선시네마	직영 (김제시)
5		임실	작은별영화관	위탁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6		무주	무주산골영화관	위탁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7		고창	동리시네마	위탁 (고창문화원)
8		부안	마실영화관	위탁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9		완주	완주휴시네마	위탁 ((사)완주군생활문화동화동호회네트워크)
10		진안	마이골 작은영화관	위탁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11		순창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위탁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12		홍천	홍천시네마	위탁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13	강원	화천	산천어시네마	위탁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14		영월	영월시네마	위탁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15		평창	평창시네마	위탁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16		삼척	가람영화관	위탁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17	경북	고령	대가야시네마	위탁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18		영양	영양작은영화관	위탁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19	경남	남해	보물섬시네마	위탁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20		합천	합천시네마	위탁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21	울산	울주	알프스시네마	직영 (울주군)
22	인천	강화	강화작은영화관	위탁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23	충남	서천	기벌포영화관	2016 예정 위탁 (관악FM)

- 그 외 강원 정선, 철원, 경남 사천, 충북 영동, 충남 예산 등의 지역에서 작은영화관 설립 계획을 가지고 있음

(3) 작은영화관 재원구조

- 작은영화관은 국비와 지방비 등을 통해 조성되며, 운영 주체는 상이하나 설립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동일함. 지자체가 설립한 작은영화관은 지자체 소유의 행정재산에 해당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관리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작은영화관의 각 운영주체는 관람료, 매점 수익, 광고 수익 등으로 작은영화관 운영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표 30] 작은영화관 운영 현황

No	개관 년도	지역	극장명	영화관 순익(%)	운영인력(명)		주민수 (명)	관객수 (명)
					정규직	비정규직		
1	2012	전북 장수	한누리시네마	12%	2	6	23,490	25,132
2	2013	전북 임실	작은별영화관	8%	2	5	29,940	35,505
3	2013	전북 김제	올망졸망 지평선시네마	17%	1	5	89,218	79,175
4	2014	강원 홍천	홍천시네마	13%	2	6	70,580	54,941
5	2014	전북 무주	무주산골영화관	24%	2	6	25,555	24,026
6	2014	전북 고창	동리시네마	18%	6	0	59,613	33,593
7	2014	전북 부안	마실영화관	9%	3	4	58,066	20,333

- 작은영화관의 주 재원은 관람료를 통해 확보되므로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관객 확보가 중요함. 장수 ‘한누리시네마’와 임실 ‘작은별영화관’은 관객수가 지역주민수를 넘었으며, 전북 ‘무주산골영화관’ 역시 관객수가 지역 주민수에 근접함. 그 외 지역 역시 운영 지출 대비 수입 증가 추세임
- 그러나 영화관 매출은 유동 인구나 직접적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구 10만 명 이하의 중소 도시에 위치한 작은영화관에서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인당 관람횟수를 높일 수 있는 장기 전략이 요구됨
- 최신 개봉 영화 수급을 통해 지역 간 관람 격차를 해소하고 잠재 관객층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정 관객층을 두텁게 하기 위해 상영 영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기획전, 영화(영상)교육 등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여 영화관을 넘어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기능해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작은영화관 기획전’은 2015년 총예산 6억 3천 8백만원으로 총 15개 작은영화관에서 개최됨. 작은영화관 자체 예산이 아닌 기획전 전용 지원 예산을 통해 운영되므로 운영상 부담은 줄이고, 기획전 기간 동안 상영 영화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잠재 관객을 개발할 수 있었음
- ‘작은영화관 기획전’과 같은 관객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 운영 인력 확보, 유관 단체와의 협업 등이 필요함. 또한 신규 관객 확보를 위한 영화관과 상영작 홍보, 마케팅 전략의 개발과 고정관객층을 두텁게 하기 위한 다양한 영화 상영 프로그램 개발이 병행되어야 함

[표 31] 2015년 작은영화관 기획전 운영 현황

No	지역	극장명	개최 횟수	전체 관객수(명)	교육		전체 좌석점유율
					교육수	참여자수(명)	
1	강원 홍천군	홍천시네마	3	3,039	6	169	84%
2	전북 고창군	고창군 동리시네마	3	2,910	5	129	79%
3	전북 완주군	완주군 완주휴시네마	3	2,853	2	99	78%
4	전북 김제시	김제시 지평선시네마	3	2,553	2	130	76%
5	전북 부안군	부안군 마실영화관	3	2,482	4	128	68%
6	전북 장수군	장수군 동리시네마	3	2,421	6	173	67%
7	인천 강화군	강화군 강화작은영화관	3	2,285	2	138	61%
8	전북 임실군	임실군 작은별영화관	3	2,218	5	150	59%
9	전북 무주군	무주군 산골영화관	3	1,552	4	95	43%
10	강원 화천군	화천군 산천어시네마	3	1,546	2	64	36%
11	강원 영월군	영월군 영월시네마	2	1,364	1	9	57%
12	전북 진안군	진안군 마이골영화관	2	1,272	1	12	64%
13	전남 장흥군	장흥군 정남진시네마	2	1,272	2	118	63%
14	경북 울주군	울주군 울주알프스시네마	1	559	1	60	30%
15	충남 서천군	서천군 기벌포영화관	1	503	—	—	43%
계			38	28,829	43	1,474	62%

(4) 작은영화관 성과 및 한계

- 작은영화관은 인구 10만 이하의 민간 사업자가 극장을 운영하지 않는 지역에 개봉 영화 상설 상영관으로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역 간 영화 향유권 격차를 해소하였음. 최신 개봉작을 보지 못하거나 다른 지역까지 이동하여 봐야했던 해당 지역민들에게 상설 개봉관의 의미는 매우 큼
- 상영과 GV, 교육프로그램을 병행하는 “작은영화관 기획전”, 지역민 영화·영상교육과 연계해 시민 참여율과 영상 리터러시를 높인 “주민시네마스쿨” 연계 프로그램 등 작은 영화관과 유관 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은 작은영화관의 의의를 영화 관람 환경 개선뿐 아니라 영상문화 발전으로 확대하였음
- 작은영화관은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문화 시설인 한편, 관람료 수익 등 자체 수익을 통해 운영비를 조달해야 하는 수익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음. 상영작 선정 시, 수익 확보를 위해 지나치게 흥행 영화 위주로 편성하여 프로그램이 획일화되는 것을 지양하면서, 다양성 영화 등의 편성을 늘리고 지역민의 문화적 요구에 맞는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함
- 현재 운영 중인 작은영화관 23개 중 20개가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위탁 운

영 방식은 작은영화관 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에게 고용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어 운영 안정성을 지속하기 어렵고, 해당 인력의 업무 집중도를 낮춰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수 있음. 반면 작은영화관 운영을 공무원이 담당할 경우에도 공무원 순환보직제로 인해 해당 경력이 단절되어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3) 기타 영상문화 관련 지원 기관

(1) 영상위원회¹⁴⁾

- 영상위원회 역할과 기능: 영화, 방송물 로케이션 서비스 기관, 영상을 매개로 한 지역경제 발전 및 특성화(지역영상미디어센터 시설 운영, 영화캠프, 독립영화제작지원 등), 영화 중심으로 영화/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 주력

[표 32] 영상위원회 현황

명칭	설립년도	관장 범위
부산영상위원회	1999. 12	부산(경남 일부)
전주영상위원회	2001. 04	전주, 전북
서울영상위원회	2001. 11	서울
전남영상위원회	2003. 04	전남
충남영상위원회	2015. 07	충남
제주영상위원회	2003. 12	제주
대전영상위원회	2003. 12	대전
청풍영상위원회	2005. 04	제천(충북 일부)
경기영상위원회	2005	경기
인천영상위원회	2006. 04	인천

- 영상위원회의 영상문화 관련 활동 현황
 - 경기영상위원회: 다양성 영화(다큐멘터리, 독립영화 등) 제작지원
 - 서울영상위원회: 도서관, 미술관, 구민회관, 체육센터 내 공공상영관에서 독립영화 상영회, 독립영화와 고전영화 전용관 지원, 미디어센터 운영
 - 전남영상위원회: 좋은 영화보기 프로젝트 실시(개봉영화관에서 무료 상영, 미디어센터 운영)
 - 인천영상위원회: 공공도서관, 공연장 등에서 독립영화, 예술영화, 고전영화 등 상영과

14) 영상위원회 한국영상위원회 설립 제안서(2010. 7.13)와 각 지역 영상위원회 웹사이트 내용 참조

영화체험프로그램 운영(감독과의 대화, 큐레이터의 영화해설 등), 문화소의 지역을 찾아가는 ‘민들레 극장’, 여름밤 야외에서 즐기는 토크 콘서트 ‘밤마실 극장’, 한국 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국고지원사업인 ‘무지개다리 지원사업’에 선정된 ‘디아스포라 영화제’ 실시

(2) 지역콘텐츠 산업진흥 관련 기관

- 지역발전 5개년계획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과제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에 따른 지역민의 콘텐츠 향유권에 대한 정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지만 ‘생활문화 활성화’와 ‘문화 창조’ 비전에 따라 문화복지 서비스 강화,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도민 문화의식 고양, 예술인(단체) 지원 강화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 하지만 지역콘텐츠 산업 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시민의 콘텐츠 향유권 제고는 콘텐츠산업 저변 확장과 콘텐츠 산업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시민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문화 주체가 되어 다양한 콘텐츠 향유활동을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다음 표는 지역콘텐츠 산업 진흥 관련 기관의 주요 사업에서 영상문화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임. 경기콘텐츠진흥원의 경우 다양성 영화 제작 및 영화제를 지원하며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전북디지털산업진흥원은 건전문화조성을 위한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중독 예방, 치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그리고 많은 기관에서 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교육을 통해 취업 연계 및 창업 지원을 해주고 있음

[표 33] 지역콘텐츠 산업진흥 관련 기관과 영상문화 관련 사업 현황¹⁵⁾

기관명	영상문화 관련 사업 내용
경기 콘텐츠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국제애니페스티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행사의 도내 개최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기대 및 도민의 문화향유권 증대 ▶ G-씨네 인센티브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록수 다문화 단편영화제〉〈다양성 영화 산업육성〉〈우수영상물 외국어자막 상영회〉 등 - 경기도 선도의 신진영상인력 지원을 통한 문화향유권 증대 - 한국 다양성 영화를 꾸준히 상영하는 도내 전용상영관 개관을 통해 다양성 영화 유통 환경 개선 및 지역기반 민·관 협력체 구축 -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경기도내 문화향유 기회가 부족한 지역과 계층을 위한 영상문화 복지 증대

15)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역콘텐츠산업 발전 중장기 로드맵 수립, 2015.10 보고서 정리

기관명	영상문화 관련 사업 내용
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요문화학교 -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체험으로 ‘토요라이브 밴드’ 연주교실을 운영하여 종합 음악체험과 그룹화연주교육
대구 디지털산업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부산 정보산업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문화 조성 - 정보문화센터: 인터넷 스마트폰 과다사용 사전 예방 상담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개인상담, 가정방문상담, 집단상담 · 교육: 유아, 초중고등, 대학생, 학부모, 성인 대상 · 전문인력양성: 상담 전문인력 양성 - 게임과몰입상담 치료센터: 게임과 몰입 해소를 위한 사후 상담 및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검사 및 치료연계: 치료비(1인 100만 원 한도) 지원 · 대안활동: 스마트힐링, 통합체험문화교실, 캠프, 멘토링 등 - 보드게임페스티벌 및 가족캠프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드게임 페스티벌 개최 · 기능성 보드게임 방과후 교육 지원 · 건전게임문화 가족캠프
인천 정보산업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인재 양성 및 콘텐츠산업 육성 - 문화콘텐츠 확산 및 시민참여 사업 - 콘텐츠 시민체험 지원(문화누림터 조성 등) ▶ 문화콘텐츠 확산 및 시민 참여 사업 - 인천N방송 운영사업: 인천 관내 공공·기업·시민의 방송 콘텐츠를 다매체(PC, 모바일, 텔레스크린 등)를 통해 제공하는 시민참여형 방송시스템 운영 창업지원 및 고용활성화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양성
울산 문화산업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체영상관련 전문 인력 양성 ▶ 지역스토리창작지원센터 사업 - 스토리텔링 전문가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 스토리 아카데미, 스토리 마스터 과정을 통한 예비 스토리텔러 양성 - 레지던시 사업을 바탕으로 한 차세대 울산문화의 핵심스토리 발굴
경북 문화콘텐츠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동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충북 지식산업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콘텐츠분야 창의인재 양성 -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정 운영 - 영상촬영 및 편집, UCC제작, 기사작성법, 나레이션 등 - 디지털 콘텐츠 비즈니스 교육 - 콘텐츠 저작권 법률, 콘텐츠 유통과 마케팅 전략 등 - 지역 대학 콘텐츠 유관학과 현장실습기관 제공
전북 디지털산업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역기능 예방해소 사업 - 인터넷 역기능 해소를 위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 정착 해소 방안을 위한 대응센터 운영

기관명	영상문화 관련 사업 내용
경남 문화예술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콘텐츠 아카데미: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인력양성 등 아카데미 운영 ▶ 문화대장간 풀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단 내 노후된 근로자 복지동을 복합문화커뮤니티 센터로 리모델링: 창원 국가산업단지 제3아파트형 공장 복지관을 콘텐츠 기업과 문화예술동호회 활동공간으로 탈바꿈 - 문화콘텐츠 제작 공동작업장(팝랩) 운영 - 문화콘텐츠 분야 1인 창조기업 입주공간 운영 - 근로자, 일반 도민들이 소통하는 문화 콘텐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2015~2016년 사업비 4억 투입) ▶ 찾아가는 영화상영회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문화소외 지역민 대상 우수영화 순회 상영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분야별 지원: 신작창작 활동, 예술서적 발간, 예술일반 활동, 생활예술 활동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아카데미(매년 수시 개최) ▶ 스토리텔러 양성 ▶ 초중고교문화 콘텐츠특성화 학교육성 지원사업(2008-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성고등학교 뮤직비디오 플래쉬 애니 제작 - 남성고등학교 다큐영상물 제작
충남 문화산업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거점 문화플랫폼 구축, 창작/전시/공연 활동 지원, 인력양성을 통한 시민 문화예술 향유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 (공간조성) 다양한 문화거점, (콘텐츠) 소규모 장르지원 ▶ 충남 문화콘텐츠 아카데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인력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인력양성 인프라 확충 - 스토리텔링 교육과정 운영 및 문화기획자 양성 ▶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운영
강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 문화 향유 활성화(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곶다락 토요미디어문화학교, 생활문화센터 운영활성화 지원
제주 테크노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융합센터 활용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방송통신 특성화 교육지원을 통한 인력양성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학연관 협업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인재양성
전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콘텐츠전문가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콘텐츠(Android) 전문개발자 양성 - 스마트콘 UX/UI콘텐츠 전문가 양성 - Final Cut Pro, 카메라 촬영 및 조명, 디지털마스터링, 모션그래픽 기초 및 실무, 프로젝트 교육

(3)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2009년부터 16개 시, 도 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며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로

이루어지고 있음. 운영 주체로는 광역문화재단이 가장 많으며 예술단체연합회에서 운영하기도 함

-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꿈다락토요문화학교운영사업,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센터운영 및 자체기획사업을 하고 있음.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사업에서 지원센터는 학교 및 사회교육 차원에서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분야 교육을 비롯하여 영상과 타 예술장르와의 융합 교육을 직접 실행하거나 지원해 주고 있음

[표 34]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현황

지역	기관명	운영주체
서울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서울문화재단
부산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부산문화재단
대구	대구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대구문화재단
인천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천문화재단
광주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광주문화재단
대전	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대전문화재단
울산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울산민예총/울산예총
경기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경기문화재단
강원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강원문화재단
충북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충북문화재단
충남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충남문화재단
전북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한국예총 전라북도연합회
전남	전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전남문화예술재단
경북	경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금수문화예술마을
경남	경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제주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제주문화예술재단

(4) 지역문화재단

- 지역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으로 비영리재단법인 형태를 가짐(지자체장이 주무관청이 됨). 최근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을 계기로 제19조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교육위원회의 설립 등) 조항에 따라 광역단체를 포함해서 기초단체까지 문화재단이 설립될 계획임. 2015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을 기준으로 광역단체 13개, 기초자치단체 50개에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음
- 사업영역은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교육, 문화복지, 네트워크구축, 정책개발, 지역사업, 축제운영 및 문화관광 활성화 지원, 문화시설 운영임.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문화재단은 시설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음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12개 재단의 경우,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분야의 문화예술교육을 실행 및 지원해 주고 있음.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5개 재단에서는 상영, 영상문화교육, 영상제작지원 등 지역에서 시민의 영상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지역문화재단의 지원 사업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 순수예술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상 또는 영화 관련 분야는 중점 사업 영역에서는 제외되고 있음. 그러나 서울시 성북문화재단은 아리랑시네마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극장 개봉작과 독립영화를 제공해 주고 있음. 또한 독립영화 인문학 기획전과 유럽단편영화제가 주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
- 광주문화재단은 2015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에서 다원분야로 독립영화제작워크숍, 미디어아트와 다큐진, 시민영화제작, 단편영화제작을 지원해 주고 있음. 미술, 문학, 음악, 전통, 연극, 사진, 무용 분야는 별도로 나뉘어져 있지만 영상문화는 다원분야로 분류되고 다른 예술장르와의 융합을 요구받고 있음

(5) 성과 및 한계

- 지역, 계층 간의 영상문화 격차 해소
 - 지역에서 영상미디어센터와 작은영화관은 영상문화 소외 계층과 지역 주민들에게 공공 영상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영상미디어센터는 영상제작 교육에서부터 영화상영 그리고 영상 관련 장비 및 시설 대여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작은영화관은 영화 상영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영화 관람 환경을 개선하는 성과를 가져 왔음. 이러한 영상문화 기반시설은 문화소외 지역 및 계층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내 영상문화 관련 공적 인프라의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지역밀착형 영상문화 시설로서의 기능
 - 지역 내 영상문화 시설 및 지원 기관으로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주체들은 시민의 생활 속 영상문화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있음. 시민영상문화동호회 조직과 지원, 영상문화 교육프로그램 실시, 지역주민 대상의 문화예술교육 실행과 지원 등.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영상문화를 향유하고 더 나아가 영상문화 생산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음. 광역 또는 기초 자치단체에 분포되어 있는 영상미디어센터는 지역을 기반으로 시민의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직접 실행하고 있음

- 영상문화 지원 기관으로의 다양한 주체 형성

- 2002년 국내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처음 설립되면서 현재까지 각 지역에 영상미디어 센터가 설립되고 있거나 운영되고 있음. 2013년 부터는 작은영화관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중임. 한편, 광역단위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만들어졌고 최근에는 지역문화재단 설립이 기초자치단체로까지 확장되어 가면서 지역 내 영상문화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주체가 다양해질 것으로 보임. 하지만 다양한 주체 형성 속에서 영상문화 정책이 일관성 있게 각 주체별로 세워져 있지 못한 한계가 있음

- 순수예술과 영상산업진흥 내 영상문화 활동 지원 시도

- 일부 지역의 콘텐츠 진흥 기관, 영상 산업 진흥 기관, 지역문화재단에서 영상문화 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음. 별도의 영상문화 분야를 설정하고 지원하기보다는 순수 예술과의 융합 또는 영상 산업 발전을 위한 소비자 개발 차원에서 시민 대상의 영상 제작과 교육 그리고 상영회를 지원함. 따라서 순수 예술과 영상산업 진흥 영역에 영상문화 정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관련 지원 사업을 발굴 및 개발해야 할 것임

- 지역 영상문화 시설의 취약한 재정 구조

- 대부분의 지역 영상문화 시설 및 지원 기관은 지자체 중심의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음. 초기 설립 비용에서 국고보조금이 매칭되기는 하지만 지속 운영을 위한 예산은 단일한 재원 구조를 가지고 있음. 한편, 작은영화관은 자체 수익금으로만 운영해야 하는 취약한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리고 영상문화시설의 경우 장비 및 시설 노후화 문제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함.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영상문화 시설 및 지원 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재원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영상문화 정책 개발 및 실행 주체로서의 역할 재조정 필요

- 그동안 대부분의 영상문화 시설 및 지원 기관은 중앙정부로부터 내려 온 정책 사업을 실행하는데 초점을 두었음. 하지만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들과 함께 영상문화 활동을 해 온 주체들이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파악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임. 앞으로 지역 밀착 영상문화 지원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

- 영상문화기반시설 간의 협력 체계 구축

- 영상미디어센터 구성과 운영, 작은영화관 구성과 관련 사업,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영상복지정책 등 개별 정책과 사업영역에서 지역 영상문화 활동이 진행되고 있음. 한편 비슷한 내용의 사업들이 각 지원주체별로 이

루어지는 경우도 있음. 지역별로 영상문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그에 따른 관련 주체들이 역할 분담을 통해 협력체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임. 각 지원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반 시설 및 장비도 공유될 필요가 있음

4. 영상문화 관련 시민 활동 현황 및 분석

1) 독립/예술 영화 관련 단체

(1) 독립영화협회

- 현재 10개 독립영화협회가 9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음. 독립영화협회는 지역을 기반으로 극영화, 다큐멘터리, 실험영화, 공동체상영, 시네마테크 활동을 하고 있음. 독립/단편/예술 영화 제작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역 내 영상 제작을 위한 네트워킹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도 함
- 대부분 지역에서 매년 독립영화제를 자자체 등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고 있음. 지역에서 제작된 독립영화를 상영하거나 타 지역 독립영화협회와의 연대 네트워크를 통해 상영프로그램을 공유하기도 함. 그리고 지역 내 독립영화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함
- 시민대상의 영화제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예산은 지자체, 지역문화재단 그리고 영상산업진흥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음. 교육프로그램은 영상 제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것으로 영화제작워크숍 형태로 진행됨. 그리고 시민 대상 영화 제작을 위한 기획과 기술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광주독립영화협회는 광주문화재단의 예산지원으로 ‘독립영화제작워크숍’, 전북독립영화협회는 전라북도 예산지원으로 ‘마스터와 함께 하는 전북단편영화제작스쿨’을 실시하고 있음
- 지역 문화예술행사 또는 축제에서 독립영화 상영회 실시,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상영회 활동을 하기도 함. 전북독립영화협회는 전라북도 예산지원으로 ‘웅기종기 마실극장’이라는 찾아가는 상영회를 운영하고 있음
- 지역 케이블방송의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역에서 만든 독립영화를 방영하는 활동을 하기도 함. 대전독립영화협회는 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회와 퍼블릭액세스 활동을 함께 하면서 ‘대전 충남 퍼블릭액세스 시민영상제’와 시민대상 영상 제작교육을 진행하고 있기도 함

[표 35] 전국 독립영화협회 현황

지역	단체명	설립년도
서울	한국독립영화협회	1998년
	독립영화협의회	1990년
인천	인천독립영화협회	2013년
대전	대전독립영화협회	2001년
대구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2000년
강원	춘천독립영화협회	2005년
전북	전북독립영화협회	2000년
전남	광주독립영화협회	2009년
경남	부산독립영화협회	1999년
제주	제주독립영화협회	2006년

(2) 시네마테크, 예술/독립영화전용관

- 주요 활동
 - 예술/다양성 영화, 독립영화 활성화를 위한 상영회 실시
 - 감독과의 대화, 영화상영 후 다양한 감상활동 프로그램 실시
 - 영화감상관련 소모임 운영
- 영화 문화의 다양성 근거의 역할
 - 시네마테크, 예술영화전용관, 독립영화전용관 등 다양성 영화 상영을 통해 다양한 영화 제작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음
- 새로운 관객층과 다양한 관객층 형성
 - 다양한 작품에 대한 관객의 취향 개발과 다양한 영화를 이해하는 관객 육성, 다양성 존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예술전용관 또는 독립영화전용관은 문화공간으로의 극장 역할을 만들어가고 있음

[표 36] 전국 시네마테크, 예술/독립영화 전용관 현황

권역	지역	단체명	주소
서울	종로구	서울아트시네마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13 서울극장 1층
	종로구	문화학교 서울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11가길 59 현대 프레비앙 509호
	종로구	서울LGBT아카이브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39-1 모동빌딩 3층
	마포구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29길 48-5 2층

권역	지역	단체명	주소
강원	강릉시	강릉시네마테크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02 4층
전남	광주광역시	광주시네마테크(광주극장)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5가 62번지 광주극장
경상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시네마테크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69 동성아트홀 대구경북시네마테크
대전	대전광역시	시네마테크 대전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192 3층 대전아트시네마
전북	전주시	시네필 전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4길 46 기린오피스텔 505호
충북	청주시	청주씨네오딧세이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 396 2F 씨네오딧세이
제주	제주시	제주씨네아일랜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4길 3 이노빌오피스텔 503호
대구	대구광역시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537(수동 1-6번지)

2) 작은영화제

(1) 작은영화제의 개념 및 특징

- 작은영화제는 시민들의 영화(영상) 창작 활동을 기반으로 지역 문화단체 또는 미디어 센터 등에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영화제 등을 지칭함. 지역 문화나 사회적 소외계층(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영화(영상)를 상영하는 등 운영 목적 및 주제 면에서도 여타 대규모 영화제와 구분되는 경우가 많음
- 작은영화제는 시민 제작 영화영상의 상영 창구로 시민 영상문화 활성화에 있어 주요 요소 중 하나이지만, 운영 예산의 규모가 작아 전담 운영인력의 상시 고용이 어렵고, 지속적으로 영화제를 홍보하는 경우가 적어 운영 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작은영화제에 대한 연구 및 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단체가 없는 등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및 관리 확대가 요구됨
- 이에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 중 자체 조사를 통해 전국 작은영화제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음. 2015년 9월을 기준으로 전국 각 지역에선 총 34개의 작은영화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전북인권영화제’ 등 총 8개의 작은영화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 전라북도가 작은영화제 최다 운영 지역임. 그 외 강원(6개), 제주와 인천(각 5개), 서울(3개) 등이 한 지역 내에서 여러 작은영화제를 동시에 개최하고 있음
- 작은영화제는 시민사회운동 성장기인 1990년대 중후반기 부터 여성, 인권 등을 주제로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하여 각 지역에서 개최되기 시작되었으며, 지역 영상문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된 2010년대에 이르러 그 다양성이 강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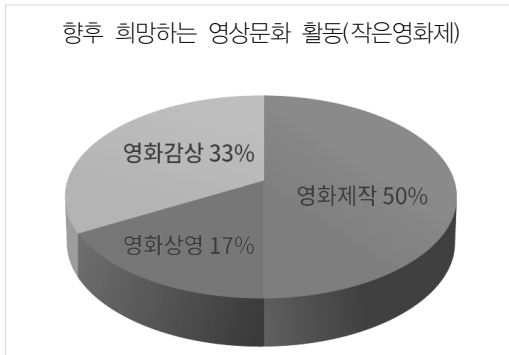
[표 37] 작은영화제 운영 현황

지역	최초 개최시기	영화제명	주최/운영	상영장소
서울	2013	99초힐링영화제	구로문화재단	구로아트벨리 예술극장
	2013	공감영화제	명랑캠페인	미디어카페 후 (동교마젤린21빌딩)
	2015	한강이불영화제	문화단체 “무언가”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인천	1996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	영화공간주안
	2005	인천여성영화제	인천여성영화제	영화공간주안
	2013	수봉도서관 장릉영화제	수봉도서관 장릉영화제추진단	하늘누리(옥상)
	2013	인천독립영화제	인천독립영화협회 영화공간주안 인천영상위원회	영화공간주안
	2013	인천청소년영화제	예꿈마을지역아동센터	영화공간주안
전북	1996	전주인권영화제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대 합동강당
	1999	전북여성영화제	(사)전라북도 여성단체협의회	전북대 건지아트홀
	2001	군산정신건강영화제	군산시정신보건센터	군산시민문화회관
	2007	전북청소년영화제	전북청소년영화제	전주디지털 독립영화관
	2009	익산여성영화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익산문화재단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극장
	2009	익산장애인영화제	원광대학교사범대학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극장
	2014	익산다큐영화제	미디어시민공동체영상바투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극장
	—	숨리아이쿵 작은영화제	익산숨리아이쿵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극장
강원	1996	원주인권영화제	—	원주영상미디어센터
	2007	강릉장애인 인권영화제	(사)한국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강원지부)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2011	원주다큐페스티벌	원주영상미디어센터 다큐멘터리동호회나무 원주MBC	원주영상미디어센터 CGV원주
	2012	원주여성영화제	원주여성민우회	원주영상미디어센터
	2014	메이킹필름영화제	21세기자막단	—
	2015	추억영화제	21세기자막단 모락모락주민사업단	정선 안경다리마을
경기	2011	고양여성영화제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고양영상미디어센터	고양GYMC 어울림영화관
	2013	부천꿈사리영화제	약대주민자치위원회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약대초등학교 운동장 병설유치원 실내강당
충남	2009	천안여성영화제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신세계백화점(충청점문화홀) CGV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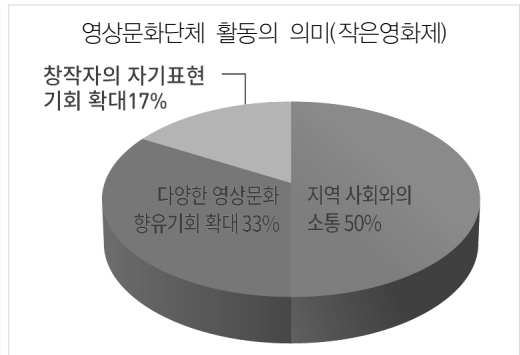
지역	최초 개최시기	영화제명	주최/운영	상영장소
제주	1999	제주여성영화제	(사)제주여민회 제주여성영화제	영화문화예술센터
	1999	제주장애인 인권영화제	제주장애인연맹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예술극장
	2006	제주영화제	(사)제주씨네아일랜드	-
	2011	제주프랑스영화제	(사)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	영화문화예술센터
	2012	보물섬모닥불영화제	꿈꾸는 고물상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 중앙로108/108-17
전남	2010	광주여성영화제	광주여성영화제추진위원회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광주영상복합문화관
	2012	목포인권영화제	교육문화생활공동체 목포MBC시청자미디어센터	목포 갯바위입구 근린공원, 목포CGV
경남	2008	진주같은영화제	진주시민미디어센터	진주시민미디어센터 가좌근린공원
	2014	우포늪방방곡곡 마을영화제	농림축산식품부	주매마을

(2) 작은영화제 현황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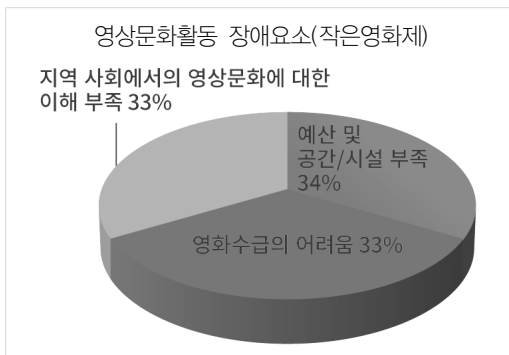
- 작은영화제 운영 현황 조사(2015.09.)를 바탕으로, 작은영화제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작은영화제 운영 방안에 대해 조사하였음
- 다수의 작은영화제는 지역 사회와 공동체를 기반으로 시민 영화영상 제작을 활성화 하고, 지역 사회와의 소통과 다양한 영상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주류 영화제와 달리 전용 예산 및 공간/시설이 부족하고 영화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영화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작은영화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지역 및 시민 영상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업 예산 및 전문 인력, 영화제 개최를 위한 공간 및 시설 지원이 우선적으로 요구됨. 또한 시민 영화영상 제작 지원과 영상문화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 및 홍보를 지속하여 작은영화제가 지역 사회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 차원의 지원 역시 요구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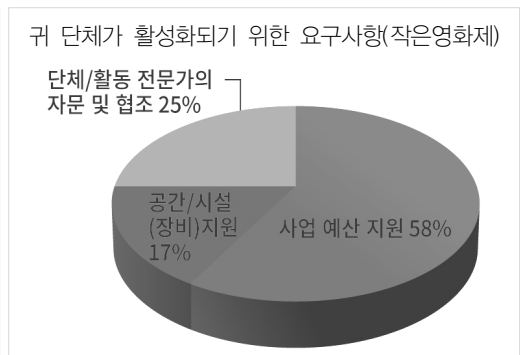
[그림 1] 영상문화 활동 희망 분야



[그림 2] 영상문화단체 활동의 의미



[그림 3] 영상문화활동의 장애요소



[그림 4]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

3) 영상문화 공동체

(1) 시민 영상문화 동호회

- 현재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70개 이상의 영상문화동호회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음. 이들의 활동분야는 영상제작, 영화 읽기 및 감상으로 주도적인 영상문화 향유를 지향함.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역자치단체, 지역 영상위원회 등의 외부 지원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음

[표 38] 2015년 지역영상미디어센터와 연계한 영상문화동호회 현황

권역	지역	명칭	활동
서울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성북월드시네마	영상제작, 영화감상
인천	주안영상미디어센터	하품학교	영화감상
		매소홀동우회	영상제작
		cre8or	영상제작
		한컷	영상학습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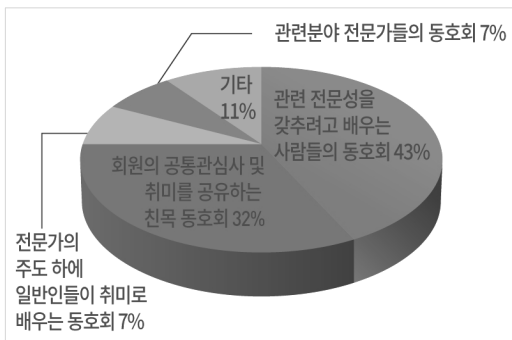
권역	지역	명칭	활동
경기	부천영상미디어센터	영부인	영화감상
		청바지	영상제작 및 교육
		스퀴즈	영상제작
		점프업	영상제작
		프로쉬	영화감상
		시울림	영상제작
		라필름	영상제작
		Clipdeclip	영상제작, 영화감상
		VJ캠 36.5	영상제작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주부사진동아리 ‘빛다짐’	사진촬영
		주부영상동아리	영상제작
		주부작가동아리 ‘작가구단 +’	영화감상 및 비평
		미디어누리제작단	영상제작
		실버미디어동아리 ‘정진회’	영상제작
	성남미디어센터	영화읽기 모임	영화감상
		중앙도서관 영화감상 동아리	영화감상
		실버영상제작단	영상제작
		시민영상제작단	영상제작
	수원영상미디어센터	수원청소년미디어동아리연합(85개동아리)	영상제작
		알리고	영상제작, 영화감상
충남	천안영상미디어센터	비채사람들	영화감상 및 제작
		청소탄	영화감상 및 제작
		미디어로그	영상제작
충북	제천영상미디어센터	청풍영화감상동호회	영화감상
		아름다운 인생팀	영상제작
		시민TV 봄	영상제작
	옥천영상미디어센터	충북도립대 영상동아리	영상제작
대구	대구영상미디어센터	대구영상공동체 ‘이후’	영상감상 및 제작
		대구여성영상공동체 ‘핀다’	영상감상 및 제작
		반야월 주부영상모임	영상감상 및 제작
		단디	영상감상 및 제작
경남	김해영상미디어센터	청소년제작단	영상제작
		시민제작단 ‘쭈인’	영상제작
		대동중학교 영상제작반	영상제작
		삼방고 ‘카르페디엠’	영상제작
	진주시민미디어센터	진주영상21	영상제작
전남	순천영상미디어센터	전남영상미디어교사모임	영상제작 및 교육
		동부종합복지관 영상제작단	영상제작
		퍼블릭엑세스제작단	영상제작
		필로스필름	영화감상
		두드림 동아리 ‘무작정’	영상제작
	목포MBC 시청자미디어센터	부담없는영화모임	영화감상

권역	지역	명칭	활동
전북	익산영상미디어센터	시민영상모임 ‘영상바투’	영화감상 및 제작
		노인영상제작단 ‘재미동’	영화감상 및 제작
		씨네-재미동	영화감상
		씨네버스	영화감상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전.단.지	영화감상 및 제작
		창작집단 나이트	영화감상 및 제작
		시나리오	시나리오 모임
		도발도발	시나리오 모임
	전주MBC 시청자미디어센터	전북교육청 학생기자단	영상제작
강원	원주영상미디어센터	다큐멘터리 동호회 ‘나무’	영화감상
		시네필 모두	영화감상
		모두 새벽까지	영상제작, 영화감상
		청춘공방	영상제작
		TALK	영화감상 및 친목
	강릉영상미디어센터	장애인 영화동아리 ‘바름’	영화감상 및 제작
		청소년 영화동아리 ‘FUB’	영화감상 및 제작
		겨울협의회	영화감상 및 제작
		REAL SOUND	영상제작
		세 손가락	영상제작, 영상상영 등
	화천생태영상센터	화천군천 영상동아리	영상제작
		무비리더	영상제작, 영화감상
제주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춘강 영상동아리 ‘소도리’	영화감상 및 제작
		제주영상창작동아리	영화감상 및 제작
		제주 DPI 영상제작팀	영상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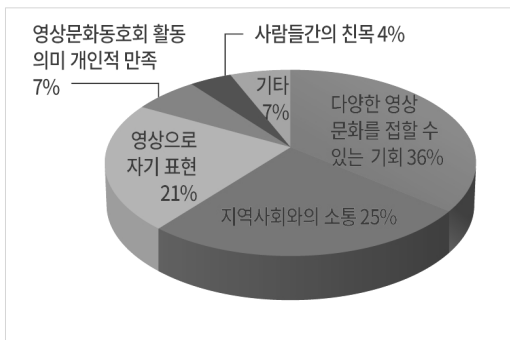
- 영상문화동호회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활동 목적에 대해서 ‘관련 전문성을 갖추려고 배우는 사람들의 동호회’라고 응답한 경우가 43%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회원의 공통관심사 및 취미를 공유하는 친목 동호회’가 32.1%, ‘전문가의 주도에 일반인들이 취미로 배우는 동호회’가 7.1%,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동호회’가 7.1%, 기타가 10.7%를 차지하였음
- 또한 영상문화 동호회의 활동 의미에 대해서 ‘다양한 영상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라고 답한 경우가 35.8%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25%, ‘영상으로 자기표현’이 21.4%, ‘개인적(여가생활)만족’이 7.1%, ‘사람들 간의 친목’이 3.6%, 기타가 7.1%를 기록하였음
- 반면 영상문화동호회의 활동에 있어서 장애요인으로서는 ‘지역사회의 영상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이 가장 많은 응답 비율(35.7%)을 차지하였음. 그 다음으로 ‘영상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시설 부족’이 28.6%, ‘영상문화 활동을 위한 장비 부족’이 17.9%,

‘영상문화 활동을 위한 영화 수급의 어려움’이 7.1%, 기타 10.7%가 장애요인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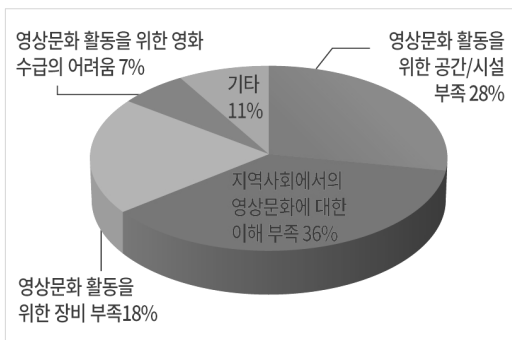
- 영상문화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은 ‘영상문화 활동을 위한 사업 예산 지원(57.1%)’과 ‘영상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시설 지원(21.4%)’이 전체 응답의 78.5%를 기록하였음. 이러한 영상문화동호회의 요구는 예산을 바탕으로 한 물질적 지원의 필요성을 방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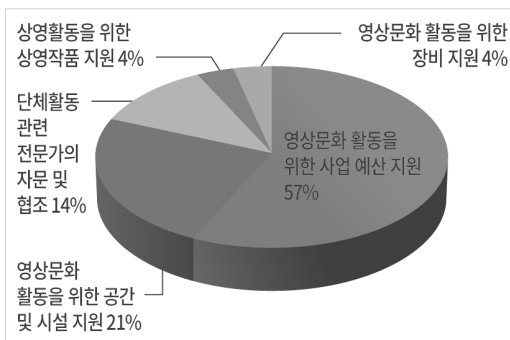
[그림 5] 영상문화동호회 활동 목적



[그림 6] 영상문화동호회 활동 의미



[그림 7] 영상문화 활동의 장애요인



[그림 8] 영상문화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

-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영상문화동호회는 다양한 영상문화를 향유하기 위해 이에 대한 전문성을 배우려고 모인 사람들의 조직임. 하지만 지역사회의 관심 및 이해 부재로 인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예산과 시설/장비 재원의 부족을 초래함. 따라서 영상문화동호회에 대한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2) 대안 상영 공동체

- 대안 상영 공동체란 대안적 상영문화 가치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상영 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함. 기존 거대 영화 자본과 멀티플렉스 상영시스템에 의해 제작, 상영되는 영화의 획일성에서 다양성 영화와 새로운 상영문화를 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음

- 대안상영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체는 대부분 영화 전공자 또는 문화예술 활동가로서 다른 문화예술 활동과의 융합이 이루어지기도 함. 독서 활동, 미디어아트, 빛그림 공연이 영화 보기 활동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
- 대안상영 활동은 단순히 영화를 보는 활동에 그치지 않고 영화를 보고 난 후 토론 또는 대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이 프로그래머로 성장하여 직접 상영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기까지 함. 이에 따라 시민 대상의 영화 프로그래머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
- 대안상영은 소규모 인원과 최소 장비로 기존 극장시설이 아닌 일상 공간인 카페, 강당, 마을회관, 공원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영화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으로 찾아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편 상시적으로 상영할 수 있는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기도 함. 이러한 상영공간의 등장은 영화를 보는 방법에도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음. 영화를 보고 난 후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영상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음
- 대안상영공동체에서는 기존 극장에서 상영하지 않는 영화, 독립영화, 예술영화, 실험영화, 시민이 제작한 영상 등으로 다양성 영화를 주로 상영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상영문화의 새로운 변화 모색은 다양성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과 볼 수 있는 상영관 확보, 소비 중심의 관객에서 영상문화 생산 주체로 시민이 성장, 생활공간에서 일상적으로 영화를 보며 공감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문화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음

[표 39] 주요 대안상영공동체

단체명	설립년도	장소	활동 내용
모통이극장	2012년	사무실 내 상영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객들의 목소리를 상영, 기록,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네마-피플 테크’ 관객운동단체 ▶ 관객 프로그래머가 진행하는 관객영화제 실시 ▶ 관객문화특강 실시
모기동 이야기하는 마을극장	2013년	카페 숙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상영 ▶ 마을 미디어 콘텐츠 상영 ▶ 어린이 책 빛 그림 공연 ▶ 배우는 극장(마을미디어이해, 다른동네 마실), ▶ 극장 콘텐츠 만들기, 빛그림 공연 만들기 ▶ 서울시마을예술창작소 지정

단체명	설립년도	장소	활동 내용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열 사람 상영회’	2013년	헌책방	▶ 함께 모여서 영화를 보고 싶은 사람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상영회(매월 1회 진행)
모두를 위한 극장 공정영화 협동조합 ‘모극장’	2013년	비극장 상영관	▶ 공동체 상영 ▶ 대안 배급망 구축 ▶ 영화 향유의 다양성 확대를 목표로 활동 ▶ 랩톱영화제 ▶ 소규모 영화도서관 운영 및 예술영화DVD라이브러리 구축 ▶ 시민영화공동체 육성, 시민영화프로그램 교육사업
비주류 영화 상영 공간 ‘옥인상영관’	2013년	주택을 개조한 상영관	▶ 단편영화제 ▶ 미디어전시, 각종 공연 ▶ 주말(토, 일)에만 개관 ▶ 상영관을 찾지 못한 영화, 실험영상, 영화 및 각종 기획 공모
독립단편영화 상영관 ‘극장판’	2014년	주택을 개조한 상영관	▶ 작품 공모를 통해 상영작 선정 월 1회 상영 ▶ 관객이 영화를 선택하면 바로 상영하는 방식의 프로그램 운영

(3)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 지역을 기반으로 영상 제작자 및 미디어교육 활동가들이 민간영역에서의 영상제작, 미디어, 문화, 예술 교육 그리고 상영 등의 다양한 활동을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형태로 전환해 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특히 독립영화 또는 대안상영 단체의 운영 모델로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민간영역에서의 지속적인 영상문화 활동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선택된 것으로 보임
- 주요활동은 영화제 개최, 찾아가는 상영회, 영상교육과 영상제작으로 지역 내 영상문화 활동을 활성화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21세기 자막단의 경우 영상자막제작과 상영관 오퍼레이팅이라는 전문 사업영역을 개발한 특징이 보임
- 독립영화협회, 시네마테크 등 영상문화 활동의 또 다른 형태가 될 수 있겠지만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의 운영 모델이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영상문화 활동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기업으로서 수익을 추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표 40] 영상문화 관련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주요 사례

지역	단체명	모델	활동 내용
광주	(주)필름 에이지	사회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지역 영상활동가들이 팀을 꾸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사)광주NGO시민재단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한 소셜 벤처 ▶ 취약계층에 대한 영상교육, 지역 독립영화 제작 지원, 지역 영상활동가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미디어 교육 ▶ 전남대 60주년 홍보영상, 광주인권도시 홍보영상, 광주국제영화제트레일러, 광주국제영화제 CF 제작 참여 ▶ 2014년 장편독립영화 ‘눈을 감으면’ 제작
부산	미디어토리	사회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미디어활동가들이 출자하여 만든 직원협동조합 ▶ 홍보영상제작, 다큐멘터리 제작, 미디어교육, 공동체상영지원, 라디오 팟캐스트 제작지원, 부산MBC라디오시민세상 퍼블릭액세스 활동, 비영리미디어컨퍼런스 개최(다음세대재단과 함께), 공동체상영과 상영주체들과 세미나 진행
서울	모두를 위한 극장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적 유통망 구축, 영화도서관 형태의 상영회, 소규모 영화 상영회와 공동체 상영을 위한 ‘영화-커뮤니티’ 매칭 플랫폼(팝업시네마) 운영 ▶ 정가상영회 시사회(See+사회), 소규모 영화 네트워크 공간 늘씨네 운영
서울	21세기 자막단	사회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이킹필름영화제: 영화현장스태프와 관객이 주인공이 되는 영화제 ▶ 영상자막제작, 상영관 오퍼레이팅, 특수영상자막제작 ▶ 추억영화제: 정선군 안경다리탄광마를 영화제, 광부와 광부가족들의 이야기 발굴 영상 기록 ▶ 활력상영회: 다양성 영화 상영(네팔 찾아가는 활력상영회 등)
인천	인천여성 영화제	사회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주의 영상미디어활동단체 ▶ 영상제작교육(청소년, 노인, 여성, 이주민) ▶ 영상제작(시민사회 활동 관련 영상) ▶ 인천여성영화제 개최(매년)

4) 영상문화 관련 지역 및 전국 네트워크

- 대부분의 네트워크가 민간영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영상문화 활동을 공유하고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의 자생적 영상문화 활동을 강화시키고 있음

(1) 독립영화 관련 네트워크

- 한국독립영화제 연대: 지난 2009년에 자체적으로 영화제를 진행하고 있는 대전, 부산, 전북, 대구경북의 독립영화협회들이 모여 구성한 협의체로 ‘한국 로컬 시네마’의 연대와 유대를 통해 지역의 영상문화를 한 차원 끌어 올릴 계기를 마련코자 결성. 최근에는 인천, 제주, 광주, 포항 등의 지역 독립영화 진영과의 확대된 연대도 진행 중에 있음(지역영화 교류 상영 등)
- 지역독립영화협회 네트워크포럼: 인천, 대구, 대전, 부산, 광주, 제주, 포항, 전주

지역독립 영화협회 및 독립영화제 협의회로 구성. 공동 사업 개발, 영화인 교류(참여단체: 인천독립영화협회, 인천독립영화제,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대구단편영화제, 대전독립영화협회, 대전독립영화제, 부산독립영화협회, 부산독립영화제, 광주독립영화협회, 광주독립영화제, 제주독립영화협회, 포항 맑은단편영화제, 전북독립영화협회, 전북독립영화제)

(2) 시민사회단체 연계 네트워크

- 지역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방송법〉 제69조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활성화된 지역의 경우 시민사회단체와 독립영화단체 그리고 지역 영상 활동가들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사회 이슈 또는 지역 이야기를 시민이 직접 표현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영상 제작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퍼블릭액세스 활동: 지역 지상파와 케이블 TV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 및 지원 활동 차원의 시민대상 영상제작교육, 시민이 만든 영상을 상영하는 영화제 및 영상제 실시, 공동체 상영 및 영상 읽기 모임 운영

(3) 다양성 영화 상영 관련 네트워크

- 시네마테크협의회: 15개 시네마테크 단체들이 연합하여 사단법인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를 만들. 영화사적으로 중요한 작품을 선정, 보관, 소개하는 역할 담당. 서울 유일의 민간 비영리 시네마테크 전용관 서울아트시네마 개관. 각 지역에 시네마테크전용관을 만드는 활동. 공동의 상영프로그램 운영(지역순회상영)
-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 모임: 민간 독립영화 전용관 건립 사업 진행, 한국 독립 영화 개봉과 개봉 지원, 독립영화제 대관 후원, 독립 영화 DVD 제작 지원

(4) 영상문화 기반시설 연계 네트워크

- 지역영상미디어센터와 연계: 지역 영상문화 관련 단체와 영상미디어센터가 협력하여 영상제작교육, 공동체상영, 장비 및 시설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 지역 간 편차가 있긴 하지만 지역 내 영상문화 활동가들이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교육 강사로 활동하거나 제작 및 상영 관련 활동을 함께 하고 있음
-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중앙정부(문화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와 지자체와의 영상문화 관련 사업을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 영상문화동호회 등 지역 내 다양한 영상문화 주체를 네트워킹 하고 있음

(5) 기타

- 지역 대학: 영화·영상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이 지역 영화 정책 공동 개발과 후원 및 협찬을 해 주고 있음
- 지역 영상위원회: 영상위원회는 상업영화 로케이션 및 스튜디오 운영 관리를 주로 담당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시민 대상의 영상제작지원 및 교육 사업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시민 영상문화 관련 단체 및 주체들이 영상위원회와의 연계를 꾀하고자 함
- 광주영상영화인연대(가) 네트워크: 2014년에 결성되어 광주 지역 영상문화 관련 단체 간의 네트워크 조직과 지자체에 영상문화 정책을 제안하는 시도를 하기도 함

5) 성과와 한계

(1) 시민 영상문화 활동의 성과

- 영상문화 형성 배경
 - 9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영상문화는 영화제, 시네마테크, 독립영화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1996년 부산국제영화제를 시작으로 지역의 국제영화제가 문화산업 측면으로 작동하는 한편에서는 비영리 영상제작 활동과 예술영화와 독립영화 등을 상영하는 공간 확보의 움직임이 있었음. 이와 같이 지역에서의 독립영화, 비영리 영상문화활동, 다양성 영화 상영 확보라는 활동은 지금의 영상문화 바탕이 되고 있음
- 영화 문화의 다양성 근거의 역할
 - 시네마테크, 예술영화전용관, 독립영화전용관 등 다양성 영화 상영을 통해 다양한 영화 제작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음.
 - 새로운 관객층과 다양한 관객층 형성: 다양한 작품에 대한 관객의 취향 개발과 다양한 영화를 이해하는 관객 육성
 - 다양성 존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영상분야에 대한 문화적 접근의 필요성 공감대 형성
 - 민간영역의 영상문화 활동은 사회적으로 영상을 문화로 접근하도록 이끌어내고 있음
 - 예술전용관 또는 독립영화전용관은 문화공간으로의 극장 역할을 만들어가고 있음
- 영상문화 주체로서의 시민 성장

- 영상제작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의 자기표현 능력이 향상되고 지역 영상제작인력이 양성되고 있음
- 지역 내 작은영화제를 지역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영상문화 생산자로서 성장하고 있음
- 문화민주주의의 실현
 - 문화민주주의는 직접적인 참여와 자율성, 문화적 생산과 분배의 탈중심화, 문화적 다원성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함. 이와 같이 앞에서 살펴본 6개 영역의 영상문화 활동은 문화민주주의의 실현을 보여줌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영상문화 활동은 영상문화 생산자로서의 지역주민 성장과 관객이 주체로 활약하는 관객운동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음

(2) 시민 영상문화 활동의 한계

- 영상문화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역정부의 낮은 이해도
 - 영상산업으로 치우친 중앙정부의 영상문화 이해: 영화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 영화진흥위원회가 바라보고 있는 영화는 성공한 영화인데 이에 대한 가치관이 변해야 함. 작품에 대한 평가 재인식 필요(마을 주민이 만든 영화에 대한 이해 필요성)
 - 지자체의 영상문화에 대한 낮은 이해도: ‘영화를 포함한 영상’과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만화’ 분야를 ‘기초문화예술’분야가 아닌 ‘산업문화예술’로 지정하는 등 영상에 대한 문화적 이해가 매우 낮음
- 멀티플렉스(복합상영관)가 주도 하고 있는 영상문화
 - 멀티플렉스는 시민이 대중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상문화 공간이지만, 다양한 영상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님
 - 예술영화 또는 독립영화 전용관이 있는 지역의 경우, 홍보 부족으로 지역주민의 접근도를 높이고 있지 못함
- 지역 영상문화 현황 파악 및 점검의 부재
 - 그동안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영상문화 활동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영상문화가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서 새로운 영상문화 활동에 대한 발굴과 활동에 대한 의미 점검은 반드시 필요함
- 지역 영상문화 인력난, 인력유출
 - 영화, 영상학과 계열의 대학이 존재하는 지역에서의 졸업생 중 90% 이상이 수도권

으로 이동 유출되어 지역 영상문화 활동을 전문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해 나갈 인력이 부족함

- 영상문화 예산부족
 - 영상문화 분야에 대한 자자체 및 중앙정부의 지원 내용은 영화제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지역단편독립영화 제작지원 사업이 지속성을 갖는 지원책으로 정착하고 규모도 확대되기를 기대
 - 대부분의 지자체에는 영상문화에 대한 별도의 지원 분야가 없음
- 영상문화의 물리적 환경 열악
 - 단편영화 제작 장비 및 시설 부족: 지역에 구축되어 있는 기존 영상제작 시설은 상업영화 또는 교육용 장비 중심으로 단편영화를 제작하기 위한 장비와 시설이 부족함
 - 공공적 성격을 가진 민간영역의 상영관은 DCP 같은 고가영사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워 원하는 작품을 상영하지 못함
- 전문적인 영화 교육기관 부재
 - 지역 내 산업인력 양성을 비롯하여 비영리적 영상문화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 없음
- 영상문화정책에 대한 장기적 전망 필요
 - 지자체별로 영상문화정책에 대한 종합적 계획이 필요함. 대부분의 지자체가 비영리적 영상 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시민사회단체 행사로서의 영화제와 단기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작은영화제가 각 지역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데 장기적 전망 속에서 작은영화제에 대한 진흥 및 지원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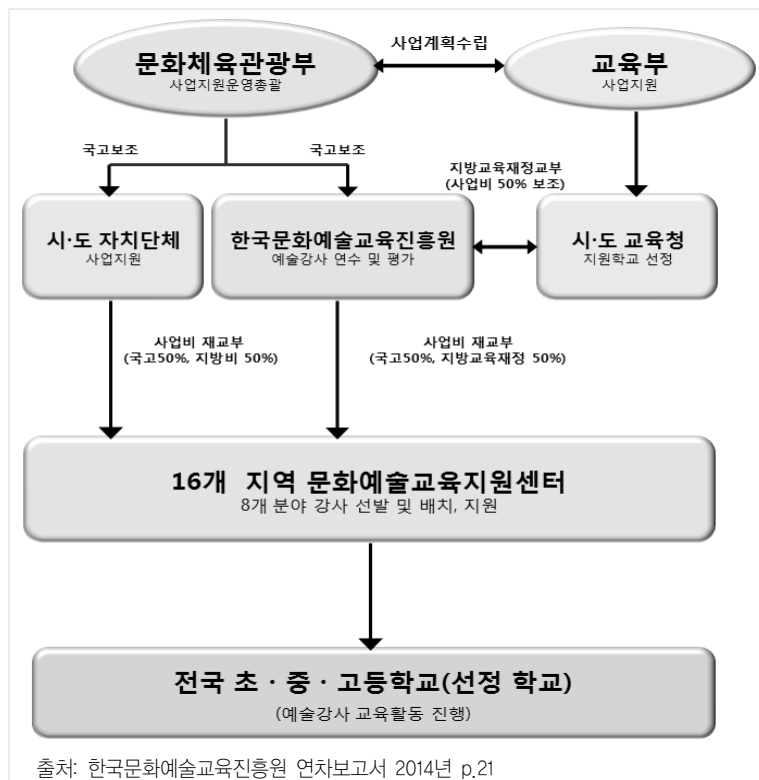
5. 학교 영상문화교육 현황 및 분석

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으로 정의됨

- 2004년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공동 수립 후 2008년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문체부 공동협력사업 계획’ 수립 및 양 부처 MOU 체결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감수성을 키우고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술 강사를 파견하여 문화예술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8개 분야 예술 강사가 개별 학교 현장으로 파견되어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2015년에는 총 10,731개 학교 중에서 영화는 448개 학교, 만화애니메이션은 1,035개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음. 영화 교육을 처음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촬영장비 캠코더와 삼각대 1개를 지원해주고 있음. 교육 종료 후 캠코더는 학교로 귀속됨
- 학교 예술강사지원사업 추진 체계



[그림 9]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 추진 체계도

- 사업 예산 출처를 보면, 국악교육의 경우 국고 50%, 지방비 50%이며 나머지 7개 분야의 교육은 국고 50%, 지방교육재정 50%로 구성됨
-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지원운영총괄, 교육부와 시·도 자치단체가 사업지원 그리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예술 강사 연수 및 평가, 시·도 교육청이 지원학교를 선정하면 16개 지역(광역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개별 학교 강사 선발 및 배치, 지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학교 문화예술교육 운영 현황¹⁶⁾
 - 현재 학교문화예술교육은 교육과정 내 창의적체험활동에서 자율활동 중 창의적특색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교육과정 외 학교문화예술교육은 토요동아리, 자율동아리,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에서 진행됨
 - 창의적특색활동 시간에 운영되고 있는 영화와 만화/애니 분야의 학교 급별 비율을 보면, 영화의 경우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순이며 만화/애니 분야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높음
 - 교과 외 동아리 활동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영화분야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만화/애니분야는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운영 비율이 높음
 - 교과 외 방과후학교 활동에서는 창의적특색활동과 동아리활동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운영 학교 비율이 낮음. 영화분야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만화/애니분야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높음
 - 영화와 만화/애니 분야의 교육 운영 빈도수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학교 급이 높을 수록 많이 나타남. 영화분야는 고등학교, 만화/애니분야는 중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특히 방과후학교에서 영화와 만화/애니 분야는 다른 예술장르분야 교육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2) 시청자미디어센터 학교 미디어교육

- 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법 90조 2(시청미디어센터)를 근거로 설립된 법인으로 미디어교육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사업을 함. 방송법을 근거로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미디어교육을 실시함

1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 학교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보고서 참조

•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¹⁷⁾

- 전국 5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시범적으로 자유학기제 연계 미디어교육 실시. 이후 대상학교를 확대할 계획임. 다음 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추진 계획 내용임
-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PD, 기자, 아나운서 등 방송관련 직업 체험과 전·현직 방송인 특강 그리고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보유한 방송제작 시설·장비 등을 활용하고자 함

[표 41] 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추진 계획안

구분	1학기(13개교)	2학기(67개교예정)
부산센터	▶ 1개교(화명중 - 동아리 활동지원(방송반 지원))	21개교
광주센터	▶ 2개교(운암중, 화정중 - 콘텐츠 제작교육)	13개교
강원센터	▶ 2개교(사북중, 횡성중 - 동아리 활동지원/콘텐츠 제작 교육)	12개교
대전센터	▶ 8개교(가양중, 월평중, 조치원중, 새샘중, 금산중, 옥천중, 중원중, 미덕중 - 동아리 활동지원(방송반 지원))	7개교
인천센터	-	14개교

• 미디어교육 거점학교¹⁸⁾

- 시청자미디어센터와 9개 지역 방송사가 MOU를 체결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스튜디오 제작 체험 및 콘텐츠 제작을 위한 미디어교육 실시. 방송사가 교육에 직접 참여. 방송반 역량 강화, 창작캠프, 교사연수, 대학연계 전공과정 운영
- 다음 표 내용을 보면, 주로 고등학교가 많으며 영상 분야 전문고등학교 2개가 포함되어 있음

[표 42] 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거점학교 운영현황

구분	선정 거점학교(소재지)	협약 방송사
부산센터	▶ 연제고(부산), 성모여고(부산), 효암고(경남 양산)	KNN
광주센터	▶ 신암초(광주), 광양중(전남 광양), 목포중앙고(전남 목포)	KBC광주방송/여수MBC 목포MBC
강원센터	▶ 수백초(횡성), 원주여중(원주), 강원애니고(춘천)	CJ헬로비전(강원)
대전센터	▶ 대덕고(대전), 대신고(대전), 유성고(대전)	대전MBC/TJB대전방송 CMB대전방송
인천센터	▶ 연송고(인천), 강남영상미디어고(인천 강화), 안산디자인문화고(경기 안산)	OBS경인TV

17) 방송통신위원회, 2015년 6월 9일 보도자료 참조

18) 방송통신위원회, 2015년 5월 3일 보도자료 참조

3)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학교 미디어교육

- 진주, 강릉, 순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학교 미디어교육
 - 진주시민미디어센터 2014년 학교미디어교육의 주요내용은 뮤직비디오제작, 영상제작체험, 스마트폰을 활용한 제작교육임. 교육예산 출처는 학교 자체예산과 개별 학교의 특성화 프로그램 예산임
 - 대부분의 교육이 교과 시간에 운영되었으며 중학교 경우에는 자유학기제 시간에 운영되었음

[표 43] 진주시민미디어센터 학교미디어교육 현황

번호	학교명	교육기간/차시	주요 내용	운영 시간	예산 출처
1	하동 하동중학교 꿈키움교실	2015.2.2.~6 /5차시(주 5회)	▶ 영상제작 기초능력 함양, 뮤직비디오 제작	일과시간 (5~6교시)	꿈키움교실 예산
2	산청 간디어린이학교	2015.3.26. /1차시	▶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점검하고 바른 사용법을 익히는 리터러시 교육	문화의날 (교과시간)	학교 자체예산
3	사천 사천중학교 위클래스	2015.7.13.~17 /3차시(주 3회)	▶ 영상제작 기초능력 함양, 뮤직비디오 제작	일과시간 (5~6교시)	위클래스 예산
4	남해 창선중학교	2015.09~12 /12차시(주 1회)	▶ 영상제작 기초능력 함양, UCC제작	자유학기제	부산시청자 미디어센터 예산
5	진주 봉원중학교	2015.9~12 /16차시(주 1회)	▶ 영상제작 기초능력 함양, UCC 제작	자유학기제	학교 자체예산
6	사천 사천중학교	2015.08~10 /12차시(주 2회)	▶ 스마트패드를 활용한 영상제작교육	자유학기제	학교 자체예산
7	산청 산청중학교	2015.10.28.~11.7 /2차시(주 1회)	▶ 간단한 미디어 체험 및 영상 읽기 교육	일과 외 시간 (토요일)	학교예산 (직업체험학습)
8	진주 진주기계 공업고등학교 꿈키움교실	2015.10.27.~11.24 /5차시(주 1회)	▶ 영상제작 기초능력 함양, 뮤직비디오 제작	일과시간 (5~6교시)	꿈키움교실 예산
9	남해 남해중학교 꿈키움교실	2015.10.17.~11.17 /4차시(주 1회)	▶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 제작 교육	일과 외 시간 (토요일 오후)	꿈키움교실 예산

-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는 극영화 제작교육과 영상과 다른 매체와의 융합 교육 내용으로 진행되었음. 교육 예산의 출처는 외부공모 지원 사업 예산이 많고, 방과후학교와 교과 시간 내에 이루어졌음

[표 44]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학교미디어교육 현황

번호	학교명	교육기간/차시	주요 내용	운영 시간	예산 출처
1	포남초등학교	2014.4~11 20차시	▶ 1학기-사진을 통한 미디어 입문 ▶ 2학기-초등학생 시나리오, 극영화 제작, 상영회 개최	방과후 학교	학교 자체예산
2	학교 밖 청소년	2014.4~11 25차시	▶ 학업 중단으로 단절된 문화예술 교육 및 영상제작을 통한 자존감 획득		문광부, 여성가족부
3	성산초, 삼덕분교 영동초, 망상초 경포대초	2014.8~11 10차시	▶ 신문 활용 및 미디어(영상 애니메이션) 교육	학교 수업 시간 편성	한국언론진흥재단
4	묵호여중 방송반	2014.9~10 8차시	▶ 미디어 교육의 소외 지역 청소년 미디어 활용 프로그램	방과후	동해향로청소년 문화의 집
5	사천중학교	2015.4~7 10차시	▶ 미디어 교육의 소외 지역 청소년 영화 제작 프로그램	진로탐색	미디어센터 예산
6	포남초등학교	2015.4~11 20차시	▶ 1, 2학기 - 초등학생 시나리오, 극영화 제작, 상영회 개최	방과후 학교	학교자체 예산
7	왕산초, 송양교 간동초, 성산초 동명초 (5개교)	2015.8~11 10차시	▶ 신문 활용 및 미디어(영상 애니메이션) 교육	학교 수업 시간 편성	한국언론진흥재단
8	묵호중	2015.4~11 30차시	▶ 미디어 교육의 소외 지역 청소년 미디어 활용 프로그램	방과후	삼성 꿈 장학재단

-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자유학기제, 방과후학교, 동아리 활동으로 학교 미디어 교육이 운영되었고, 주로 외부공모 지원 사업 예산으로 이루어졌음. 학교 동아리 운영비와 교육청 교육복지예산으로도 교육이 진행되었음. 중학교 국어 교과와 연계 하여 영화 시나리오를 읽고 작품을 이해하는 교육이 있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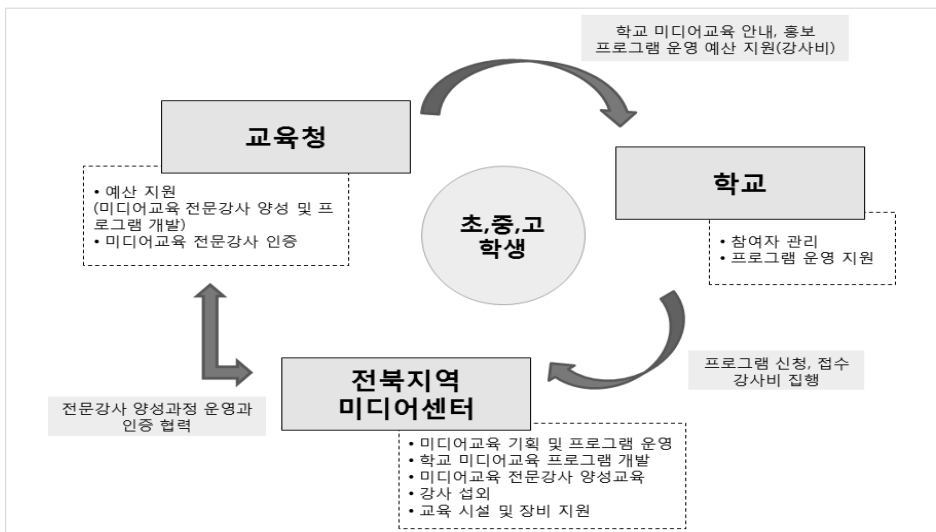
[표 45]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학교미디어교육 현황

번호	학교명	교육기간/차시	주요 내용	운영 시간	예산 출처
1	여수화양 고등학교 미디어제작반	2014.3~12 /29차시 (주 1회)	▶ 1학기-영상제작기초능력 함양, 5컷 촬영실습, 영상제작실습 ▶ 2학기-시나리오 작법, 단편영화제작 실습	토요교육	학교 동아리 운영비
2	벌교여자 고등학교 방송반	2014.3~12 /28차시 (주 1회)	▶ 1학기-영화 리터러시, 슬라이드 영화 만들기, CF 따라하기 ▶ 2학기-스마트폰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 캠페인 영상 제작	방과후 학교	학교 동아리 운영비
3	별량 초등학교	2014.7~8 /9차시 (주 5회)	▶ 나만의 프레임 만들기, 영상 개념 이해, UCC제작실습	방과후 학교 (방학기간)	KCA 학교미디어교육 지원사업

번호	학교명	교육기간/차시	주요 내용	운영 시간	예산 출처
4	성남 초등학교	2014.8 /12차시 (주 1회)	▶ 분장의 이해, 분장 실습, 분장 활용 하여 영화 제작 실습	방과후 학교 (방학기간)	학교 예산 (교육청-교육복 지지원사업 예산)
5	이수 중학교	2014.8~11 /14차시 (주 1회)	▶ 광고 제작 실습, 뮤직비디오 제작 실습, 단편영화제작 실습	자유 학기제	KCA 학교미디어교육 지원사업
6	풍덕 중학교	2014.8~12 /14차시 (주 1회)	▶ 광고제작실습, 단편영화제작 실습	자유 학기제	
7	신흥 중학교	2014.8~11 /14차시 (주 1회)	▶ 애니메이션 더빙 실습, 플립북 제작, 지면 광고 제작, UCC제작 실습	자유 학기제	
8	외서 초등학교	2014.8~11/ 13차시 (주 1회)	▶ 애니메이션의 이해, 절지 클레이, 오브제 애니메이션 제작, 오브제 애니메이션 제작, 페이퍼 차일드 팬시 만들기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시간)	
9	매산 고등학교	2014.8~11 /7차시 (주 1회)	▶ 시나리오 작법, 촬영 이론, UCC 제작실습	방과후 학교	
10	순천 여자중학교	2014.8~12 /16차시 (8차시*2학급)	▶ 영상제작과정의 이해, 모듬별 영상 제작실습	자유 학기제	학교 예산
11	팔마 초등학교	2014.9~12 /14차시 (주 1회)	▶ 뉴스의 구성요소 살피기, 카메라 실습, 뉴스 제작 실습, 스튜디오 체험	방과후 학교	KCA 학교미디어교육 지원사업
12	매안 초등학교	2014.9~12 /28차시 (주 2회)	▶ 애니메이션의 기본 원리, 롤러 애니 메이션 제작, 조트로프 제작, 플립북 제작, 페이퍼 애니메이션 제작, 절지 애니메이션 제작	방과후 학교	KCA 학교미디어교육 지원사업
13	전자 고등학교	2014.9~12 /9차시 (주 1회)	▶ 영상언어 이해, 스토리텔링, 화면의 구성 요소, 촬영 실습, 편집 실습	방과후 학교	
14	왕운중학교 영상미디어 제작반	2014.9~11 /10차시 (주 1회)	▶ 영상 제작과정, 영화감상, 영상제작 실습	방과후 학교	학교 동아리 운영비
15	순천고등학교 컴퓨터반	2014.9~11 /6차시 (주 1회)	▶ 스토리텔링, 화면 구성, 모듬별 영상제작 실습	동아리활동 시간	KCA 학교미디어교 육 지원사업
16	풍덕 중학교	2014.9 /6차시 (2차시*3학급)	▶ 국어 교과와 연계하여 시나리오 읽고 작품 이해하는 활동	교과시간	학교 예산

● 전북지역 영상미디어센터 학교 미디어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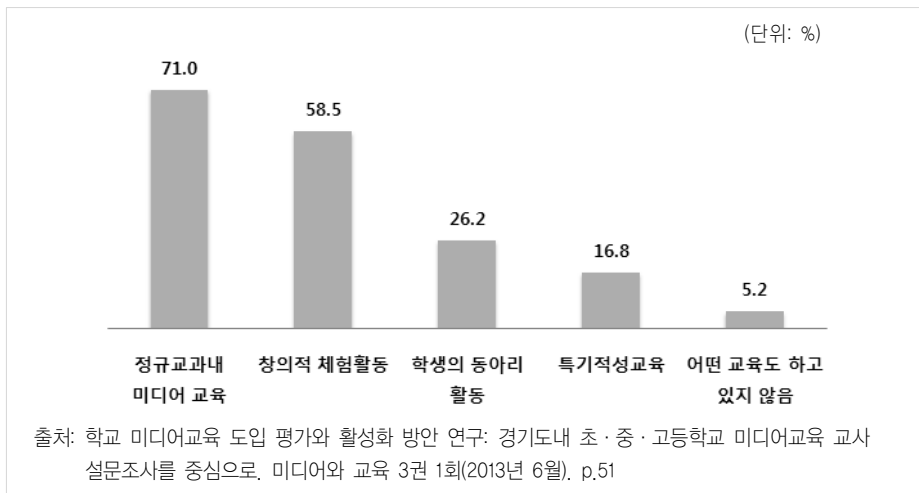
- 2015년 전북지역에서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전주MBC 시청자 미디어센터, 우석대 미디어교육연구소,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회와 함께 학교 미디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연구를 진행했음
- 이 연구과정에서 3개 전북지역 영상미디어센터가 개관 이후 현재까지 실시한 학교 미디어교육 현황 조사를 했으며, 전북지역 학교 교사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음
- 전북지역 영상미디어센터가 학교에서 진행한 미디어교육의 운영형태와 예산출처 그리고 학교 급별 비율을 보면,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이 방과후학교, 진로체험프로그램, 특별활동 순임. 예산출처는 학교 예산, 외부 공모지원사업, 방과후학교, 교육복지, 지자체 예산, 교육청으로 학교 예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학교 급별로 미디어교육이 진행된 것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나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 비율은 거의 차이가 없음
- 전북지역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 협력체계 구축 방안 연구에서 제시된 협력체계안은 다음과 같음. 지역교육청과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협력하여 미디어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자격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강사진을 확보하고, 교육청은 개별 학교에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진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임.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장비 및 시설 제공, 교육운영 관리를 담당함



[그림 10] 전북지역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 협력체계 안

• 경기도, 전라북도 학교 미디어교육 현황과 실행 방안

- 2011년에 경기도 소재 초·중·고등학교에서 미디어교육을 가르치는 현직 교사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다음 그림과 같이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디어교육 형태를 보면 정규교과내, 창의적체험활동, 학생들의 동아리활동, 특기적성교육 순으로 나타남. 학교 교사들이 교과와 연계하여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학교 급별 공통으로 정규교과내 미디어교육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차이를 보면 초·중학교는 창의적체험활동, 고등학교에서는 특기적성교육이 높게 나타남. 학교 급별 미디어교육 실행 방안을 초·중학교는 창의적체험활동, 고등학교는 특기적성교육 모델로 설정해 볼 수 있음



[그림 11] 경기도 소재 학교 미디어교육 형태

[표 46] 경기도 소재 학교 미디어교육 형태와 학교 급별 차이

(단위: %)

구분	정규교과내 미디어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학생의 동아리 활동	특기적성 교육	어떤 교육도 하고 있지 않음
초등학교 저학년	74.5	71.3	15.2	20.9	2.3
초등학교 고학년	74.4	70.3	19.5	23.2	1.6
중학교	69.2	44.0	15.0	26.3	8.6
일반 고교	57.7	33.7	16.3	41.3	15.4
일반 고교 외 고교	65.9	36.6	26.8	51.2	2.4

출처: 학교 미디어교육 도입 평가와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도내 초·중·고등학교 미디어교육 교사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미디어와 교육 3권 1회(2013년 6월), p.52

- 2015년 전라북도 초·중·고등학교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미디어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위와 같이 경기도 소재 학교 미디어교육 운영 형태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남. 그리고 전북지역 학교 교사들은 학교 미디어교육의 가장 적절한 실행 방안을 ‘전문기관과 연계를 통한 장비 및 프로그램 개발, 전문 강사 지원’으로 보고 있음

[표 47] 전북지역 학교 미디어교육 실행 방안 적절성(5점 만점 척도)

구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미디어교육 전문 강사와 학교 교사가 팀티칭으로 미디어교육을 실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3.52	3.44	3.60	4.00
▶ 학교 교사가 미디어교육에 관한 교사연수를 받고 직접 실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3.54	3.60	3.40	3.80
▶ 미디어교육 전문 강사를 학교에서 직접 섭외, 고용하여 미디어교육을 실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3.46	3.57	3.16	3.80
▶ 미디어 관련 전문기관(지역 미디어센터, 시민단체, 언론사 등)과 연계하여 장비 및 프로그램 개발, 미디어교육 전문 강사를 지원받아 미디어교육을 실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3.87	3.93	3.73	4.15

출처: 전북지역 학교 미디어교육 실행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2015. 9. 24.
전북지역 학교 미디어교육 실태조사 결과 및 함의 발제문

[표 48] 전북지역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5점 만점 척도)

구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학교 미디어교육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3.47	3.45	3.42	3.95
▶ 수업 지도안을 개발해야 한다.	3.46	3.44	3.40	3.90
▶ 미디어교육 자료 아카이브를 구축해야 한다.	3.66	3.69	3.57	3.90
▶ 교사 지원 정책(학점이수와 연관, 인센티브 등)을 실시해야 한다.	3.41	3.33	3.44	4.15
▶ 전문기관(미디어센터, 시민단체, 언론사 등)에 미디어교육을 위탁하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3.64	3.67	3.52	3.95
▶ 전문기관(미디어센터, 시민단체, 언론사 등)과 교류, 협력하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3.83	3.88	3.67	4.10
▶ 실습용 기자재 및 시설확충을 지원해야 한다.	4.03	4.06	3.91	4.35
▶ 미디어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	4.05	4.06	3.97	3.87
▶ 미디어교육 관련 교사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3.92	3.93	3.87	4.05

출처: 전북지역 학교 미디어교육 실행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2015. 9. 24.
전북지역 학교 미디어교육 실태조사 결과 및 함의 발제문

- 학교 교사가 미디어교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원 내용으로 예산과 기자재 및 시설 확충이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 미디어교육 관련 교사 연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경기도 소재 학교 조사 결과에서도 기자재 및 시설확충, 교사연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미디어교육용 콘텐츠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도 요구되었음
- 이와 같이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 방안을 초·중학교는 교과 연계와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고등학교는 특기적성교육 모델로 설정, 교과과정에서 교사들이 미디어교육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교사 연수 실시, 기자재 및 시설 확충, 교육자료 아카이브 구축 또는 교재 개발로 들 수 있음

4) 성과 및 한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교육부,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술강사지원사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지역별로 예술강사진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역단위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있어서 개별 학교 교육을 관리 운영할 수 있음. 교육 운영체계가 안정적인 장점이 있음
- 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은 방송콘텐츠제작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지역방송사와의 협력을 통해 기반 시설 활용 등 방송제작 현장과의 연계라는 시도가 새로운. 그리고 학교교육정책에 따라 미디어교육을 실행함으로써 학교 미디어교육을 선도해 가고자 함
-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에 따른 미디어교육을 실시해야 하므로 미디어교육 성격이 방송 장르에 한정되어 있음. 그리고 방송제작 실무교육 중심으로 방송전문 인력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학교 미디어교육은 개별 학교 신청 방법으로 운영됨으로써 학교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가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음. 학교-지역영상미디어센터-지역교육청 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 현장과 학교교육 정책기관에서 요구하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학교 미디어교육은 영상문화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열린 운영체제와 다양한 분야의 미디어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시청자미디어센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각각의 영역에서 문화예술 접근, 방송미디어 접근, 미디어리터러시 접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각 실행주체가 가진 설립 근거와 배경에 따라 영상문화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차이가 나타남
- 학교 미디어교육은 학교 교사들에 의해서도 진행되고 있음. 많은 교사들이 교과 연계와 창의적 체험 활동 속에서 미디어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학교 교사들의 미디어 교육 활성화 실행 방안은 학교 급별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초·중학교는 창의적 체험 활동, 고등학교는 특기적성교육으로 실행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봄. 전북지역 영상미디어센터 교육에서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미디어교육을 가장 많이 진행했음. 이에 따라 초·중학교는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2016년부터 전국 중학교에서 실시되는 자유학기제에 맞춰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고등학교는 전문 교육과정으로 특기적성교육 또는 동아리활동으로 활성화 실행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IV

KOREAN FILM
COUNCIL

사례분석

1. 국내사례
2. 해외사례

1. 국내사례

1) 부천시 지역문화진흥 및 영상문화 정책 사례 분석

(1) 부천시 문화정책의 변화 및 주요사업

[표 49] 부천시 문화정책의 변화 및 주요사업

구분	기간	주요 사업
1. 문화정책 토대 구축	지방자치제 이전 (1985-1994년)	▶ 복사골예술제 개최(1985년) ▶ 부천시립예술단 창단(1988년)
2. 문화를 통한 도시 정체성 확보 노력	민선1기 (1995-1998년)	▶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개최(1997년)
3. 영상문화사업 확대/문화 정책 성장토양 마련	민선2기 (1998-2002년) 민선3기 (2002-2006년)	▶ 부천국제만화축제 개최(1998년) ▶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개최(1999년) ▶ 부천영상문화단지 조성(2001년) ▶ 부천만화정보센터 설립(1999년) ▶ 부천문화재단 설립(2001년)
4. 문화산업 발전 및 문화 콘텐츠 창출 기반 구축	민선4기 (2006-2010)	▶ 부천무형문화엑스포 개최(2008년)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건립(2009년)
5. 글로벌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생활문화진흥정책 추진	민선5기 (2010-2014년) 민선6기 (2014년-현재)	▶ 생활문화예술진흥 추진 ▶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추진 ▶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2) 문화관련 조직

〈부천시〉

• 문화기획단

- 부천시 문화기획단은 6과 27팀으로 구성(2015년 1월 기준)
- 이 중 문화예술과, 문화산업과, 문화정책관이 문화정책 및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립·시행함
- 문화예술과는 부천시립예술단 운영,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운영, 부천문화재단 지원·관리, 지역 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 등을 수행
- 문화산업과는 문화산업 중장기 계획 및 문화콘텐츠산업 정책 시행, 국제축제 지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함

• 생활문화지원센터

- 시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에 의거, 2015년 1월 문화기획단 문화예술과에 부천시 생활문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

- 생활문화 연합회 구성, 동호회 현황파악, 생활문화시설(예술마당) 신청관리 등을 담당함

〈주요 산하기관〉

● 부천문화재단

- 부천문화재단은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부천시 전액 출연으로 설립된 부천시 산하기관. 부천 시민의 생활문화 증진 및 문화복지 증대를 위해 설립되어, 부천 문화 및 복지의 전 영역을 망라하는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2본부 8팀 8위탁사업기관으로 구성(2015년 1월 기준), 총원 133명(현원 115명). 운영·관리 시설로 복사골문화센터, 부천시민회관, 오정아트홀이 있음
- 운영 예산의 대부분은 시 출연금으로 구성(2015년 본예산 기준 61.9억 중 시 출연금 43억)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만화영상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하여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2009년 설립. 만화콘텐츠 창작기반 조성 및 인력양성, 웹툰 등의 세계화 및 국제 교류 활성화 지원, 부천국제만화축제 개최 등 사업 수행
- 2본부 6팀(2사무국)으로 구성(2015년 1월 기준), 총원 49명(현원 44명). 운영·관리 시설로 한국만화박물관,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 만화비즈니스센터가 있음
- 2015년도 운영예산은 총 147.6억(본예산 기준)으로, 시 출연금 46.3억, 국비 보조금 37.1억, 도비 보조금 37.1억 등으로 구성

● 기타

- 시립예술단(오케스트라), 문화원 등

〈축제조직〉

●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조직위원회(BiFan조직위)

- 1997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와 함께, 영화계인사 및 부천시 관계자 27명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설립. 집행위원회와 후원회,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음. 집행위원회는 4실 11개 팀으로 구성됨
- 2013년에는 사무국을 개편하면서 1년 이상 근무한 연간계약직 스태프 13명을 일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영화제 비전 제시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팀을 신설함. 이를 통해 조직 안정성을 확보하여 업무 연속성·전문성을 향상하고, 산업

적 발전 등 중장기적 비전을 도모하고자 함. 이는 영화제 중 최초 시도로, 이후 영화제 정규직 채용의 선례가 됨

- BiFan 조직위의 주 역할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이며, 그 외 아시아 판타스틱영화 제작네트워크(NAFF) 주최, 영화아카데미 등 상설교육사업 운영 등을 통해 영화산업 네트워크 강화 및 사업발전을 모색하고 있음
- (사)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조직위원회 (BIAF조직위)
 - 1999년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개최와 함께 조직위원회 구성.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 사무국으로 운영됨
 - 2015년, 일반경쟁부문 프로그램 신설과 함께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로 명칭을 변경하고, 아시아 최대의 애니메이션 페스티벌로서의 새로운 위상정립을 선포함
 -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전국학생만화애니메이션공모전, BIAF 애니시네마, 애니페어(잡세미나, 애니프리젠테이션, 포트폴리오 제작지원) 등을 기획·운영함

〈영상미디어센터〉

- 부천시민미디어센터
 - 경기도 최초로 설립된 영상미디어센터로,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부천시 공동참여로 2010년 2월 개관. 미디어를 통해 공공의 문화를 증진하는 시민문화공간으로의 역할을 함
 - 누구나 영상매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상·토론의 장 조성, 시민 대상 시설 및 기자재 지원, 영상 매체를 활용한 공동체 실현 등의 활동 수행

[표 50]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운영 개요

위치	원미구 장말로 107(복사골문화센터 내)	
개관일	2010년 2월	
주요활동	미디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미디어교육(미디어소외계층 대상의 아웃리치 교육) ▶ 시민제작활성화교육(시민의 미디어활용능력 증진을 위한 제작기술 교육, 제작과정워크숍) ▶ 유관기관 연계·협력교육 등 운영
	미디어체험	▶ 상영 및 체험프로그램(배리어프리영화 상영회 등)
	창작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기반의 미디어관련활동 ▶ 영상제작활동 지원(기술 지원, 제작지원 등)
	장비대여/시설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자재(카메라, 조명 등) 대여 ▶ 시설(편집실, 녹음실, 상영관 등) 대관

(3) 특징 및 분석

- 지역 문화정책 및 영상문화 정책의 선제적 도입
 - 부천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문화재단(2001년)을 출범시켰으며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영상미디어센터(2010년)를 설립하는 등 타 시군에 비해 문화 분야에 대한 지원정책이 빨리 도입되었음
 - 부산국제영화제에 이은 두 번째 국제영화제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1997년 시작했고 이듬해인 1998년 부천국제만화축제를 열기 시작하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설립하는 등 일찌감치 영화와 만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콘텐츠를 지역의 핵심적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다양한 투자가 이뤄졌음
-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한 문화사업들의 통합적 운영
 - 부천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정책연구 사업과 생활문화 기반조성 사업, 문화예술 교육 사업, 공연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사업, 미디어문화사업, 박물관 운영 사업, 여성·청소년·가족 분야 관련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 밖에도 폐쇄된 삼정동 소각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하는 가칭 『부천미래문화플랫폼』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생활문화기반 조성 및 영상미디어사업
 - 〈생활문화예술 기반조성〉 사업은 부천시 생활문화예술진흥 조례 제정에 따른 기반 조성 추진 차원으로, “문화특별시 부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문화 매개자, 자생적 문화공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여기에는 주민 기획자 발굴, 마을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운영(5개), 주민강사 마을예술교육(목공, 숲 해설 등) 등 지역 주민의 생활문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아시아 이주민과 함께 각국의 다양한 민요를 발굴하고 음원을 제작 보급하는 소수 문화 관련 사업, 동별·지역별 자생적 문화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 포함돼 있음.
 - 다양한 계층에 대한 미디어문화 참여 기회 제공과 소통 역량 신장을 목표로 하는 〈시민참여 미디어문화사업 활성화〉 사업도 시민미디어 교육과 부천시민영상축제 등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음

(4) 부천의 영상문화 정책

- 부천시의 영상분야 정책은 지역 발전의 동력을 영상 분야에서 찾기 위한 산업적 관

점이 우선하여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2010년 영상미디어센터(현 시민미디어센터)가 출범하면서 시민공동체에 기반한 영상문화 영역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고 이는 지역 영상정책에서 산업과 문화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긍정적 변화로 평가됨
- 영상미디어센터(현 시민미디어센터)가 초창기 시설운영에 대한 문제로 인해 지역사회로부터 크게 호응을 받지 못했으나 이러한 불식을 없애기 위해 센터에서는 지역사업 강화를 목표로 했고 지금까지 이러한 흐름은 유지되고 있음
(사례: 꿈사리영화제, 노인미디어교육, 독립영화정기상영회, 공동체상영회 등)
- 미디어센터 사업이 2008년 문화부 공모사업을 통해 도입되었고 2009년 4월 부천문화재단과 부천영상미디어센터 위탁업무를 관한 계약을 맺고 이듬해 개관했으나 관련 조례의 부재로 인해 제도적, 행정적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많았음. 이에 2015년 1월 “부천시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미디어센터를 통한 영상문화사업은 확실한 제도적 근거를 얻게 되었음
- 부천시의 문화정책 사업은 문화재단으로 통합되어있으며 미디어센터 사업 역시 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현재 부천시는 지역문화정책 전달체계의 변화발전을 위한 재편 작업에 있으며 이것이 현재 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영상문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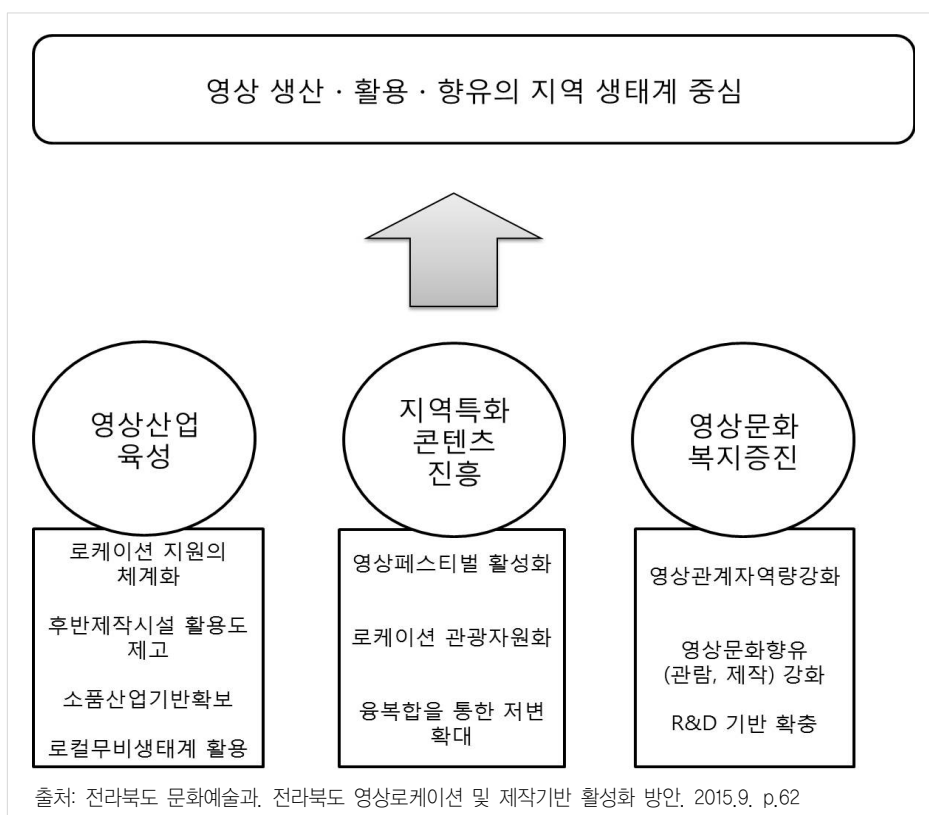
2)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 및 영상문화 정책 사례 분석

(1) 전라북도 영상문화 정책 현황

- 전북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안)¹⁹⁾
 - 생활문화 활성화 추진과제로 ‘작은 예술제 개최 및 활성화 지원’ 설정
 -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4개 시군에서의 주민주도 작은영화제 지원 계획 수립
 - 작은 시리즈 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와 지원 정책을 통해서 전북지역 작은영화제 네트워크가 구성될 것으로 기대됨
 - 취약계층 문화복지 추진과제로 ‘작은영화관 활용 영화·영상 향유 확대’, ‘찾아가는 문화향유 서비스 옹기종기 마실극장 확대’ 설정
 - 전라북도는 농촌지역 특화 문화시설로 작은영화관 조성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음. 영화관이 없는 9개 시군에 작은영화관이 2015년까지 설립, 운영

19) 전북 지역문화진흥 계획(안) 2015년 2월 25일 공청회 자료

- 작은영화관 조성 사업과 함께 작은영화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2014년부터 진행되고 있음. 지역주민 대상의 영상제작교육 ‘주민시네마스쿨’은 2014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2016년에는 14개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또한 신규 사업으로 ‘우리동네 문화관광 광고’ 제작지원, 영화상영 후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음
- 지역 영화제작자 양성을 위한 ‘독립영화 제작스쿨’ 계획을 한문화 창조적 활용 추진 과제 안에 포함시키고 있음
 - 한문화 창조적 활용은 문화유산, 콘텐츠, 문화관광 특화를 위한 전북형 특화 문화 진흥 사업으로 독립영화 제작스쿨과 인턴십 사업은 지역 내 영화제작인력 양성과 영화제작활동 활성화에 의미가 있음.
 - 그런데 한문화 창조적 활용 추진과제에서 영상 정책은 산업 진흥을 목적에 두고 있음.
-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에 따라 주민주도형 체계 구축을 위해 전라북도는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진행하고 있음. 이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또는 개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북도-시군 문화재단의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사업을 지원하려고 함
 -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전북문화정책 총괄 체계에서 작은영화관을 문화시설로 두고 있는데 향후 작은영화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사업을 전북문화관광재단에 요청할 필요가 있음
- 전라북도 영상산업의 비전과 목표
 - 2015년 ‘전라북도 영상로케이션 및 제작기반 활성화 방안연구’에서 전라북도는 ‘영상문화 복지증진’의 목표를 설정하고, 영상 생산·활용·향유의 지역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두고 있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상산업 발전을 주된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영상문화 활성화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영상문화 관련 정책은 지역특화 콘텐츠 진흥 정책에서도 찾아 볼 수 있음. ‘영상페스티벌 활성화’ 추진 전략을 통해 전라북도 내 다양한 영화제를 지원, 개발하려고 함. 특히 작은영화제는 시군 단위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영화제를 기획,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음



[그림 12] 전라북도 영상산업 발전 비전과 목표

- 전라북도 영상산업 발전전략 및 활성화 방향에서 영상문화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영화아카데미 과제에서는 지역 내 영상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유사 중복 교육프로그램을 통합운영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워크숍 개최를 통해서 도, 시군, 유관기관, 지역 내 영상관계자 간의 상시 네트워크를 조직하고자 함
 - 작은영화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획전 운영 예산을 도 차원에서 확보하고자 함.
 - 옹기종기 마실극장 운영에서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관객대상으로 삼고, 개봉 영화 중심의 작은영화관 상영 프로그램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계층을 찾아가는 맞춤형 상영서비스를 강화하려고 함
 - 지역 주민이 직접 만들어 보는 주민시네마스쿨 운영을 통해 ‘보는 영화’에서 ‘참여하는 영화’로 영상문화 영역을 확대하고자 함
 - 도 내 인구 특성을 고려하여 이주민을 위한 다문화 영화 관람을 보장해 주는 정책도 마련하고자 함

[표 51] 전라북도 영상문화 관련 정책

목표	활성화방향	추진과제
지역 특화 콘텐츠 진흥	영상페스티벌 활성화	▶ 전주국제영화제 ▶ 다문화영화제 ▶ 작은영화제 ▶ 산골영화제
영상문화 복지증진	영상관계자 역량강화	▶ 영화아카데미 ▶ 기초분야지원 ▶ 워크숍 등
	영상문화향유(관람, 제작)강화	▶ 작은영화관 ▶ 주민시네마스쿨 ▶ 웅기종기 마실극장 ▶ 다문화영화관람권
	R&D 기반 확충	▶ 뉴미디어 대응 ▶ 연구활동지원

(2) 작은영화관 조성 및 활성화 사업²⁰⁾

• 사업 배경

- 5대 작은시리즈 작은 목욕탕,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동네 체육시설 조성과 함께 작은영화관 조성 사업 실시
- 대규모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닌 주민이 살고 있는 주변에 있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5가지 작은 정책 시리즈 수립
- 2013년 전북도민 문화체육복지 실태조사에서 문화행사 직접 관람의사와 1년간 예술 행사 직접 관련 경험에서 영화가 가장 많은 것을 배경으로 영화관이 없는 시군에 작은영화관 조성 사업 실시
- 가족단위의 영화관람 비용 절감 효과, 최신 개봉영화 관람 욕구,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문화예술 분야가 영화, 경제성으로 민간 영화관 건립이 어려운 지역에 자치 단체가 문화 복지차원에서 영화관 건립과 운영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짐

• 사업 목표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영화관이 없는 시군에 작은영화관 조성 완료(총 9개 작은 영화관 건립)
- 주민시네마스쿨 등 작은영화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과 신규 사업 개발
- 지역 계층 간 문화격차해소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함

• 재원 출처(2012년~2014년)

- 총 예산 10,644백만원은 국비 1,000백원, 복권기금 2,023백만원, 도비 1,077백만원,

20) 작은영화관 정책설명회 발표 자료 정리. 2014. 5.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과

시군 5,774백만원 기타 800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중앙정부, 광역단체, 기초단체, 기업후원의 다양한 재원을 매칭하여 작은영화관을 건립함

- 작은영화관 조성 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함. 지역발전특별사업의 경우 지역의 다양한 사업 속에서 작은영화관 조성사업은 우선 순위가 아님
- 사업 추진방법
 - 작은영화관 조성을 위한 기관 간 MOU체결(도, 시군, 전북은행)
 - 작은영화관 조성을 위한 관계 간 워크숍 개최
 - 2014년 작은영화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전라북도는 작은영화관 조성 사업을 위해 시군과의 소통과 작은영화관 운영 주체 간의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있음

(3) 주민시네마스쿨 사업²¹⁾

- 사업 배경
 - 작은영화관 건립 9개 시군 중심으로 영상제작교육 실시
 - ‘보는 영화’에서 ‘참여하는 영화’로 영상문화 영역 확대
 - 2016년에는 14개 시군 전 지역으로 확대
- 사업 방향
 - 전문 민간기관 위탁
 - 영상제작 기초 및 심화 과정 진행
 - 지역의 영상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장비 구입 및 후속활동 지원
 - UCC 대회와 지역방송과 연계하여 교육결과물 활용
 - 기초 영상제작 활동이 가능한 최소 수량의 장비 구입(디카, 캠코더, 노트북, 편집소프트웨어)
- 재원 출처
 - 전라북도와 각 시군 예산 매칭
 - 2014년 총 예산 180백만원: 도비 72백만원, 시군비 108백만원(장비구입비 13백만원, 교육사업비 17백만원)

21) 강원도민의 영상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작은영화관 활성화 워크숍 ‘주민시네마스쿨’ 발표(2015. 5. 21~22) 자료 정리

- 2015년 총 예산 210백만원: 도비 84백만원, 시군비 126백만원(장비구입비 10백만원, 교육사업비 20백만원)
- 1개시군당 사업비: 30백만원(도비 12백만원 시군비 18백만원)
 - ※ 기존 시군은 20백만원, 장비 구입비 제외
- 사업추진 방법
 - 2015년에는 전라북도에서 시군으로 예산을 전달하여 각 시군에서 주민시네마스쿨 예산을 집행했는데, 2016년에는 사업 운영 효율성을 위해 전라북도가 시군의 예산을 받아 총괄 집행하기로 함
 - 전라북도 지역발전특별사업으로 시군의 주민시네마스쿨 사업을 확보하는 방식을 채택함. 전라북도와 각 시군 예산 매칭 형태로 주민시네마스쿨 사업 재원을 다양화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 옴

(4) 시사점

- 영상문화영역 확대 시도
 - 전라북도에는 전주 2개(전주시민미디어센터, 전주MBC시청자미디어센터), 익산 1개(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완주와 군산(설립예정) 총 5개 영상미디어센터가 운영, 설립되고 있음. 그리고 영화관이 없는 9개 지역에 작은영화관이 조성되었고 독립영화협회,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전주국제영화제가 공공성을 기반으로 다양성 영화 제작 및 상영 활동을 하고 있음. 한편, 영상산업 중심의 진흥기관이지만 전북디지털산업진흥원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지역 영상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이와 같이 전라북도는 영상문화 관련 인프라 조성과 관련 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특히 작은영화관 사업을 조성에 그치지 않고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민 영상제작교육 주민시네마스쿨 사업을 정책적으로 펼치고 있음. 향후 모든 시·도·군에서 주민시네마스쿨 사업을 실시할 계획임
- 영상산업발전을 배경에 둔 영상문화복지 정책의 한계
 - 시민의 영상문화 향유 보장을 위한 정책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은 영상산업발전의 일부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어 한계가 있음. 시민의 영상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영상산업발전을 위한 새로운 소비자 발굴을 위한 교육으로 전락할 수 있음
- 다양한 자원 확보를 통한 영상문화 정책 수립

- 영상산업발전을 배경에 둔 한계 속에서 시민의 영상문화복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전라북도 문화예술과는 재원을 다양화 하는 방안을 수립함. 국고, 시군, 기업 매칭을 통해 영상문화 정책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장치 마련
-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로운 정책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국고 매칭의 효과는 매우 큼. 따라서 지역별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고 매칭이 필요함
- 영상문화 관련 단체의 기능 분리 필요성 제기
 - 전라북도에 다양한 영상문화주체들이 각자 활동하면서 시민 대상의 비슷한 영상문화 관련 사업에 중복 지원되고 있어 비슷한 사업 간의 통합이 필요함. 앞으로 각 영상문화주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하고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지역문화진흥계획수립과 광역문화재단 설립 과정에서 영상문화영역 확보의 필요성
 - 전라북도는 2015년 지역문화진흥계획에 작은영화제와 작은영화관 활성화 그리고 시민 대상의 영상제작교육을 포함 시켰음. 더 나아가 전라북도는 도내 다양한 영상문화 인프라를 바탕으로 특색 있게 지역문화진흥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임.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만들고 있는 마을영화제, 영상제작활동은 문화민주주의 실현 사례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목적에 부합함
 - 이에 따라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주요 사업과 지역문화진흥계획에 영상문화 향유와 참여 관련 내용이 주요 정책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음

3) 학교 영상문화 정책 ‘예술꽃 씨앗학교’ 사례 분석

(1) 예술꽃 씨앗학교

-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문화예술 소외지역 작은 학교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는 학교 문화예술교육사업. 최대 4년간 지원이 이루어지고 사업 수혜 대상자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교사, 학부모 그리고 지역주민까지 포함됨. 초창기에는 초등학교 중심으로 대상 학교가 선정되었다가 2014년부터는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함

(2) 사업 특징

-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전교생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

-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
- 사업운영체계
 - 지원 및 감독체계: 학교선정-컨설팅-평가
 - 운영자 및 수혜자: 운영주체가 학교장, 담당교사, 교사, 예술강사, 코디네이터로 구성
 - 담당교사: 예술꽃 씨앗학교 제반 업무 담당, 실무, 대외 협력 담당
 - 예술강사: 학교 교육과정 및 해당 교육대상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 코디네이터: 담당교사 보조 역할로 교육프로그램 및 행정 운영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 별도 부서 '창의교육팀'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3) 사업 목적

- 문화적 감수성과 표현력을 키우고, 창의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예술학교(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
-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 구심점 역할, 문화예술교육 확산 기여(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거점학교 육성)
- 공교육 내 특성화된 문화예술교육 모델 제시
- 지원 종료 후 학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업 사회공헌활동과의 연계 방안 모색

(4) 예술꽃 씨앗학교 연차별 운영 로드맵 및 지원예산

- 아래 표와 같이 예술꽃 씨앗학교는 4년의 연차별 추진목표가 있음. 개별 학교의 조건과 상황을 고려한 교과 연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에서의 문화예술교육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연계 과정으로 사업이 구성됨
- 지원 예산 규모는 4년간 개별 학교별로 최대 2억 3천만원 정도임

[표 52] 예술꽃 씨앗학교 연차별 운영 로드맵

연차별 구분		추진목표	지원예산(예정)
1년차	기반조성기	▶ 학교 교육과정과 문화예술교육 연계	8천만원 이내
2년차	성장기	▶ 학교별 문화예술분야 특화 운영	6.8천만원 이내
3년차~4년차	확산 및 정착기	▶ 학교 내 문화예술교육 정착화 및 지역 연계 강화	5.7천만원 이내

출처: 2015년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 공모 안내문

(5) 예술꽃 씨앗학교 현황 및 영상문화 분야 학교 현황

- 6년 동안 총 73개 학교가 예술꽃 씨앗학교 사업을 진행했음.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지원된 학교는 면지역 19개교, 대도시 12개교, 읍지역 8개교, 도서벽지 5개교, 중소도시 6개교, 도농복합 3개교였음

[표 53] 예술꽃 씨앗학교 현황

년도	기수	지원학교 갯수
2008	1기 예술꽃 씨앗학교	10개교
2011	2기 예술꽃 씨앗학교	16개교
2012	3기 예술꽃 씨앗학교	10개교
2013	4기 예술꽃 씨앗학교	4개교
2014	5기 예술꽃 씨앗학교	13개교
2015	6기 예술꽃 씨앗학교	20개교

- 2개 학교에서 영화 분야를 운영했고, 나머지 5개 학교에서는 다른 분야와의 통합교육을 실시

[표 54] 예술꽃 씨앗학교 중 영상문화 관련 학교 현황

지역	학교명	분야
경북	봉화초등학교	영화
제주	제주남원초등학교	영화
전남	한천초등학교	미술, 연극, 영화
충남	송남초등학교	시각/영화
부산	칠암초등학교	시각/영화
충남	부석초등학교	시각/영상, 애니메이션
경남	금동초등학교	시각/영화

- 영화분야를 특화하여 운영한 2개 학교의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학교가 중심이 되어 교과연계 영화교육 과정을 개발하였고, 영상제와 캠프를 통해 영화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확대하고자 하였음. 하지만 영화를 활용한 교육과정 개발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보임. 영화를 활용한 영화에 대한 이해, 표현, 소통 교육이 되어야 함

[표 55] 경북 봉화초 영화분야 성과 목표와 추진방향

성과목표	추진방향
영화 교육을 위한 제반 시설 구축	▶ 영상실 구축 및 각종 기자재 구입 ▶ 영화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영화 교육을 통한 체험 및 표현기회 확대	▶ 각종 영화제에 참여하여 수상 ▶ 영상제 개최 및 신문, 방송 홍보 ▶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영화 교육 홍보 및 내실화
영화 교육 저변 확대 및 학교 특성화 모델 적용	▶ 영화 교육의 학교 교육 과정화, 영어로 영화 만들기 및 봉화시장 다큐멘터리 영화 만들기 발전적 방향 모색 ▶ 각종 영화제 참여를 통한 영화 표현 기회 확대 및 영화 교육 내실화, 영상제 개최를 통한 영화 교육 결산 및 홍보 ▶ 학교 신문, 각종 매체를 통한 영화 교육 홍보 및 내실화 ▶ 지역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영화 교육 이해의 장 확대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1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연구-예술꽃 씨앗학교를 중심으로, p. 20

[표 56] 제주 남원초 영화분야 성과 목표와 추진방향

성과목표	추진방향
교과 및 재량, 특별활동 시간에 영화교육의 접목	▶ 교과시간에 영화교육을 접목(영화논술, 영화음악, 영화미술)
남원초등학교를 영화교육학교로 특화	▶ 전국을 대상으로 한 교과서 및 지도서 보급 ▶ 전국단위의 영화캠프 개최
초등 영화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 영화교육을 위한 교과서 발간 ▶ 영화교육을 위한 지도서 발간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1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연구-예술꽃 씨앗학교를 중심으로, p. 23

(6) 사업 추진체계

-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예산지원에서부터 컨설팅 및 평가, 네트워킹 활동 중심 역할을 하고 있음. 예술꽃 씨앗학교 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체계를 만들기 위해 개별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넘어서 학교 문화예술교육이 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킹을 사업의 주요 활동으로 두고 있음
- 운영학교가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학교 내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표 57] 예술꽃 씨앗학교 사업추진체계

주체	역할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 예술교육진흥원(창의사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 총괄 및 기획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관계자 워크숍 개최, 학교 간 상호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도모 - 운영학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추진 ▶ 사업 컨설팅 및 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현장컨설팅 추진 - 사업 운영평가를 통해 체계적, 지속적 관리 및 발전방안 모색 ▶ 사업 홍보 및 성과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꽃 씨앗학교 주요활동 결과 축적, 활용 및 대외홍보 - 운영학교 성과공유 발표회 개최 등
예술꽃 씨앗학교(운영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 교과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등 - 연계 교육활동 운영(교강사 워크숍, 동아리, 체험활동, 방학 중 캠프 등) ▶ 지역 문화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문화자원,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단체 등 연계 ▶ 기타 사업 홍보 활동 및 연간 교육활동 기록, 사업관련 업무협조 및 정산, 결과보고 등

출처: 2015년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 공모 안내문

(7) 시사점

- 4년간의 장기 지원 사업
 - 예술꽃 씨앗학교 사업은 장기 교육 프로젝트의 장점을 가짐. 학교 내 문화예술교육이 정착되고 운영학교가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거점학교로 성장하고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이 확대되는 변화를 가져 옴
- 사업운영 과정의 체계성
 -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학교의 담당 역할을 구체화하여 사업 운영의 체계성을 확보함. 특히 운영학교 예산지원에 그치지 않고 연구 개발 사업, 네트워킹, 운영학교 대상의 역량 강화 연수 등의 사업을 다양하게 실시함
- 지역사회의 문화예술교육 인식 확산
 - 학부모, 지역주민까지 사업대상에 포함하여 학교가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역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 낸. 지원 종료 후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되기도 함. 지자체, 교육청, 기업 등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음
- 학교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거점화

- 학교를 문화예술교육 주체로 성장하게 함으로써 학교가 문화예술교육의 거점이 되도록 함.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인적, 물적 인프라가 지역사회와 공유되는 모델로 의미가 있음
- 안정적인 예산지원
 - 4년간 2억 이상의 예산이 각 학교에 지원됨. 안정적인 예산 확보는 사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
- 지역 문화예술교육 협력체계 구축
 - 학교장-학교교사-예술강사 협력체계와 지자체-교육청-기업 간의 협업은 사업지원 종료 후 학교의 자립성을 만들 수 있게 함. 또한, 4년간의 지원 종료 후 성과가 우수한 학교의 경우 기업사회공헌사업으로 지원을 해 줌

2. 해외사례

1) 영상 문화 활성화를 위한 영국의 정책 사례

-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영국 정책의 중심에는 영국영화협회(British Film Institute, 이하 BFI)가 있음
- BFI는 2012년에 <2012-2017 지원 정책: 필름 포에버(Film Forever: Supporting UK film)>를 발표하고, 영국 전역의 영상 문화 진흥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역 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지역 단위의 영상 문화 지원에도 힘쓰고 있음

(1) BFI의 입지 및 역할

- 1933년 처음 설립된 BFI는 1983년 왕실 칙허(Royal Charter)를 받았으며, 2011년 영국영화진흥위원회(UK Film Council)가 문을 닫으면서 영국영화진흥위원회에서 담당하던 여러 업무들을 이관받았음
- BFI로 이관된 가장 주된 업무는 로터리 자금의 영화관련 예산을 배분하는 역할로, BFI는 영국 전역에 걸쳐 영화와 관련된 가장 큰 재원을 가지고 다양한 역할 및 사업을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음
- 2011년부터 BFI는 정부의 문화미디어스포츠부(The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지원을 받는 비정부 공적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y, NDP B)²²⁾로 운영되기 시작하였음

- NDBP로서 BFI는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예산 사용, 거버넌스 구조, 공적 역할 수행 여부 등에 대해 정부의 감사를 받게 됨. 영국에서 각 정부 부처는 최소한 3년에 한 번씩 그들과 연관된 비정부공공기관과 기구들의 활동을 리뷰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BFI 역시 해당 부처인 문화미디어스포츠부의 감사를 받았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BFI의 성과 및 운영 감사 결과가 2014년 9월 보고서로 발표됨
- 감사 결과 BFI가 수행하고 있는 다섯 가지 핵심 역할이 지속적으로 수행되도록 장려되었는데, BFI의 핵심 역할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음
 - 영국 전역에 걸쳐서 영화, 텔레비전, 영상 기반 예술의 발전을 지원한다
 - 현대인의 생활 및 생활양식의 기록을 남기는 역할을 한다
 - 텔레비전, 영화, 동영상에 대한, 그리고 이러한 영상 기반 예술이 사회에 주는 영향력에 대한 교육을 증진한다
 - 영국 영화와 월드 시네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영국의 문화유산 및 영상 기반 예술의 역사를 반영하는 컬렉션을 만들고 보존해나가는 역할을 한다

(2) BFI의 재정

- BFI의 가장 주된 재원은 복권기금인 로터리 자금임. 그 외에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로부터 국고보조금(Grant-in-Aid, GIA)을 받기도 하고, BFI에서 운영하는 수익 사업으로부터 수입을 얻기도 함

[표 58] BFI 수입원

(단위: 백만파운드, DCMS, 2014, 29쪽)

년도/단위	국고보조금	로터리 자금	자체 수익금	총 수입	총 지출
2011-12	33.5	36	18.7	88.2	82.6
2012-13	27.9	52	20.6	100.5	81.5
2013-14	23.3	47	20.6	90.9	97.4

22) NDPB란 '영국 정부의 정책 운영에 역할을 하지만 정부의 부서나 기관이 아니므로,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상호 대등한 관계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이라고 규정할 수 있음. (DCMS, 2014)

- 영화 및 예술 분야에서 로터리 펀드를 매개로 BFI와 협력 관계에 있는 기관들에는 Creative England, Creative Scotland, Creative Skillset(영국의 창조산업 인력 위원회), Film Agency for Wales, Film London, Northern Ireland Screen 등이 있음
- BFI가 받은 국고보조금(GIA)의 많은 부분은 이와 같은 협력 기관들로 전달됨. 2013/14 년도의 자료에 따르면 2,300만 파운드의 국고보조금 중 8백만 파운드가 Creative England와 Northern Ireland Screen으로 전달되었고, BFI는 국고보조금 중 1,600만 파운드 가량을 아카이브를 만들고, 페스티벌 등을 운영하는데 집행하였음
- 로터리 자금 역시 BFI를 통해서 영국 영화에 투자하고 관객층 확산 및 관객 교육을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파트너 기관들로 전달됨. BFI는 현재 예술 분야에 배정된 로터리 자금 전체 중 2.7%를 지원받고 있음
- BFI의 자체 수입원은 크게 4가지임. 먼저 사우스뱅크 극장(템즈강변 위치), DVD 판매 혹은 교육용 교재개발, 아이맥스 극장 수입, 기부금 수입(다양한 재단이나 기업, 개인들로부터 받는 기부금) 등을 통해 자체 수입원을 확보하고 있음. 2011년부터 자체 운영 극장 사업을 확장하면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가고 있는 추세임

(3) BFI의 영화진흥 계획 2012-2017 <Film Forever: Supporting UK Film>

- 영상 문화 활성화를 위해 BFI는 관객 교육 및 영상 산업 인력 지원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음. 그 중 <필름 포에버>는 2012년에 발표된 BFI 주체의 영국의 영화 지원 전략임
- BFI는 <필름 포에버>를 통해 영국의 현재 영상 문화 환경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음. 영국에서는 2천 7백만이 넘는 관객이 영화관 안팎에서 영상 문화를 향유하고 있고,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영상문화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다양한 영상문화 향유의 장을 꾸려가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BFI는 미래의 관객들, 미래의 영화 제작자들을 위한 기반을 만들고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미래를 개척할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음. 또한 BFI는 이를 위해 디지털 아카이빙 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아카이브를 만드는 작업을 통해 영국 영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디지털 테크놀로지로 강화된 BFI의 아카이브를 활용하여 관객들에게 영국이 그동안 자신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영화로 표현해왔는지 보여주고, 영화 제작자들에게는 창의적인 영감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에 주목

- <필름 포에버>는 다음의 3가지 영역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
 - 첫째, 교육과 학습의 기회를 확장하고, 영국 전역에 걸쳐 관객들의 선택지를 늘린다
 - 둘째, 영국 영화 미래의 성공을 위해 여러 지원을 한다
 - 셋째, 영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국의 영화 유산을 즐길 수 있도록 영화유산을 공개한다
- 위 세 가지 영역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① 교육과 학습의 기회를 확장하고, 영국 전역에 걸쳐 관객들의 선택지를 늘림

- 영화에 대한 이해, 지식, 역량을 확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
- 영화에 대한 지식과 즐거움을 증진시키기 위해 영화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나 영화의 기존 전문가들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자 함
- BFI가 가장 중시하는 투자 중 하나는 청소년 대상의 교육. 이를 통해 관객층을 넓히고 미래의 창의적 인재를 키울 수 있음
- 영화는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확장시키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미디어. 중요한 예술의 한 형태이자 강력한 스토리텔링 매체로서의 영화를 공식 교육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는 영국 문학을 학교 교육에서 다루는 이유와 일맥상통함
-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모바일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 관객들이 영화를 접하는 문화가 급변하고 있음. 테크놀로지의 변화는 관객의 기대와 관람 행동에 변화를 가져옴. 이러한 변화는 영화를 만들고 유통, 상영하는 관계자들에게 위기와 동시에 기회이기도 함
- BFI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블록버스터, 최신 독립영화, 리메이크한 고전 영화 등 풀 스펙트럼의 영화 향유가 가능하게 하려함

② 영국 영화 미래의 성공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 영국의 영화와 영화 제작자들에 대한 지원이 BFI의 중심 활동임. BFI는 새로운 목소리,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아이디어와 역량을 지원함으로써 영국 영화 제작을 보다 다양하고 풍요롭게 하고자 함
- 필름 포에버는 영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영화 제작사들의 입지를 강화하여 그들이 재정적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영국의 경제력, 국제 경쟁력을 높이게 하고자 함. 영화 제작 투자를 보다 유연하게 하고, 제작자와 작가, 감독들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함

- BFI의 펀드 레이징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영국의 독립 영화 제작을 위한 기존의 상업적 파트너들을 관리하고 그에 덧붙여 새로운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는 조합이나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함
- BFI는 영국 영화의 미래를 위해, 영국 정부에서 영국 영화가 국제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량 개발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는 동시에, 영국의 창의적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영화 인력들의 능력을 담보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함

③ 영국의 영화 유산 공개

- BFI의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ser/BFIfilms)은 2012년 필름 포에버 정책이 제안되었을 시기에 이미 천백만 히트를 넘어섬. 대중의 영국 영화에 대한 관심이 큼을 보여준다 할 수 있음
- BFI 사우스뱅크, BFI 페스티벌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과 <필름 포에버>를 통해 디지털화 될 만 편 가량의 BFI 아카이브의 영화들은 관객들이 접할 수 있는 영화의 다양성과 깊이를 대폭 강화시킬 것임. 이러한 다양한 통로를 통해 개방될 영국의 영화 유산은 영국 사람들이 처음으로 접하게 될 콘텐츠가 대부분임

(4) 지역 정부와의 연계 사례

영국 ‘농촌 지역 극장 개발 계획(Rural cinema pilot scheme)’ (2010-2013)

- ‘농촌 지역 극장 개발 계획(Rural cinema pilot scheme)’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영국의 슈롭셔(Shropshire), 윌트셔(Wiltshire), 노스요크셔(North Yorkshire) 등지에서 진행된 프로젝트로, BFI를 통해서 로터리 자금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음
- 파일럿 선행 연구로 BFI와 환경부, 농산부의 협조 하에 영국 농촌 전 지역의 극장 현황 조사와 인구 밀도, 농촌 지역의 지리적 범위, 영화의 공급 정도를 분석(윤혜숙, 2012). 이와 같은 전국적 컨설팅을 통해서 위의 세 지역이 영화 접근성이 가장 낮은 지역이라 판단되어, 위의 지역이 파일럿 실행지로 선택됨
- 파일럿 기간 동안 BFI는 120만 파운드의 로터리 자금을 투자하여 마을 회관, 아트 센터 등 지역 사회의 공동 공간에 디지털 프로젝션 장비 및 영상 상영 장비를 구축함²³⁾. 농촌 지역의 관객들이 신작 개봉 영화나 위성으로 중계를 받을 수 있는 스포츠 실황, 오페라, 연극 등의 예술 작품들을 보다 편리한 장소에서, 도시와 개봉일이

23) www.bfi.org.uk/film-industry/lottery-funding-distribution/closed-award-schemes/rural-cinema-pilot-scheme 참조 (2015.11.29. 접근)

나 개막일에 큰 차이가 없이 수준 높은 영상 시설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 2009년 영국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의 이동영화관, 영화제 조직 단체, 영화 모임(film-societies), 아트센터 등을 대상으로 3년간 지역의 영상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제안서 및 기획안을 공모하여 ‘농촌 지역 극장 개발 계획(Rural cinema pilot scheme)’에 참여할 기관을 선정함
- 이 프로젝트의 목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윤혜숙, 2012):
 - 농촌 지역 영화의 발전과 강화로 지역민들에게 더 많은 ‘영화적 경험’ 향유 기회 제공
 - 농촌 지역에서 영화 상영 빈도와 관객 수 증가, ‘신작’ 상영 횟수 증가
 - 농촌 지역 상영관에서 3D와 위성 중계를 포함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영화와 콘텐츠의 배급 실험
 - 농촌 지역에 영화 관련 비즈니스 모델 발전
 - 현재 농촌 지역에서 극장 관람 기회가 제한적인 관객들(어린이나 노인 관객)에게 영화에 대한 접근과 관람 기회 확대
 - 시범 계획에 대한 데이터, 증거자료, 정보들을 관련자와 영화계에 제공하여 추가적인 공적 지원을 위한 실행 기반으로 활용
- 2013년에 종료된 ‘농촌 지역 극장 개발 계획(Rural cinema pilot scheme)’ 프로젝트의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이는 향후 지역과 연계한 영상 문화 진흥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기반 자료로 쓰일 예정임

Creative Scotland

- Creative Scotland는 스코틀랜드 전역의 예술, 영화, 창의적 산업을 지원하는 공적 기관으로, 스코틀랜드 정부와 로터리 자금의 지원을 받아 영상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음
- 영국 전역의 영상 문화 진흥 사업들을 주도하고 있는 BFI와의 연계도 활발히 진행. 먼저 두 기관은 재정적 연계 관계 하에 있음. Creative Scotland는 BFI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파트너로 주로 BFI를 통해 국가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음. 그리고 BFI에서 출범시킨 로터리 자금 기반의 다양성 펀드(Diversity Fund)에서 제시하는 다양성 영화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Creative Scotland와의 협조 하에 영화 제작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기도 함
- 또한 프로그램 운영과 연구 차원의 협조 체계를 살펴보면 Creative Scotland 중심

프로그램 중 영화 교육 프로그램이나 ‘영화 인재 네트워크’ 지원 프로그램은 BFI에서 개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사용하고 있음. 스코틀랜드 영화 소비의 질적, 양적 연구 및 스코틀랜드 영상 문화 연구를 위해 BFI와 Creative Scotland가 협조

- Creative Scotland의 영상 문화 활성화 전략들을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음. 먼저 2014년 <잠재력 발현과 포부의 포용(Unlocking Potential, Embracing Ambition)>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스코틀랜드의 예술, 영상, 창의 산업 공통의 비전을 구축하기 위한 10개년 계획을 살펴봐야 하는데, 이 계획에서는 스코틀랜드가 다음과 같은 5가지 모습을 띠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상정하였음
 - 예술, 영상, 창의적 산업의 전반에 걸친 우수한 작품과 실험들의 가치를 인정받는 나라
 - 구성원 모두가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경험을 하고 즐길 수 있는 나라
 - 삶의 질 및 생활의 터전이 상상, 포부, 창의성의 잠재력에 대한 이해로 인해 변화될 수 있는 나라
 - 다양성이 있고, 숙달된 리더십과 인력에 의해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나라
 - 전 세계와 연결된 독창적인 창의적 나라
- 이를 위해 Creative Scotland에서는 <창의적 스코틀랜드를 위한 영화 전략(Creative Scotland On Screen-Film Strategy 2014-17)>을 발표하고 2014년부터 차후 3년간 영화 및 예술 분야를 지원함에 있어 우선순위를 제시함
- 이 3개년 영화전략에서는 스코틀랜드를 ‘활기차고,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영화 지역’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여, 영화 분야에 있어서는 영화제작 인력, 공적 파트너들이 협력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창의적 스코틀랜드를 위한 영화 전략>에서는 스코틀랜드의 영화 산업과 관련하여 영화감독, 영화 제작 인력 및 배우 등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인력을 갖추고 있으나, 한편으로 체계적 문제, 새로운 영화 소비 테크놀로지의 개발 및 성장,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영화 시장, 국제적 재정 위기 등 영화 업계가 어려움에 당면해있다고 자평하고 있음
- 스코틀랜드 영화 산업의 부흥을 위해 상업적 영화 제작자들이 스코틀랜드로 오도록 장려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고, 독립 영화 제작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공통적 인식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Creative Scotland의 영화 전략은 영화와 관련된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음. 여기서 전 과정이라 함은 관객의 문화 역량이나 영화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에서부터,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 인력의 재능 및 역량 개발, 영상 산업 및 제작 여건의 개발 모두를 포괄함

- 이 영화 전략을 통해 스코틀랜드는 영화 문화의 모든 요소가 중요함을 인지하고 영화 산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국가로 자리 잡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하고, 3개년 전략의 실행 결과 스코틀랜드의 경제와 문화생활의 중심에 영화 분야가 위치하도록 제반 조건을 형성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1,000명 가량의 예술가, 예술 조직들에게 이 전략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이 전략 자체가 다양한 개인과 조직들(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서 활동하는 영화교육과 동영상(moving image) 교육자, 영화 제작사, 유통사, 수용자 개발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개인과 조직을 포함)의 참여와 자문 하에 만들어지고 있음. 이 전략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음
- 먼저, 지속 가능한 영화 스튜디오의 설립, 영화 및 텔레비전물 제작에 대한 인센티브 증진, 작가와 극작가 개발에 많은 지원, 영화 제작 및 유통, 소비 전 과정에 걸친 인력과 기술 개발, 증가된 펀딩을 통해 스코틀랜드의 제작 커뮤니티 지원, 교육으로부터 산업현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보다 명백한 루트 개척을 수반한 영화와 동영상(moving image) 교육 강화 등
- 이를 위해 <창의적 스코틀랜드를 위한 영화 전략>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되었음
 - 영화교육
 - 인재와 역량 개발
 - 영화 산업 개발과 제작
 - 내부적 투자와 공동제작
 - 유통, 상영 그리고 소비자(수용자)
- <창의적 스코틀랜드를 위한 영화 전략>에서는 위의 다섯 가지 영역별 단기, 중장기 세부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첫 번째와 다섯 번째 영역인 '영화 교육'과 '유통, 상영 그리고 소비자(수용자)'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영화 교육(Film Education)
 - 영화(Moving images)는 국제적으로 문화와 소통의 중심이 되고 있음. 그러나 영화의 대중성,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 예술적, 역사적 가치, 경제적 역할 등이 큼에도 불구하고 영화교육은 세계적으로 교육 체계 안에서 변두리 영역만을 차지하고 있음

- Creative Scotland의 목적은 영화와 동영상 교육을 모든 나이 대의 학습자를 아우르는 공식 교육 영역과 비공식 교육 영역에서 다룸으로써, 감식안을 지닌 관객을 키워내는 것임. 모든 관객이 영화를 이해하고, 감상하고, 탐색하며, 만들어내고 공유할 수 있도록 영화 리터러시를 갖추게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임
- 단기계획: 1년간 진행될 구체적 전략 수행:
 - BFI, 스코틀랜드 영화 컨소시엄, 스코틀랜드의 'Into Film'²⁴⁾등이 협력하여 5-19세 학생들을 위한 영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16-19세 사이 영화 인재를 기르기 위한 BFI Film Academy와 협조할 것임
 - 스코틀랜드 전역에 극장과 예술 극장 및 기타 기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화 교육을 지원할 것임
- 중장기 계획: 향후 3년간의 전략
 - 영화가 스코틀랜드 전역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예술 전략인 *Time to Shine*과 *Cashback for Creativity Programme*의 핵심 내용이 되도록 함
 - 5-19세 나이 대에 속하지 않은 교육 참여자들을 위한 영화 학습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새로 개발할 것임
 - 유럽 기타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이루어 진행되고 있는 창의적 유럽 영화 리터러시 프로그램(the Creative Europe Film Literacy programme)을 통해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두 프로젝트와 협력하여 유럽 영화 교육을 위한 프레임 개발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유럽 영화 카탈로그 제작 작업을 할 것임
 - 이 모든 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스코틀랜드 영화와 동영상 교육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및 영역 구축에 힘쓸 것임
- 유통, 전시(상영) 그리고 수용자(소비자)
 - 영화 소비자층을 확장하고 보다 다양하게 하며, 영화와 관객의 깊은 교감을 조장함으로써 스코틀랜드의 영화 프로그램과 극장에의 접근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스코틀랜드에 이미 잘 알려진 국제 영화제 등이 있지만 영화의 유통, 상영, 관객 개발 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컨설팅 팀에서는 프로그래머와 상영 관계자들 간의 협력을 장려하고 보다 연계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함. 그리고 제작에서부터 상영, 관객 개발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단기 전략: 1년 안에 진행될 전략은

24) www.intofilm.org/scotland

-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관객층 형성을 위해 수용자 개발 계획들에 대해 자금 지원을 할 것임
- 영화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디지털 혁신을 사용하여 영화 유통을 하는 제작자 혹은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지속할 것임. 이는 스코틀랜드 전역, 특히 주요 도시가 아닌 지방 도시들에서 새로운 수용자 경험과 영화관 방문 기회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들을 포함함.
- 유통 영역과 협조하여 디지털 유통, 저작권 관리, virtual print fee(virtual print fee란 영화상영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프로젝션 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해 영화 유통업자들이 지불하는 자금에 대한 지원금을 의미) 등에 대하여 논의할 것임

– 중장기 계획: 향후 3년간의 전략

- 주요 영화제와 스코틀랜드 전역의 예술 영화관과 협력하여 영화에 대한 접근도와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
- 영화 상영관과 영화제, BAFTA(영국아카데미시상식), 온라인 유통 플랫폼, 수용자 관련 업계 등의 대화를 촉진하여 스코틀랜드의 관객, 커뮤니티, 영화 제작가들 간의 연계를 공고히 함
-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양질의 현대 영화 경험을 위한 통합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적 기관, 사적 기관/조직들과 파트너십을 이루어 협조하고자 함
- 지역 사회에서 허브 역할을 하고 지역 구성원들의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멀티 예술 센터들의 성장을 위해 지역자치단체와 예술 파트너, 영화와 창의적 산업 관계자 등과 협력할 것임
- 문화와 창의산업의 참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형평성 증진 프로그램(Promoting Equalities Programme)의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찾고자 함. 형평성 증진 프로그램에서 강조하는 정책과 실천들을 영화 영역에 벤치마킹하고자 함

(5) 영국의 영상문화 활성화 전략 및 시사점

-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BFI와 지역정부의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세 가지 공통점이 드러나는데, 이를 기반으로 영상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관들의 역할 및 초점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해볼 수 있음
- 첫째, 영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영화 관객층의 확장 및 관객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영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하고 영화 교육이 학교 교육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관객의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다양한 영

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을 탄탄히 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미래에 영화를 제작하거나 영화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의 폭을 넓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음. 따라서 영상 문화 활성화를 위해 영화에 관심을 가지고, 영화를 깊이 있게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영화 교육이 중요하다 할 수 있음

- 둘째, 영화 제작 및 소비 환경의 변화에 주목. 디지털 플랫폼의 도입, 소셜 미디어를 통한 소통,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제작 및 공유, 이에 따른 저작권의 문제 등 변화하는 영화 향유 환경에 주목하고, 이에 적합한 영화 문화 확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또한 영상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수단으로서의 디지털 테크놀로지에도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디지털 상영 환경 구축을 통해 농촌 지역에서도 도시 지역에서 접할 수 있는 영상 및 예술 문화를 시의적절하게 접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영상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셋째, 중앙과 지역의 연계 및 협력을 강조함. 중앙정부 기관(대개 BFI를 통합)과 지역자치 정부, 그리고 예술 영화관 및 극장 중심의 지역 사회 커뮤니티 등의 다각적 협력과 연계를 통한 영상 문화 창출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와 같은 연계 체계와 사례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음. 이와 같은 연계는 BFI를 통한 국가보조금이나 로터리 자금의 배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BFI가 지역 정부 및 지역 영화 관계단체들과 함께 지역 영상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실행하기도 함. 또한 영화 교육이나 인력 개발과 관련하여 다양한 자원을 갖추고 있는 BFI의 프로그램을 지역 정부나 기관에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연계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음

2) 영상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랑스의 정책 사례

(CNC-지자체-문화부(DRAC) 3자간 협정 체결 정책을 중심으로)

- 프랑스는 총 인구 6,710만 명(2015년 10월 1일 기준)²⁵⁾의 강력한 중앙집중적 행정 체계를 가진 국가로서, 2015년 현재 27개의 레지옹(Région)과 101개의 데파르트망(Département), 36,700개의 코뮌(Commune), 그리고 2,600개의 연합코뮌(groupements intercommunaux)으로 이루어져있음. 2014년 프랑스 의회에서 통과된 지역행정체계 개편 법률안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프랑스 본토의 레지옹이 22개에서 13개로 축소됨²⁶⁾

25) https://en.wikipedia.org/wiki/Demographics_of_France

26) 프랑스 정부, “La réforme territoriale”, 2015년 11월 13일. 코뮌은 한국의 면이나 읍에 해당되고, 데파르트망은 군

-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영화 진흥 정책은 제1차 세계대전 이래로 부각되기 시작한 할리우드의 시장 지배 현상으로부터 자국의 영화산업과 민족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중앙정부적 차원에서 출범하기 시작하였음. 이와 함께 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이 국가 정책의 주요 이념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문화 분야에서도 문화행사와 예술가들, 그리고 문화 행정을 지역으로 분산시키려는 노력이 등장하기 시작함
- 하지만 영화·영상 분야는 타 문화 정책 분야에 비해 비교적 오랫동안 중앙집중화된 상태로 남아 있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할리우드와 경쟁할 수 있는 민족국가 차원의 영화 산업 구축이 주요 목표로 설정되면서, 국가의 정책 역량과 재정의 분산보다는 중앙집중화에 대한 요구가 더 크게 작용했던 것이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²⁷⁾
- 프랑스에서도 1959년 앙드레 말로를 초대 장관으로 문화부가 창설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문화 정책의 시행과 함께 지역 문화 분권 정책이 등장하기 시작함. 프랑스 문화 정책 지역분산의 초기 사례로 ‘문화의 집(Maison de la Culture)’을 들 수 있음. 앙드레 말로는 그의 재임 기간(1959~1969)동안 문화의 지방자치, 고급문화의 창달, 문화 민주화 등을 표방하면서 특히 문화의 탈중앙화(décentralisation)를 실현하고자 프랑스 전역의 95개 데파르트망마다 ‘문화의 집’을 건립하는 구상을 함
- 하지만 이 사업은 시설 건립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 대비 문화적 효과에 대한 논란과 함께 여전히 중앙중심적 지방분권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실패했음. 앙드레 말로는 또한 각 레지옹마다 CRAC(Comité régional des Affaires culturelles, 지역문화사업위원회)를 창설하고 이 기구로 하여금 중앙 정부의 문화정책을 지역에서 일관되게 추진하도록 위임하고자 했는데, 이 위원회는 이후 DRAC(Direction régionale des affaires culturelles, 지역문화사업국)의 창설로 발전하였고, 1969년 일드프랑스, 론알프스, 알사스, 프로방스-알프스-코트다쥐르, 코르시카 등 5개 시범지역을 시작으로, 1977년 프랑스 전역으로 확대 설치되기 시작했음²⁸⁾
- 이후 프랑스의 지역 문화 정책은 ‘문화민주화’와 함께 ‘문화민주주의’에 대한 정책 기

그리고 가장 큰 레지옹은 도 수준의 지역에 해당된다. <http://www.gouvernement.fr/action/la-reforme-territoriale>

27) Ingvild Bjerkeland(2015), “The Rise of the Regions—Norwegian film policy and the new regional cinema,” Nordisk kulturpolitisk tidsskrift, 18(1), p.128.

28) 프랑스의 지역 문화 분권화 역사의 개요와 DRAC의 운영 구조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전병원(2013), 「지방분권시대의 지역영화진흥정책 연구: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정책 및 영화진흥정책 비교분석을 통하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91~94쪽.

조를 동시에 발전시키며²⁹⁾ 국가의 개입수단을 유연화·다원화하고, 행정부서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율적이면서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와 도, 시, 군 간에 협약을 맺고, 국가의 참여 또는 지원 하에 지역적 프로젝트들을 추진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오고 있음

- 특히 1982년 지역분권법 제정 이후, 레지옹에 법적 지위가 부여되고, 1986년 최초로 지자체 대표 선출을 위한 직접 선거가 치러지는 등 프랑스 지방자치제도에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동안 강한 중앙집중화 현상을 보이던 영화·영상 정책 분야도 바로 이 ‘협약 정책’을 중심으로 지역 정책을 발전시켜오고 있음
- 프랑스의 지역 영상문화 진흥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의 영화진흥기구인 CNC(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국립영화및동영상센터)와 문화커뮤니케이션부의 지역분원인 DRAC, 그리고 지역정부(레지옹) 등 이렇게 3개 행정 체계 간의 긴밀한 협력 구조로 이루어짐³⁰⁾

(1) 프랑스 지역영상문화 정책의 기본틀

: 협약 정책 (La politique convention-nelle territoriale)

- 목적: 1989년에 시작된 CNC의 지역영상발전을 위한 협약 정책은 지역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 영화 및 시청각 분야를 지역 경제 및 문화 발전의 진정한 중심축으로 만드는 것을 추구함
- 2003년까지 CNC는 레지옹, 데파르트망, 빌(ville, 시) 등과 수많은 연간 단위의 협약을 체결해왔으나, 2004년부터는 협약 체결 방식을 국가(DRAC)와 CNC, 그리고 레지옹 간에 3년 단위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지역 영상 문화 진흥 관련 주요 행정 주체인 이 3자간의 장기적 협력 관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오고 있음
- 이 3년 협약 정책은 영화·영상 분야에 대한 정책 개입이 다층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29) 문화민주화(democratization of culture)와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는 1972년 오귀스탱 지라(Augustin Girard)가 『문화발전: 경험과 정책』이란 보고서에서 문화정책의 두 가지 주요 기조로 제시한 개념으로(Girard, 1972:52-59), 이후 각국의 문화정책의 특성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화민주화가 “지배층이나 기존 가치의 사회적 확산(dissemination of Art to everybody), 즉 문화향유권의 광범위한 실현”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놓는다면, 문화민주주의는 “문화 참여권의 확대 및 심화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1960년대부터 선진국에서 추진된 문화민주화 정책이 드러낸 한계 및 민주주의의 심화로 인해 문화정책의 비중이 문화민주화에서 문화민주주의로 옮겨가고 있지만, 문화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 역할을 고려할 때 이 두 정책 기조 중 하나의 일방적 우월성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선희(2013), 「한국의 민주화와 문화 정책의 변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담론 201, 16(3), 124-125쪽.

30) 이후 내용은 CNC의 홈페이지 미션(mission) 부분에 나와 있는 지역과의 협력 사업에 대한 설명과 2009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내역, 그리고 CNC의 bilan 2014, 191-193(2015년 5월 발표)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에서,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그리고 CNC 간의 대화와 협상, 공동 사업 시행을 위한 협력의 도구로 기능하며, 이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정책 수단의 투명성, 그리고 제정의 추적가능성을 향상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된 1기 협정 기간을 통해 참여 파트너들 간에 긍정적인 균형 관계를 이룰 수 있었고, 이후 협약 체결 지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현재는 거의 모든 레지옹이 참여하고 있음. 2004-2006년의 1기, 2007-2010년의 2기, 2011-2013년의 3기를 거쳐 현재 2014-2016년까지 4기가 진행 중임³¹⁾
- 시간이 지나면서 협정문이 포괄하는 협력 사업의 범위도 점차 확대되어 오고 있음. 2004년 체결된 1기 협정문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사업 분야를 주로 다루었음
 - 첫째, 시나리오와 기획개발, 영화와 TV 제작, 촬영유치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이에 대한 예산은 해당 지역당국과 CNC의 매칭 펀드 형식으로 마련하기로 했음. 지원 대상의 선정은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한 선택지원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CNC의 매칭펀드는 CNC의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 산업에 대한 지원계정’에서 할당하기로 했음. (이 매칭펀드는 ‘지역정부 2유로에 대한 CNC의 1유로 정책(1 euro du CNC pour 2 euros de la Région)’으로 불림)
 - 둘째, 문화 확산과 예술 교육, 그리고 관객 개발에 대한 내용으로 Lycéens et apprentis au cinéma와 Passeurs d'images, 그리고 지역 영화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함.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지역 당국과 DRAC의 지역분산기금(des crédits déconcentrés des DRAC)에서 담당하며, 약 30개의 전국 또는 국제적 성격의 영화제의 경우 CNC의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 산업에 대한 지원계정’ 내의 할당액으로 충당하기로 함
- 2007년 체결된 3기 협정문에서는 영화 상영에 관한 공헌 부문이 추가됨. 취지는 영화관에 대한 CNC와 지역정부, DRAC의 기여 방식을 정교화하고 특히 극장의 디지털화에 관한 협력과 체계적인 정보교환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임
- 2011년 이후부터 도입된 네 번째 부분은 영화유산에 대한 지원 내용임. 이를 위해 지역정부와 CNC, DRAC은 10개 지역 시네마테크를 지원하는 데 합의. 또한 영화 작품들의 디지털화와 고전 영화를 포함한 영화들의 서비스 제공 및 홍보 사업을 진흥하기로 함

31) 2007년부터 시작된 2기 협정문들은 원래 2009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09년 초, 프랑가지역연합회 (l'Association des Régions de France, ARF)의 요청으로 상호 합의에 의해 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10년 말에 종료되었다.

- 2009년에 체결된 협약은 총 25개, 포함 지역은 24개 레지옹, 7개 데파르트망, 2개 도시 공동체(communauté urbaine) 등 총 33개였던 반면, 2014년 말 현재 체결된 협약서는 총 26개, 포함 지역은 25개 레지옹, 13개 데파르트망, 2개 도시 공동체 등 총 40개 지역에 달함

(2) 조직 구조

- CNC는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수행해야할 6가지 임무 중 하나를 지역 영상 정책 관련 기구들과의 협력(coopérer)으로 설정하고, CNC의 10개 부서 중 하나인 창작·지역·관객부(direction de la création, des territoires et des publics)에서 CNC의 지역영상문화 관련 정책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 지역 영상 문화 정책에서 CNC의 역할은
 - ① 지역 제작 영상물의 기획개발 및 제작 지원, 촬영유치 분야
 - ② 교육 및 문화 확산 분야
 - ③ 영화 상영 분야
 - ④ 영화유산 분야 등
- 위 4개 주요 분야로 구성된 협정문의 세부 내용을 협상하고, 협정문의 이행을 감시, 평가하며, 수정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시기 협약 체결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임
- 본 임무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CNC는 1999년부터 DRAC 내에 영화 및 TV, 비디오 등 영상 분야 담당 전문 자문관(conseiller)을 배치하고, 이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오고 있음. 전문 자문관이 없는 지역의 경우, 지역당국의 문화부서 및 지자체 대표와의 정기 접촉을 통해 해당 지역 영상 정책 수립에 관한 가이드를 제공
- 2015년 현재, 4개 해외 레지옹을 포함하여 25개 레지옹에 위치한 DRAC에서 최소 1명 이상의 영상 분야 전문 자문관을 배치하고 있고, 코르시카(colletivité territoriale)와 마요트(2011년에 레지옹으로 승격된 해외 레지옹), 누벨칼레도니(특별공동체 colletivité sui generis), 생피에르 미클롱(해외 공동체 collectivité d'outre-mer) 등 4개 지역의 문화부 대표 및 지자체 대표와 CNC가 정기적인 연락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표 59] DRAC 내 영상 분야 담당 자문관 배치 현황(2015년 11월 12일 기준)

연번	레지옹	자문 담당 분야	비고
1	알자스(Alsace)	영화/TV/멀티미디어	
2	아키텐(Aquitaine)	영화/TV/멀티미디어	
3	오베르뉴(Auvergne)	영화/TV	
4	부르고뉴(Bourgogne)	영화/TV	
5	브르타뉴(Bretagne)	영화/TV/멀티미디어	
6	상트르발드루아르(Centre-Val de Loire)	영화/TV	
7	상파뉴아르덴(Champagne-Ardenne)	영화/TV	
8	코르시카 (Corse)	지자체 대표 및 부대표와 연락	코르시카는 엄밀히 말하면 레지옹이 아니라 collectivité territoriale임
9	프랑슈콩테(Franche-Comté)	영화/TV	
10	과들루프(Guadeloupe)	영화/TV	해외 레지옹
11	프랑스령 기아나(Guyane)	영화/TV	해외 레지옹
12	일드프랑스(Île-de-France)	영화/TV	
13	랑그도크루시옹(Languedoc-Roussillon)	영화/TV/멀티미디어	
14	리무쟁(Limousin)	문화사업/영화/TV	
15	로렌(Lorraine)	영화/TV	
16	마르티니크(Martinique)	영화/TV	해외 레지옹
17	미디피레네(Midi-Pyrénées)	영화/TV	
18	노르파드칼레(Nord-Pas-de-Calais)	영화/TV	
19	바스노르망디(Basse-Normandie)	영화/TV/멀티미디어	
20	오토노르망디(Haute-Normandie)	영화/TV	
21	누벨칼레도니(Nouvelle-Calédonie)	chef de la mission과 연락	레지옹이 아니라 특별 공동체(collectivité sui generis)임
22	페이드라루아르(Pays de la Loire)	영화/TV	
23	피카르디(Picardie)	영화/TV	
24	푸아투사랑트(Poitou-Charentes)	영화/TV	
25	프로방스알프코트다쥐르 (Provence-Alpes-Côte d'Azur)	영화/TV	
26	레위니옹(La Réunion)	영화/TV	해외 레지옹
27	론알프(Rhône-Alpes)	영화/TV	
28	마요트(Mayotte)	지역 문화부 대표와 연락	해외 레지옹 (2011년에 승격)
29	생피에르 미클롱(St Pierre et Miquelon)	지자체 대표이자 지역 문화부 대표와 연락	프랑스의 해외 공동체(collectivité d'outre-mer)임

출처: CNC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Annuaire des Conseillers DRAC 121115)

- DRAC 내에 배치된 영상 분야 자문관들은 CNC의 업무 중 일부를 관할함. 그들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음
 - 상영분야에서 이들은 멀티플렉스의 서류 등록 절차를 관할하고, 영상 분야 종사자들에게 자동 지원 및 선택 지원 제도에 관한 전문적 자문과 정보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 영화관 수의 변화를 관리 감독하고, 선택 지원 대상을 심사하며, 예술실험영화관들의 지역간 회합을 주재하고 애니메이션 분야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역할 등을 수행한다
 - 지역 내에서 CNC의 창작·지역·관객부에서 담당하는 문화 정책의 시행과 감독을 담당한다. 영화제, 공교육과 연계된 교육 활동(Lycéens au cinéma, Collège au cinéma, Ecole et cinéma 등) 및 방과후 교육 활동(Passeurs d' Images), 지역 영상전문교육기관, 지역 당국과의 협력 및 협약 체결 담당이 여기에 해당한다
 - 지역당국과의 협약체결의 일부로 진행되는 영화 창작 및 제작, 촬영 유치에 관한 CNC 지원 정책의 관리감독에 일조한다. 그들은 지역 전문가 위원회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소환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그들은 지역에서의 영화 유산 정책, 예술 교육 및 영상 전문가 양성 교육 등에 대한 감독 및 자문 임무를 맡는다
- 한편,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 창작 및 제작에 관한 재정 지원 제도 운영의 일부 혹은 전부에 관해, 지자체가 외부 조직에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도 있음. 이러한 외부조직으로 Agence régionale du Centre pour livre, l' image et la culture numérique (CICLIC)³²⁾, la Cité de l' image en mouvement d' Annecy(CITIA)³³⁾ 등과 같은 공공문화협력기구(établissement public de coopération culturelle, EPCC)나, Pictanovo³⁴⁾, le Pôle Image Haute-Normandie³⁵⁾, la Maison de l' Image Basse-Normandie³⁶⁾, l' Agence culturelle d' Alsace(ACA)³⁷⁾ 또는 l' Office regional

32) 상트르 지자체와 문화부가 공동 설립한 공공문화협력기구이다. 서적·영상·디지털문화 부문에 관한 제작지원, 교육 기관운영, 촬영 유치, 관객 교육, 연구 및 유산 보존 등의 종합적 역할을 수행한다. www.ciclic.fr/ciclic/ciclic-1-agence

33) 2006년, 앙시 시와 오토사보이 데파르트망, 론알프스 지자체, 그리고 문화부가 공동설립한 공공문화협력기구이다. 앙시애니메이션영화제를 주관하여 오던 국제애니메이션영화센터(Cica)와 멀티미디어애플리케이션플랫폼(Pumma), 이 두 단체를 합쳐 만들어졌다. 해당 지역 영상분야의 창작, 제작, 배급 지원사업을 담당한다. www.citia.org

34) 노르파드칼레 지역에 위치한 비영리 단체이다. 영화와 비디오게임, 다큐멘터리, TV 픽션, 인터랙티브 미디어 등 영상 관련 매우 폭넓은 분야에 대해 제작 지원 및 공동 투자, 교육 및 네트워킹 사업을 진행한다. www.pictanovo.com

35) 오토-노르망디 지역에 위치한 영상 단체로 영화, 방송프로그램, 사진 분야에 관한 제작지원, 촬영유치, 관객교육, 유산 보존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 www.poleimagehn.com

36) 바스-노르망디 지자체와 바스-노르망디 DRAC에 의해 2005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다. 칼바도스(Calvados), 라망

culturel de Champagne-Ardenne(ORCCA)³⁸⁾ 등과 같은 민간단체가 있음

- 또한, 프랑스영화위원회(Film France)와 40개 지역영상위원회는 영상 전문 인력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영화 촬영 로케이션 및 잠재적 로케이션에 관한 정보 제공, 기술 인력과 배우, 엑스트라에 대한 고용 정보 제공(대부분의 지역영상위원회에서는 배우들의 캐스팅 오디션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있음), 행정 절차 지원, 촬영허가 지원, 다양한 운송/이동 관련 정보 제공(차량 렌탈 및 숙박 등), 제작 사무실 제공, 서류작업지원, 언론 및 지역당국과의 관계 지원 등

(3) 예산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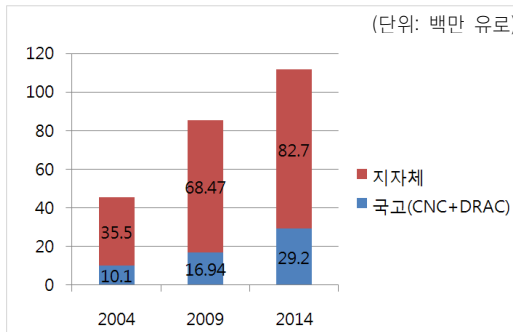
- 3년 협정서에 체결된 내용에 따라 해당 지역정부와 CNC, 그리고 DRAC는 매년 자신들의 투입 예산을 명시하는 재정 이행 협약을 체결함
- 협약문을 통한 CNC의 직접 지원 방식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 이루어짐
 - 첫째, CNC와 레지옹은 시나리오 및 기획개발, 뉴미디어작품제작, 단편영화제작, 장편영화제작, TV 제작 분야 등 각 지원 유형의 지원 총액을 공동으로 결정
 - 둘째, 시나리오 및 기획개발과 뉴미디어 분야에 대한 CNC의 지원액은 지역정부가 투입하기로 한 예산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할당함. 그러나 장편영화와 TV제작 지원, 단편영화제작 지원 분야는 “지역정부의 2유로에 대한 CNC의 1유로 정책” 규정이 적용됨.(단 이들은, CNC의 승인을 받은 작품이거나 CNC의 TV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작품들이어야 함)
 - 셋째, CNC의 재정적 기여는 한 협약서당 연간 2백만 유로로 한정
 - 넷째, 지역 촬영유치사무소(또는 ‘지역영상위원회’)도 운영 초기 3년 동안 재정 지원 혜택을 받음
- 지난 10년간 국고 투입예산(CNC+DRAC)은 2004년 10.1백만 유로에서 2014년 29.2백만 유로로 190% 증가하였음. 같은 기간 지자체의 지출은 35.5백만 유로에서 82.7

슈(la Manche), 오른(l'Orne) 데파르트망과 카엔(Caen) 시의 지원을 받으며, 영화와 방송프로그램 분야에 관한 제작지원, 예술 및 기술 교육, 관객 교육, 촬영 유치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www.maisondelimage-bn.f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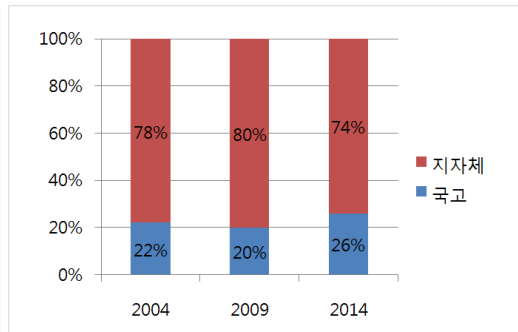
37) 알자스 레지옹과 바-랭, 오-랭 데파르트망, 그리고 알자스 DRAC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 단체이다. 공연예술, 영화, 영상, 현대 시각예술(FRAC Alsace) 분야에 대한 제작지원, 촬영유치, 예술 및 기술 교육, 관객 교육 등의 사업을 한다. www.culture-alsace.org

38) 샹파뉴아르덴 지역에 위치한 민간단체로 1983년부터 주정부로부터 지역문화정책 전반에 관한 시행을 위탁 담당해왔다. 2009년 이 지역에 DRAC이 설립되면서 ORCCA으로부터 시각 예술, 공연예술, 영화, 음악, 유산관련 사업들을 이관해왔고, 2015년 1월부터는 주정부에서 직접 서커스, 인형극, 현대음악, 그래픽 분야에 관한 문화사업을 주관하기로 했다. 출처: 샹파뉴아르덴 주정부 사이트 <https://www.cr-champagne-ardenne.fr/Decouvrir/Culture/Pages/orcca.aspx>

백만 유로로 133% 증가하였고 모든 주체의 투입예산을 종합하면, 2004년 45.6백만 유로에서 2014년 112.0백만 유로로 146% 증가하였음



[그림 13] 프랑스 2004-2014 지역영상예산



[그림 14] 프랑스 지역영상예산 분담 비율

- 2004년 지역 창작 및 제작 분야를 대상으로 도입된 “지자체의 2유로에 대한 CNC의 1유로” 정책과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의지 덕분에 지역영상 분야에 대한 투자 금액이 상당히 증가함
- 2009년, 25개 협약문에 투입된 총 예산은 85.41백만 유로(이 중 CNC가 부담한 금액은 16.94백만 유로)인데, 2009년 세부 예산 집행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60] 2009년 CNC와 지역정부의 지원금 집행내역

(단위: 백만 유로)

구분	시나리오 및 개발	단편영화 제작	장편영화 제작	텔레비전	촬영유치	교육과 문화 확산, 유산보존	계
CNC(중앙)	0.22	2.14	6.03	6.12	0.04	2.39	16.94
지역정부	2.38	4.41	20.06	12.86	2.68	19.12	61.51
DRAC	—	—	—	—	—	6.96	6.96
계	2.60	6.55	26.09	18.98	2.72	28.47	85.41
비중	3.0%	7.7%	30.5%	22.2%	3.2%	33.3%	100%

- 이 중 DRAC는 교육과 문화 확산, 유산보존 부문에 대해서만 예산을 할당하는데, CNC로부터 받은 재정 위임 등을 통해 2009년 DRAC가 영상분야에 대해 할당한 총 예산은 1천만 유로이며, 세부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청소년 대상 영상 예술 교육에 3.4백만 유로(Ecole, Collège, Lycéens au cinéma 등과 같은 학교 연계 영상 교육, 고등학교에서의 영화 선택 과목, 기타 훈련 및 인식개선 사업 등)

- 지역 영상전문교육기관에 6십만 유로(13개 지역)
- “Passeurs d'Images” 사업에 1,2백만 유로
- 문화 확산 사업에 2,5백만 유로(지역영화제, 예술영화배급네트워크, 지역영상문화 관련 단체들)
- 지역 영화유산기관 지원에 1,3백만 유로(리옹에 있는 뤼미에르인스티튜트 Institut Lumière, 툴루즈에 있는 툴루즈 시네마테크 등)
- 기타 지역당국과의 연계 활동에 1백만 유로

[표 61] 2009년 DRAC의 영상분야관련 지출 내역

(단위: 백만 유로)

사업	청소년대상 영상 교육	지역영상전문 교육기관	Passeurs d'images	문화 확산	지역영화 유산기관	기타 지역 당국과의 협력사업	계
금액	3,4	0,6	1,2	2,5	1,3	1,0	10,0

- 2014년 26개 협약서에 투입된 지역영상예산 총액은 1억 1천 2백만 유로임. 이 중 CNC가 투입한 예산은 창작제작지원 부문에 15,3백만 유로, 영화제 및 지역영화아카이브에 5,7백만 유로 등 총 21,0백만 유로이고, 지역당국이 투입한 예산 총액은 82,7백만 유로, DRAC가 투입한 예산 총액은 8,2백만 유로임

[표 62] 2014년 CNC와 지역정부, DRAC의 지원금 집행내역

(단위: 백만 유로)

	시나리오 및 개발		제작				촬영 유지	교육과 문화확산, 유산보존	지역 영화관 디지털 전환지원	계
	영화 및 TV	뉴 미디어	뉴 미디어	단편 영화	장편 영화	TV				
CNC(중앙)	0.1	0.1	0.1	2,2	5,8	6,9	0.03	4,1	1,67	21
지역정부	3.6	0.8	0.2	4,3	19,8	14,7	6,0	25,1	8,2	82,7
DRAC	—	—	—	—	—	—	—	8,2	—	8,2
계	3,7	0,9	0,3	6,5	25,6	21,6	6,0	37,4	9,87	112
비중	3,3%	0,8%	0,26%	5,8%	22,8%	19,3%	5,3%	33,4%	8,8%	100%

- 2014년 DRAC가 영화, 시청각, 멀티미디어 분야에 할당한 예산은 총 8,7백만 유로 임. (이중 DRAC와 CNC, 지자체가 맺은 3자 협정문의 이행에 투입한 예산은 8,2백만 유로) 예산의 세부 집행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청소년층 대상 교육 사업에 3,3백만 유로(학교의 연계 예술교육: Ecole, Collège,

Lycéens et apprentice au cinéma 등과 같은 학교 연계 교육, 고등학교 내에서 영화선택과목, 기타 교육 사업)

- 지역 영상전문교육기관에 0.8백만 유로(14개 지역에 위치)
- Passeurs d'Images에 1.0백만 유로
- 문화 확산 지원에 2.5백만 유로(지역영화제, 예술영화배급네트워크, 지역영상문화 관련 단체들)
- 기타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에 1.1백만 유로

[표 63] 2014년 DRAC의 영상분야관련 지출 내역

(단위: 백만 유로)

사업	청소년대상 영상 교육	지역영상전문 교육기관	Passeurs d'Images	문화 확산	기타 지역 당국과의 협력사업	계
금액	3.3	0.8	1.0	2.5	1.1	8.7

- CNC는 2008년부터 DRAC에 위임했던 약 30개의 전국 및 국제적 성격의 영화제에 대한 지원 업무(총 1.5백만 유로에 해당)를 다시 직접 맡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지역영화도서관에 대한 지원사업(총 1.8백만 유로에 해당)도 다시 담당하고 있음. (뤼미에르 인스티튜트, 툴루즈 시네마테크, 브르타뉴 시네마테크, 그레노블 시네마테크, 트라픽 이미지(Trafic Image), 장 비고 인스티튜트 등)

(4) 대표 사업

기획개발 및 제작 지원, 촬영유치 사업

- CNC-지자체-DRAC 이 3자간 협약을 통해 조성된 지역 영상 발전 예산에서 지자체가 각 사업부문에 할당하는 예산의 비율을 보면 타 분야에 비해 기획개발 및 제작 지원, 촬영유치 부문에 비교적 높은 예산을 책정하는 것을 볼 수 있음
- 2009년의 경우 지자체가 각 사업 부문에 할당한 예산은 기획개발-제작-촬영유치 부문에 총 예산의 69%, 나머지 부문에 31%를 할당하고 있음. 2014년의 경우 이 비율은 지역 영화관 디지털 전환 사업에 10%의 예산이 할당되면서 60% 대 40%로 변화함
- 반면, CNC와 DRAC를 합친 국고 예산은 2009년의 경우 기획개발-제작-촬영유치 부문과 나머지 부문에 대한 예산 할당 비율이 61% 대 39%였다가 2014년에는 52% 대 48%로 변화하며 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균등한 예산 배분을 보여줌. 이를 통해 지역에서의 영상물 제작 및 촬영 유치에 대한 지자체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음

- 지역 제작 영상물에 대한 기획 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은 2004년 장편영화제작에 적용한 것을 시작으로, 2005년 TV영상물, 2006년 단편영화로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해왔으며 현재는 뉴미디어 작품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
- 지역정부로부터 창작 및 제작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내에서 일정비율 이상 촬영을 진행해야 하고 현지의 인력과 기술을 사용해야 함
- 지역 내 요구되는 촬영비율은 각 지역마다 다르지만 통상 전체 분량의 25%에서 60%까지 요구됨. ‘지자체 2유로에 대한 CNC 1유로’라는 매칭 펀드 정책에 힘입어 프랑스 주도 영화의 총 제작비에서 지역의 영화제작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차츰 증가해오고 있음
- 장편영화의 경우, 2002년 프랑스영화의 총제작비 대비 지역 제작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했으나, 2003년 1.1%, 2004년 1.2%를 거쳐 2010년에는 2.0%까지 증가함. 이는 총액으로만 볼 때 그리 큰 비중은 아니지만, 프랑스에서 연간 제작되는 “영화 500~600편 중 저예산 영화를 중심으로 제작편수의 절반 정도가 지역펀드의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³⁹⁾ 이 사업이 가지는 효과를 영화 제작 다양성의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각 지역정부에서는 영화 촬영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벌이고 있는데 이를 위해 지역정부에서는 제작지원제도의 운영과 함께 지역영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을 지원함. 프랑스의 지역영상위원회는 전국 26개 레지옹에 총 4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2010년 기준 “25개 지역 34개의 영상위원회가 CNC와 협약을 통해 협력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음⁴⁰⁾

영상 교육 프로그램

- 프랑스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미래의 TV 시청자이자 영화관객으로 설정하고 영화 및 TV 분야에 대한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음
- 대표적인 영상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교 교육 시스템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École et cinéma와 Collège au cinéma, Lycéens au cinéma가 있음. 이들은 각각 초등학교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영화 입문 교육 프로그램으로, 상호교류적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의 영화관에 대한 인식 및 영화예술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도입되었음
- 이 프로그램들은 참여를 원하는 학교 및 영화관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참여가 이

39) 김미현(2013). 「지역의 영상정책 사례: 한국과 프랑스의 지역협력형 사업을 중심으로」, 영상예술연구. 22호, 320쪽.

40) 위의 글, 318쪽.

루어지며, 주요 교육 형태는 문화적 다양성이 내재된 고전 및 현대영화들을 영화관에 찾아가 관람하고 이에 대한 수업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며, 교사와 학생들을 위한 교육 자료들도 발간됨

- École et cinéma는 1994-1995학년도에 도입되었는데, 전국적 차원의 사업의 시행과 평가, 그리고 교사 및 학생들을 위한 교육 자료의 제작 및 발간은 CNC와 교육부의 공조 하에 영화어린이협회(Association “Les enfants de cinéma”)에서 주관하지만, 지역적 차원으로 내려가면 해당 지역의 DRAC와 지역 협력 기관 및 교섭담당자들이 사업의 시행을 관리 감독함
- 중앙 정부의 교육부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운영에 참여하는 교사들을 위한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며 지역 교육 당국에서 각 사업의 운영을 감시하고, DRAC에서 임명한 지역 코디네이터가 CNC와 영화배급업자, 지역영화관 등과의 협조 하에 필름 상영본의 유통에 관한 기술적, 운송적 사항을 담당하고 예산을 집행함⁴¹⁾
-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École et cinéma 영화들의 목록은 1년에 2회 진행되는 선정작업을 통해 매년 새롭게 발표되는데, 영화 선정 작업은 CNC가 임명한 위원장 1명과 교육전문가 10명, 영화전문가 10명 등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짐
- 2015-2016학년도 목록은 장편영화 65편(특히, 스피버그의 <E.T>, 트뤼포의 <400번의 구타>, 채플린의 <키드>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음), 단편영화 2편, 총 59편의 단편영화가 들어있는 단편프로그램 13개 등 문화적 다양성이 내재된 고전 및 현대영화들로 구성되어 있음
- 2013-2014 학년도에 École et cinéma 영화는 46개 순회상영관을 포함 전국 1,200개 이상의 영화관에서 상영되었고, 전국 5,500개 코뮌, 96개 데파르트망, 25개 레지옹에 위치한 10,900여개 초등학교에 속한 762,375명의 초등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음. 이는 프랑스 전체 초등학생의 11.55%에 해당하며 이 사업으로 인하여 2,012,063명의 영화관 유료 입장객이 발생되었음⁴²⁾
-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Collège au cinéma는 영화교육 프로그램 중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인 1989년에 도입되었음. 이 사업은 중앙부처인 문화커뮤니케이션부와 교육부, 그리고 지역정부, 영화인(영화상영업자 및 배급업자) 등 이 4개 주체 간의 주요 파트너십 하에 CNC의 주관으로 추진됨⁴³⁾

41) www.cnc.fr/web/fr/ecole-et-cinema

42) 김준덕(2015). 「프랑스 영화의 지원정책」. 한국영화평론가협회 주최<영상문화 환경 개선과 관객 지원정책을 위한 포럼>

- 영화관에 상영되는 Collège au cinéma 영화는 대부분이 이미 예술/실험 영화들로 추천된 영화들인데 학생들에게 영화문화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반드시 오리지널 버전(언어, 필름규격 등)의 영화형태로 상영됨. 단, 외국영화의 경우에는 프랑스어로 자막이 삽입된 형태로 상영되는데 이와 같은 영화에 대한 자막작업 비용과 새 프린트제작 비용은 전액 CNC가 책임짐
- 영화 상영은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이루어지는데 영화관의 입장료는 2.5 유로로 고정되어 있음. 2013-2014학년도에 상영된 Collège au cinéma 영화는 총 58편으로, 19편은 프랑스영화, 14편은 유럽영화, 12편은 미국영화, 11편은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외국국적의 영화 그리고 2개의 프랑스/외국 단편영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⁴⁴⁾ 2012-13학년도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학생 수는 93개 데파르트망에 거주하는 438,568명이었고, 1.11백만 명의 유료 입장객이 발생되었음⁴⁵⁾
- 문화/예술적으로 양질의 영화를 영화관에서 1년에 최소 3회 이상 관람하게 함으로써 고등학생들이 영화문화에 입문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고안된 Lycéens et apprentis au cinéma 프로그램은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기존의 영화교육 프로그램들을 보충하는 성격임
- Lycéen au cinéma 프로그램은 기존의 영화교육 프로그램과 달리 해당지역 차원에서 고안, 주도하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 즉, 고등학생들과 전문영화인들과의 만남이나 토론 모임 주선, 해당지역의 고등학생에게만 특별할인된 요금으로 방과후의 개인적 영화관람 장려 등을 통하여 해당지역 고등학생들이 주어진 영화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나름대로 표출해낼 수 있는 영화적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음⁴⁶⁾
- 2012-13년도 참여 고등학생 수는 26개 레지옹 276,855명이었고, 686,767명의 유료 입장객을 발생시켰음
- 이상 2012-2013학년도 기간 동안 학교 연계 영상 교육에 총 1,487,114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이는 프랑스 전체 학생 수의 12.3%에 달함. 이로 인해 발생한 극장 입장료 수입은 총 3.79백만 유로임⁴⁷⁾

43) www.cnc.fr/web/fr/college-au-cinema

44) 김준덕, 위의 글.

45) CNC(2015), bilan 2014, p. 193.

46) 김준덕, 위의 글.

47) CNC(2015), ibid., p. 193.



V

KOREAN FILM
COUNCIL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방안

1.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 정책의 기본 방향
2.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달
체계 수립 방안
3. 영상문화 공동체 활성화 방안
4. 학교 영상문화교육 활성화 방안
5. 지역 영상문화 기반시설 강화
6. 시민 영상제작 활성화
7. 영상문화 소외계층 영상문화 활성화 방안
8. 향후 과제 및 제언

1.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 정책의 기본 방향

1) 영상 관련 균형발전의 원칙

- 한국의 영상 분야 관련 정책은 산업적 측면에 치우쳐져 왔으며 이는 현재의 관련 제도, 예산 배분 구조, 사업 영역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
- 그 결과 영상산업과 문화간 불균형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상의 산업적 기반이 풍부한 서울-수도권, 부산 등 일부 지역과 영상산업의 성장기반이 미약한 지자체 간의 영상 분야 전반에 걸친 지원구조의 불균형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산업적 경쟁력을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임. 산업은 특성상 풍부한 시설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집중을 통해 그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현재 영상산업이 발전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자본, 시설, 인력의 집중투입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 이를 위해서는 중앙 차원에서 영상관련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비전 수립과 천명을 통해 주요한 정책대상으로 다뤄지게 할 필요가 있음

2) 시민문화권에 기반한 생활문화로서의 영상문화 진흥

- 한국사회의 경제수준 및 생활수준의 향상은 문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의 요구로 이어지고 있음
- <문화기본법>에 따른 ‘문화권’, <국민여가생활기본법>에 따른 ‘여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생활문화’는 모두 이런 시대적 변화를 담고 있는 것으로 관련 법들이 강조하는 생활권 문화활동은 향유, 창조, 참여 등 다양한 영역으로 전개될 것임
- 현재의 영상정책은 대부분 산업진흥에 기반하고 있으며 최근 미디어센터 등을 통한 시민미디어교육, 작은영화관, 작은영화제 등을 통한 향유 확대가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 주요한 정책 대상으로 다뤄지고 있지 않으며 예산과 사업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 특히 영상의 산업적 기반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영상문화 관련 활동도 부진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중앙 차원에서 생활권 영상문화와 관련한 파일럿 사업들을 제시하여 지자체의 관심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시민문화권에 기반한 생활권 영상문화 활성화가 지방정부의 주요한 정책영역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미디어센터, 작은영화관 등 생활권 영상문화관련 시설들을 생활문화시설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지원예산 다각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함

3) 문화자치의 원칙에 따른 중앙-광역-기초의 역할 분담

- 영상문화 전반에 관한 비전은 중앙 단위에서 제시해야겠지만 광역과 기초지자체에서 이에 따른 고유의 미션을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함
- 앞서 언급했듯이 영상문화진흥 정책 도입 초창기에는 중앙에서 영상문화의 정책사업 영역을 정리하고 이에 따라 현재 가능한 정책대상과의 협의를 통한 선제적인 플랫폼 사업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이는 현재의 지역 역량이 독자적으로 영상문화정책사업을 끌고 갈만한 여건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임
-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문화자치의 관점에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고유미션과 사업들을 정리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함. 따라서 플랫폼 사업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 첫째, 지역민들에게 영상문화활동에 대한 구체적 상을 알릴 수 있는 사업
 - 둘째, 지역의 자생적 영상문화활동 역량을 배가시킬 수 있는 사업
 - 셋째, 지역 영상문화정책 기획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
- 현재의 지자체 행정구조에서 담당하기 벅찬 지역 영상문화활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현재의 사업구조를 중심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안에서도 광역과 기초 단위의 사업영역은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나뉘어져야 함. 광역이 활동 지원과 시설인프라 중심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가져간다면 기초에서는 시민영상향유권과 미디어교육 등에 중점을 뒀야 할 것임

4) 거버넌스를 통한 효율적이고 개방적인 활동의 지원

- 기존의 시민 영상문화활동이 갖고 있는 역동성과 자율성을 감안했을 때 지원구조의 개방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임. 또한 지역의 다양한 영역이 영상문화관련 정책사업에 접근할 수 있어야 폭넓은 예산확보가 가능해지고 자원활용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지역 영상문화란 테마 속에 포함되는 다양한 요소들, 예컨대 지자체, 산하 지원기관, 영화제, 비영리 영상활동단체, 지역영화인을 포괄하는 개방적 거버넌스 형태의 네트워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현재의 상황에서 지역문화재단이나 영상위원회 등 특정기구로 지역의 영상문화활동에 대한 지원을 일률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특히 지역문화재단의 경우 광역 단위에서도 설립이 모두 이뤄진 것이 아니며 기초 단위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게다가 대부분 설립 초창기의 진통을 겪고 있거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음
- 영상위원회 역시 대부분 산업 영역에서 출발하여 영상문화 활동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보기 힘들
- 오히려 특정 기구를 통한 지원체계 수립 보다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유관기관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영상문화활동에 대한 구체적 상을 지역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이 필요함

2.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달 체계 수립 방안

1) 지역영상문화 전달체계 모델⁴⁸⁾

(1) 지역문화재단 안에 영화 관련 파트 마련(프랑스 모델)

- 프랑스는 지역문화사업국 안에 CNC에서 파견한 영화담당자들이 있으며, 각 지역에서 영화담당자를 직접 임명하기도 함. 이들은 CNC와 문화커뮤니케이션부와의 소통 및 정책조절을 담당
 - 지역문화사업국은 지역문화정책과 영화정책 사이의 간극을 조정하고 집행.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각 지역 문화재단에 영화담당관을 파견하고, 그 담당관을 통해 지역영화인들과의 소통과 조정을 통해 지역영화 진흥정책을 수행하게 하는 방식
 - 이런 방식은 지역으로 파견된 담당관이 지역 상황과 사정에 맞는 정책을 입안·시행하기가 어렵게 됨. 따라서 프랑스도 그 지역 관련자를 지역문화사업국의 추천을 받아 지역 담당관으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문제점을 보완
- ☞ 그러나 한국의 경우 지역문화재단의 위상이나 역할 자체가 아직 수립되어가는 단계이며 일부 재단들이 미디어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 문화재단의 전반적인 사업구조 안에서 영상(영화) 분야가 제대로 자리잡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임.

48) '지역영화진흥정책 방안', 전병원, <2015 지역독립영화협회 및 지역독립영화계 네트워크 포럼 자료집>, (사)전북독립영화협회, 2015.

현 단계에서 지역 문화재단에 영상문화관련 사업을 전임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음

(2) 지역별 독자 조직체계 설립

- 각 지역 영화 관련 단체들을 통합한 광역단위 지역영화진흥원을 설립
- 각 지역에 있는 미디어센터, 영상위원회, 독립영화협회, 각 영화제 조직위원회 등을 하나로 통합한 ‘지역영화진흥원’을 설립하고 영화진흥위원회와의 정책 조정 및 예산 지원을 받는 것
- ☞ 광역단위 영화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은 관련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현 단계에서 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자칫 지역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규모가 더 커져야 가능성이 있음

(3) 영화진흥위원회 지역 분원 설립

- 영화진흥위원회가 광역단위 분원을 설립·운영하는 방안(현재 영화진흥위원회의 예산 범위 안에서 실행되기가 불가능)
- 각 지역 광역단체별로 설립이 어렵다면 통합분원을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
- 이러한 권역별 분할은 현재 한국 영화산업 규모 현황에서 각 분원별 편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 각 분원들 간의 인구수, 관객수, 관객점유율, 극장매출점유율 등의 격차를 최소화
- 각 분원별 해당 지역에 이미 영상위원회, 산업진흥원, 국제영화제 등 영화·영상 관련 유관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각 지역이 지니고 있는 영화촬영소, 세트장, 기자재, 인력 등 영화 인프라의 균형에도 큰 무리가 되지 않음
- 지역별 문화특성화를 추구하는 지역문화정책의 기조로 인한 갈등 또한 극복해야 할 문제
- ☞ 영진위가 지역 분원 개념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영진위와 중앙 정부(문화부)와의 관계, 기금과의 관계들이 모두 재정립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현실적 추진이 어려움

2) 대안: 지역 영상문화 협력네트워크 구성

- 현재 지역 영상문화 사업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사업별로 다양한 형태의 실행조직과 지원주체들이 작동하고 있음

- 앞서 기본방향 설정에서도 언급했듯 현재는 일률화된 사업 추진 체계를 만들기에는 지역영상문화활동 자체가 지역별로 불균등하며, 지역의 기관이나 시설 역시도 비균질적임. 또한 수혜 대상인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영상문화활동에 대한 구체적 경험이나 상이 부족함
-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일관된 추진 체계를 갖춰갈 필요가 있겠으나 현 단계에서는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지원, 추진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가 유리하며 이 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영상문화 활동의 장을 점진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임
- 다양한 지역 영상문화 관련 기관, 단체 중 특정 형태의 조직, 예를 들어 문화재단이나 영상미디어센터, 영상위원회, 지역문화산업진흥원 중 하나의 형태를 선택하여 지원 영상문화 전달체계를 전담하게 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음. 오히려 다양한 지원 및 실행 주체들의 협력 네트워크를 지역 특성에 맞게 구성하게 하고 이들의 협업과 선의의 경쟁을 기반으로 한 자원 배분구조를 만드는 것을 제안함
- 중앙 단위에서도 영진위와 문화부, 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에 흩어져 있는 영상문화 관련 사업들의 협력 관계를 만들고 이에 대응하는 지역단위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통합적인 사업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함
- 이 협력네트워크 구조를 통한 활동을 통해 다음의 과제들을 연차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임

① 영상문화 정책 수립

- 영화산업 정책이 아닌 영상문화 정책 수립
- 영상문화 분야가 산업적 측면만이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서 우선 고려되는 문화예술 분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
- 지역 영상문화 전반에 대한 현황 파악, 그에 따른 지역 내 영상문화 활성화 추진 방안 마련
- 지역 내 영상문화 관련 기관, 주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 및 연계가 전제되어야 함

② 지역 단편/독립 영화 제작지원 사업 확보 및 확대

- 지역을 기반으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인력 확보
- 지역 영상 주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구조 마련
- 마을 영화 제작 등 마을주민이 만들거나 공동 제작하는 새로운 형태의 영화제작 활동 활성화

③ 대안 영상문화 공간 확대

- 대안상영관: 예술영화전용관, 독립영화전용관 등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상영관 설립 확대
- 지역특성에 맞는 영상문화공간이 조성되어야 함

④ 지역 영상문화교육 종합적 계획 수립

- 지역별 영화전문교육기관의 특성화 및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아카데미 지역 분산 배치
- 기존 영상미디어교육, 문화예술교육과의 협력 및 연계
- 청소년 및 다양한 계층 대상의 영상문화교육 활성화

⑤ 대안적 상영/배급 지원정책

- 예술/독립 영화관 운영 지원 확대
- 공공적 성격의 극장에 대한 세금혜택
- 작은영화관 및 지역 단관 예술독립영화관의 체인화: 대안적 상영배급 방안 모색
- 지역 영화제작 결과물 공동 배급의 필요성: 지역 영화제작자와 주민이 만든 영화 아카이빙 및 배급
- 비영리 또는 공공적 성격의 극장이 상영할 수 영상아카이브 운영: 상영권 확보 및 홍보 지원

⑥ 민간영역의 영상문화 단체 또는 모임 지원

- 현재 공공문화 시설 중심으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의 영상문화 관련 예산 중 민간영역에 대한 예산 책정이 적음. 지역주민의 자발적 모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정책 필요

⑦ 영상문화 전문 인력 양성과 지역 배치

- 지역에서 영상문화를 전문적으로 기획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예술행정가가 필요함.
- 지역 영상문화 인력에 대한 지원 필요: 지역 영상문화 활동가의 활동 보장을 위한 지원 정책 필요

⑧ 영상문화 관련 장비 및 시설 지원 확대

- DCP 같은 고가 영사시스템 지원 사업
- 지역에서 단편/독립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설 구축

⑨ 다른 정부 정책 사업과의 연계 방안 모색

- 도시재생사업과 마을공동체사업 등에서 영상문화가 지역 주민과 만나는 프로그램으로 연계되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필요성이 제시 되고 있음

⑩ 영화발전기금의 지역 분산 방안

-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영화제작 인프라와 인력을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효과에 대한 연구

3. 영상문화 공동체 활성화 방안

1) 영상문화 공동체의 정의

- 영상문화에 대한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영상 제작, 감상, 상영 등 문화예술적 활동을 하는 단체, 조직, 동호회를 말함

2) 영상문화 공동체의 유형

- 작은영화제: 마을, 계층(여성, 장애인, 청소년), 주제(인권, 추억)에 대한 상영프로그램을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소규모 영화제
- 대안상영 공동체: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상영활동을 하는 단체 및 조직
- 시민 영상문화 동호회: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작은영화관 등 영상문화기반시설의 교육수료생 또는 자발적으로 형성된 시민 동호회로 영상제작, 영화감상, 상영활동을 주로 하는 소모임
- 독립/예술영화 관련 단체: 지역에서 독립/예술 영화를 제작, 상영, 정책 활동을 하는 단체
- 영상문화 관련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민간 영역에서의 지속가능한 영상문화 활동의 새로운 모델로 등장
- 영상문화 관련 네트워크: 영상문화 공동체 간의 네트워크로 공동 사업 실시, 연대협력의 관계를 가짐.

3) 영상문화 공동체 활성화 정책 방향

- <지역문화진흥법> 및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따른 시민의 영상문화 진흥 및 여가활성화 정책 수립
- 영상문화 공동체 발굴-형성-성장-확장: 지역 내 영상문화 공동체가 자생적으로 형성되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전제로 정책 수립 및 실행
- 공공성을 기반으로 다양하고 독립적인 영상문화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영상문화공동체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 수립 방안 의견 수렴 및 실행 방안 논의
- 지역 단위의 영상문화 공동체 네트워크 조직: 영상문화 공동체 간에 협력하고 연계할 수 있는 연대 구성, 정보와 인력 공유 그리고 영상문화 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 영상문화 공동체 활동 아카이빙: 시민의 영상문화 활동을 발굴해내고 새로운 모델과 활동 내용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영상문화 공동체 활동에 대한 기록-평가 및 의미화-축적-공유의 과정이 필요함

4) 지원 내용

- 소규모 인원 대상의 상영 공간 및 장비 지원(대안 상영공간 활성화 지원)
 - 대안 상영공간 모델 개발: 기존 대안상영공간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대안 상영공간의 특성과 상영 활동의 모델 개발
 - 50명 이하의 인원 대상으로 공동체 상영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 내 활용 가능한 공간 제공
 - 대안상영 공간(카페, 협동조합 사무실, 시네마테크 전용관 등) 및 상영장비 구축 지원
 - 지역 단위로 상영장비를 대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영상문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다양성 영화 관객 개발을 위한 영화 읽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시민 영상문화 동호회 관련 활동(영상제작, 감상, 상영 등) 체계화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실시
- 지역 단위 시민영상문화동호회 활동 지원
 - 동호회 자체 활동을 위한 예산 지원
 - 모임 공간 및 장비 시설 지원

- 동호회 활동에 대한 자문 지원
- 영상문화 전문 인력 양성 및 활동 지원
 - 독립/예술/시민 영화 제작을 위한 전문 영상제작 인력 양성 교육 실시
 - 지역을 기반으로 시민이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장비, 시설, 자문 지원
 - 영상문화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실시
 - 시민과 함께 영상문화 활동을 개발하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영상문화 전문 인력 활동 지원
- 지역 단위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확충
 - 영상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영상미디어센터 조성
 - 기존 영상문화기반시설 및 지원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영상문화 공동체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 지역 단위의 영상문화활동 네트워크 조직 및 공동사업 개발
 - 영상문화 공동체 간의 협력-연계를 통한 활성화 추진
 - 일상적 네트워킹을 통한 현황 파악 및 점검(아카이빙) 그리고 필요 지원 정책 도출
 - 영상문화 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공공성 보장과 다양성 그리고 독립성 확보를 위한 체계 수립

4. 학교 영상문화교육 활성화 방안

1) 영상문화교육의 정의

- 영상 미디어(영화를 포함한 사진, 방송, 애니메이션, 다양한 멀티미디어 장르로 확장)를 읽고 쓰고 나누는 것에 관한 교육. 영상 미디어에 대한 이해, 영상 미디어 콘텐츠 비판적 읽기, 영상 미디어로 자기를 표현하는 창의적 콘텐츠 제작, 영상 미디어로 사회적 소통, 영상 미디어로 자기 생각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교육

2) 학교 영상문화교육 모델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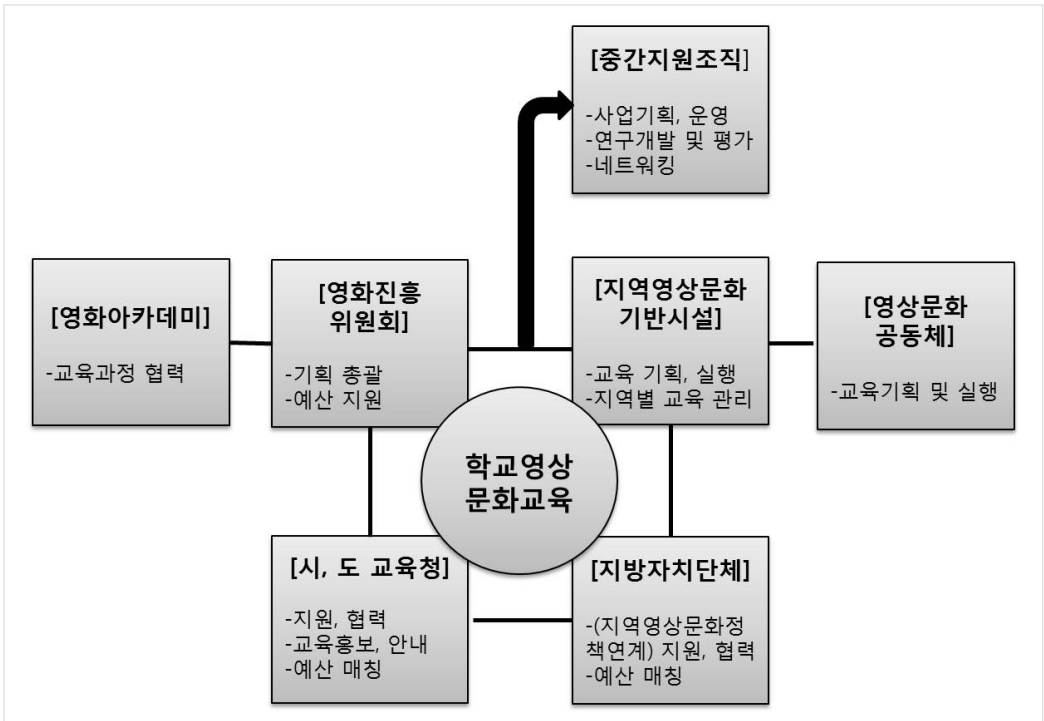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학교 미디어교육 현황, 경기도와 전라북도 학교 교사 대상 학교

미디어교육 실태 조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지원사업 실태 조사를 근거로 학교 급별 영상문화교육 모델을 제안하고자 함

- 교과 연계 영상문화교육: 초등학교
 - 초등학교 정규교과 내 영상문화교육 도입
 - 학교 교사가 직접 운영하는 모델
- 자유학기제 영상문화교육: 중학교
 - 2016년부터 전국 중학교에서 실시되는 자유학기제 과정 내 도입
 - 학교 교사와 영상문화교육 전문 강사의 팀티칭 모델
 - 학교 교사가 직접 운영하는 모델
- 영상문화 전문과정 교육: 고등학교
 - 특기적성 교육 또는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한 영상문화 장르별 전문교육 실시
 - 영상문화 교육 전문 강사가 운영하는 모델

3) 학교 영상문화교육사업 추진체계

- 영화진흥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영상문화기반시설,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영상문화 교육 기획과 운영의 역량이 있는 영상문화 공동체는 지역 영상문화 기반시설과 함께 지역 내 학교 영상문화 교육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음
- 한국 영화아카데미는 그동안 엘리트 중심으로 성인 대상 영화전문 교육을 실시해 왔는데, 관련 교육방향과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 영상문화 전문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을 제안. 특히 고등학교 영상문화교육 모델은 국내 영상문화교육에서 부재한 청소년 대상의 전문교육과정의 내용을 새롭게 만드는 것으로 의미가 있음. 향후 한국영화아카데미의 청소년 영화학교 설립의 필요성 검토 필요
- 중간 지원조직은 영상문화교육과 학교교육의 전문가, 영상문화교육 기획자 및 교사들로 구성하여 학교 영상문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지역별 학교 영상문화 교육 추진체계를 만들어가는 역할 담당. 영화진흥위원회가 직접 사업을 실행하기보다는 전문 기관 위탁 또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운영단을 만드는 것을 제안



[그림 15] 학교 영상문화교육사업 추진체계

4) 학교 영상문화교육사업 운영안

- 교과 연계 영상문화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 학교교사,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문가, 영상문화교육 전문가 등으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교육프로그램과 교재 개발
 - 시, 도교육청 및 개별 학교에 프로그램 및 교재 보급
- 교과 연계 영상문화 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실시
 - 개발된 프로그램 및 교재를 활용한 학교 교사 연수 실시
 - 시, 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교사 연수 실시
 - 교과 연계 영상문화 교육을 운영하는 학교교사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및 연구비 지원
- 교과 연계 영상문화 교육 및 교재 평가, 결과보고서 제작
 -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교사 연수를 통해 평가학교 선정,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평가 보고서 제작
- 중학교 자유학기제 영상문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강사 파견

-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와 협업기관으로 MOU 체결(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은 2016년 자유학기제 협업 MOU 체결함)
- 시, 도교육청을 통해 요구조사 및 학교 선정
- 진로탐색, 동아리활동, 예술, 체육, 학생 선택프로그램, 혼합 중점 모형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개발
- 개발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강사 파견 및 교사 워크숍 실시
- 교육 평가 및 결과 보고서 제작
- 영상문화 전문과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강사 파견
 - 시, 도교육청을 통해 요구조사 및 학교 선정
 - 한국영화아카데미 교육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과정의 영화아카데미 커리큘럼 개발(통합과정, 영상문화 장르별 교육과정 개발)
 - 한국영화아카데미와의 협력 교육
 - 개발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강사 파견 및 교사 워크숍 실시
 - 교육 평가 및 결과 보고서 제작
- 지방자치단체 및 시, 도교육청 협력 체계 구축
 - 사업에 대한 사전 요구 조사와 협력 체계 논의를 통해 지역 내 자생적 영상문화교육 운영 구조 마련(MOU 체결 등)
 - 지자체 영상문화정책과의 연계 논의
 - 학교교육 정책 변화에 따른 시·도교육청과의 영상문화교육 모델 논의
 - 영상문화 교육에 대한 이해와 성과 공유를 위한 정기적 회의 또는 세미나 개최

5. 지역 영상문화 기반시설 강화

1)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정책적 위상 강화
 - 지역민의 영상문화와 관련한 권리와 지원의 필요성을 문화·영상 관련법에 명시하

는 것을 통해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위상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지역문화진흥법>에 지역 영상문화와 관련한 권리개념과 권리확보를 위한 공적 지원 정책 수립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추가, 강조하기 위한 개정작업이 필요함. 또한 영상문화 활성화의 필요성과 지원사업 시행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영비법>의 개정을 통해 지역 영상문화 지원 인프라로서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지자체는 영상문화 진흥을 포함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문화진흥정책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이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한 지원인프라로서 위상을 설정, 확립하고 강화해야 함. 즉, 지자체의 장기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지역의 영상문화 단체·동아리·주민 등 지원정책의 실수요자의 요구와 성장과정에 부합한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영상문화 분야의 전문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정책적 위상을 부여하고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여야 함. 또한 해당 지역 내 다양한 문화지원 시설, 주민지원 시설, 복지 시설, 교육 시설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영상문화 활동을 다양한 영역과 계층으로 확산시키는 ‘영상문화 분야의 허브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설계가 필요함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 확대 및 모델 다양화

- 현재 41개소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운영 중이며, 중소 도시 중심으로 설립이 확대되는 추세임. 특히, 최근 완주군, 서천군, 강화군, 인제군 등 군단위의 기초 지자체에서도 운영하고 있거나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2005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시작 이후 10년 간 꾸준히 설립이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지자체의 인식은 미미하기 때문에 지자체 관련부서 공무원 및 지역영상문화단체 대상 정책설명회 및 설립 컨설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인구 10만 미만의 군 단위 지역에 적합한 소규모 지역영상미디어센터(작은 미디어센터)설립을 위한 모델개발이 필요함. 기존 운영 중인 도서관, 문예회관 등 교육문화 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거나, 생활문화센터, 작은영화관 등 신규 조성하는 문화시설과 연계하는 모델을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음. 실제로 인천 강화군은 ‘작은영화관+작은미디어센터’가 2015년 5월 개관했으며, 은평뉴타운도서관은 소규모 미디어센터를 갖추고 최근 개관했으나, 적절한 공간, 시설, 장비, 프로그램, 인력에 대한 관련부처의 기준 제시는 없는 상황임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정책 순환 체계 확립

- 개별 기초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영상문화 전문 중간지원기관’ 및 ‘영상문화 허브 기관’으로서 역할을 설정. 영상문화 진흥을 위한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미디어센터가 전국 차원의 지원 및 허브 기관으로 역할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센터가 광역별로 설립이 확대되면서, 광역별 허브기관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기도 함. 하지만 방송분야에 특화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허브기관의 위상에 맞는 예산, 조직, 인력이 매우 취약한 상황임. 이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광역자치단체 관내에 운영 중인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중 1개소를 대표센터로 지정하여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광역센터의 역할을 부여하고 재원을 투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운영 내실화

- 변화되는 영상 기술과 미디어 기술, 문화 정책과 교육 정책 등을 고려한 영상문화 관련 체험·교육·제작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운영하고 보완, 확산시킴으로써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소프트웨어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또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재교육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을 통한 사회적·문화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비계량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를 확인하여 사회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음
- 영화(영상) 등 디지털콘텐츠를 체험, 제작, 유통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다양한 시설 및 장비 등 하드웨어가 운영의 토대임. 노후장비 개선 및 신규장비 확보를 위한 지원 및 유지보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영화진흥위원회(영상미디어센터)에서 지역영상미디어센터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여 운영 년차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전국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대행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음

2) 작은영화관 지원

● 작은영화관 성과 축적과 활용 계획 마련

- 운영 연차별,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작은영화관은 ‘흑자’의 수익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광고’를 통해 수익을 일부 내고 있음. 또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작은영화관 기획전 지원 사업을 통해 운영비 간접보조도 받고 있음. 작은영화관을 통해 확보되는 수입의 용도에 대한 지자체의 판단은 반드시 필요함. 이는 해당 지역의 작은영화관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임. 그리고 이와 같은 성과의 축적과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작은영화관 운영주체를 결정하는 기준(필요한 전문성), 수

익의 활용계획을 정할 수 있고, 작은영화관의 상영관 외 공간 설계방향, 상영 작품의 선정 기준(비중) 등을 정할 수 있음. 즉, 작은영화관의 운영목표를 명확히 했을 때, 작은영화관 설립과 운영의 과정에 대한 올바른 설계가 가능할 것임

- 시민 참여적인 작은영화관 조성 준비 과정과 운영 방식의 마련
 - 최근 강원도 내 작은영화관 조성을 준비하고 있는 몇 개 지자체는 영화진흥위원회 서울영상미디어센터의 지원으로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감상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이는 주민들이 작은영화관을 통해 본인이 보고 싶은 영화를 결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본인이 만든 작은 영화를 상영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임. 이처럼 작은영화관을 통해 주민의 문화 활동 참여와 문화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문화 창조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더불어 주민들이 보다 참여적으로, 가능하다면 주민들이 직접 작은영화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나가는 것도 필요함

3) 기타 영상문화 관련 지원 기관

- 영상위원회
 - 제주영상위원회, 청풍영상위원회, 전남영상위원회 등 일부 영상위원회는 지자체로부터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수탁 운영하는 등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전국의 영상위원회는 지역별로 사업목표와 내용이 단일하지 않음. 단, 2015년 5월 <영비법> 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영상물 촬영 지원을 포함한 지역 영상산업 진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영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영상위원회 추가 설립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영상위원회는 해당 지자체에서 영비법을 근거로 하여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역할을 규정하되, 역시 지역 차원의 발전전망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음. 일례로 영상문화 관련 지원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없었던 2006년 당시 제주영상미디어센터는 제주영상위원회에서 수탁운영해오다, 10여년 후가 지난 최근에는 지역 내 영상문화 활동 저변이 확대되고 영상문화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영상위원회와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함

[표 6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지자체 영상물 촬영 지원과 영상위원회 관련 조항

제28조의3(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현지 촬영 장소의 제공 등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영상물 촬영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상물 촬영을 위한 협조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5.18.]

제28조의4(영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영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영상제작 및 촬영 유치·지원
2. 영상제작 관련 시설 운영
3. 영상촬영지 및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영상문화·산업의 진흥
5.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관광자원 활용
6. 그 밖에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영상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지역 콘텐츠 산업 진흥 관련 기관

- 지역 콘텐츠 산업 진흥 관련 기관이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고, 산업과 문화의 영역이 분리되는 것이 추세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역시 지역민의 영상문화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영상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지, 산업 진흥이 직접목표는 아님. (재)안동영상미디어센터가 운영해오던 안동영상미디어센터를, 경북콘텐츠진흥원 신규 설립 후 동 진흥원에서 운영하게 되면서 현재는 사업 규모가 크게 축소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임. 또한 대구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을

대구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에 위탁해왔던 대구시 역시 지역 영상문화 관련 시민사회 단체로 운영주체를 변경하는 것으로 방향선회를 추진⁴⁹⁾하고 있음

- 단, 위 영상위원회의 사례와 동일하게, 해당 지자체의 특성/조건에 따라 판단할 문제임. 일례로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경우, 콘텐츠산업진흥과 영상문화진흥의 두 영역 모두를 주요 사업영역으로 설정하여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음
- 지역문화재단 및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등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이후 더 많은 지역 문화재단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작은영화관 등 지역 영상문화 지원시설 역시 확대되면서 지역 문화재단과 연계되는 모델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지역 문화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로서 문화재단이 다양한 영상문화 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의 영상문화 지원 거점인 지역영상미디어센터와 협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델일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해당 지역 내 ‘영상문화’ 분야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전망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함. 특히,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수탁운영하는 문화재단의 경우, 해당 지역 내 다양한 영상문화 동호회 등이 늘어나고 영상문화 관련 정책이 정립되고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독립적인 운영 및 추후 별도 기관으로 분리하는 것까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4) 지역 영상문화 전문 인력 양성

- 영상문화 전문 인력 부족과 양성 및 재교육 체계 미비
 - 영상문화 관련 지원시설 및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지원시설의 운영인력, 관련 교육을 위한 교육강사 인력 등 전문 인력의 부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함. 특히 지역민이 영상을 포함 다양한 유형의 미디어를 체험하고 교육받고, 영상물을 제작하는 활동을 지원해야 하는 사람이 가져야할 전문성의 영역은 매우 방대하므로 그 성장 단계별 교육과 재교육 그리고 지원체계 등을 필요로 함
 - 현재,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교사 양성과정을 제외하고는 영상문화 분야에 특화된 인력양성과정은 찾아보기 힘들며, 전국 영상미디어센터 간 공통의 인력 양성, 자격인정, 재교육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도 매우 초보적인 수준⁵⁰⁾임

49) 적합한 수탁운영자를 찾지 못해 결국 2016년은 현재 운영체제를 유지하여 운영하기로 함.

50) 영화진흥위원회와 전국미디어센터의 협력으로 2013~2014년 2회에 걸쳐 전국의 10여 개 지역미디어센터와 미디어교육교사양성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한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적 특성을 살리되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 문화예술 분야 전문 인력 양성체계를 고려한 관련 정책 정비
 - 영화 분야 문화예술교육사, 지역문화진흥법상 지역문화 전문 인력, 지역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교육교사 등 영상문화 관련 전문 인력 양성체계는 각 영역에서 고도화되거나 준비되고 있음
 - 영화진흥위원회가 영상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한 다고 했을 때, 문화예술 교육사 중 영화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정을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 영화진흥위원회를 포함시켜 영상문화 전문 인력 양성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 전국의 지역 영상미디어센터와 미디어교육교사를 양성하고 이들을 재교육하기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것 등이 가능한 방안일 것으로 보임
- 지역 영상문화 전문 인력 활동 보장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
 - 현재 실시되고 있는 문화예술 교육사, 지역문화 전문 인력, 미디어교육 교사 양성 정책이 갖고 있는 한계 중에 하나가 전문 인력 양성 후 관련 활동에 대한 지원정책의 부재임. 지역 내 영상문화 전문 인력 부족에 따라 전문 인력 양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전문 인력이 안정적으로 지역 영상문화 활동을 기획, 실행하기 위한 활동 환경이 보장되고 있지 못함. 전문 인력 양성과 동시에 지역 영상문화 전문 인력의 활동이 보장되는 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6. 시민 영상제작 활성화

- 시민 영상제작 활성화
 - 프랑스의 영화평론가이자 감독인 프랑소와 트뤼포가 주장한 ‘영화광의 3단계론’⁵¹⁾에 따르면 영상(영화)향유자의 최종적 목표는 직접 영상(영화)을 만드는 것으로 귀결됨
 - 과거에는 영상동호회들이 주로 감상과 토론을 중심으로 활동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캠코더의 보급이 확산되고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한 영상 소스 편집이 가능해지면서 영상제작이 급격하게 대중화되었음.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디지털카메

양성/인정/재교육 체계 수립을 과제로 도출하였음.

51) 트뤼포는 영화광이 되는 세 가지 단계가 첫째, 같은 영화를 반복해서 보고, 둘째, 영화에 대한 글(비평)을 쓰고, 셋째, 자기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영화를 만드는 과정을 거친다고 주장했다.

라의 성능 향상과 촬영 가능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별도의 장비 없이도 영상물의 제작이 가능해짐

- 상영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상영방식 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공유사이트와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확산으로 인해 직접 제작한 영상물을 공개할 수 있는 채널이 급격하게 다변화되고 있음. 이는 비영리 목적 영상 제작 동기를 한층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이번 연구에서 조사된 71개 시민 영상문화 동호회들의 경우도 53개 단체들이 영상 '제작'을 주된 활동으로 밝히고 있음(74.6%). 영상제작이 영상동호회 활동의 주된 목표가 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줌

• 문제점 및 시사점

- 시민 영상제작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① 장비 부족 및 노후화: 과거에 비해 장비 보급이 현격히 늘어나기는 했으나 시민 영상제작 욕구의 급속한 증대를 따라잡기는 어려운 형편이며 특히 장비기술의 급속한 발전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장비는 낙후된 수준의 것들임
 - ② 단계 교육 프로그램의 미흡함: 현재 지역의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입문 수준의 영상제작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 영상미디어센터가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설립된 상황은 아니어서 교육 기회로부터 소외된 이들이 많은 편임. 또한 대부분 교육의 수준이 초급에 머물러 있어 그 이상의 교육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
 - ③ 시민 영상제작에 대한 체계적 지원의 부재: 현재의 영상문화 활동에 대한 공적 지원이 주로 작은영화관 등 감상기회 차별 축소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영상제작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임. 게다가 영상제작에 대한 공적 지원이 주로 산업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 영상제작이나 비영리 성격이 강한 독립영화, 다양성 영화에 대한 지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특히 지자체 차원에서는 영상제작에 대한 지원이 거의 전무한 형편임
- 시민 영상제작 활동과 독립영화 제작은 분명히 구분되는 영역이나 산업위주의 정책 관점에서는 구분되기 어렵고 중복되는 영역으로 이해되기 쉬움. 이에 대해 두 가지 영역에 대한 각각의 접근이 필요함
 - ① 시민영상제작활동: 생활문화 혹은 시민문화활동 활성화 차원에서의 접근 및 지원
 - ② 다양성 및 독립영화 제작: 산업으로서의 영화제작이 아닌 예술 관점에서의 영화 제작 지원

- 개선방안

- 시민 영상제작 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

- ① 장비 보급 확대 및 다양화: 일차적으로는 현재 미디어센터 등 지역의 시민영상 제작 활동의 거점에 대한 장비 현황과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며 미디어센터가 부재한 지역에서는 점진적으로 영상미디어센터 설립을 유도 하되 문화의집, 지역생활문화센터(문체부), 마을예술창작소(서울시) 등 중앙과 지방 정부의 정책에 따라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인 생활권 문화시설을 통해 장비보급을 검토해야 함
- ② 영상교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현 단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해 각 프로그램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꾀함. 또한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한국영화아카데미 등 보다 전문화된 교육과정의 프로그램과 강사진을 활용하여 보다 높은 수준이 요청되는 이들에게 제공
- ③ 시민영상제작과 다양성(독립)영화 제작에 대한 지원 확대

7. 영상문화 소외계층 영상문화 활성화 방안

1) 문화 소외계층 범위

-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지원 대상을 참조하면 다음과 같음. 문화 소외계층은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특수 소외계층으로 나뉨. 계층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상문화 활성화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표 65]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지원대상

구분	대상
경제적 소외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임대주택 거주자
사회적 소외계층	▶ 장애인, 노인, 재활원·요양원·보육원·쉼터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소아 병동 환자, 외국인노동자 등
지리적 소외계층	▶ 읍·면·동·도서(섬)·산간벽지, 공단지역 주민
특수 소외계층	▶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다문화, 새터민 등

2) 문화복지 개념

- 문화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개념 정의
-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문화적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향유 및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시책과 과정, 관련 제도⁵²⁾로 정의

3) 문화복지 개념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

- 소득수준, 세대별, 지역적 차이에 따른 영상문화 격차 해소
- 영상문화 향유와 참여 기회 확대
- 영상문화 향유자 중심의 정책 수립

4) 지원내용

-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 및 배급 활성화
 -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 지원 확대 및 배급 활성화
 - 이주민을 위한 다양한 언어 자막 서비스 실시
 -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회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상영 지원 확대
- 찾아가는 영상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 문화소의 지역 및 계층을 찾아가는 상영회와 영상문화 교육 실시
- 영상문화 활동 지원
 - 영화제, 영상문화 동호회, 영상제작 활동 지원
- 영상문화교육 지원
 - 계층별, 문화소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문화 교육 지원 확대
 - 계층별 영상문화 전문가 양성 및 활동지원(장애인, 노인, 이주민 등 영상제작자, 영상문화기획자 등 양성)

52) 양혜원(2012). 문화복지 정책의 사회, 경제적 가치 추정과 정책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8. 향후 과제 및 제언

1) 법제 정비의 필요성

▣ 영상관련 법률 체계의 문제점

- 현행 영상산업 분야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영상진흥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의 3개 기본법이 존재함
- 하지만 이들 기본법들의 위상과 규율 범위가 상이하고 개별법과 체계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함
 - <영상진흥기본법>은 영상산업에 국한되는 반면(동법 1조 및 2조) <문화 산업진흥기본법>은 영상산업을 포함한 모든 문화산업에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동법 1조 및 2조). <콘텐츠산업진흥법>은 또 다른 범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동법 1조 및 2조)
 - <영상진흥기본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유사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상호 간의 관계성이 드러나지 않으며, <영상진흥기본법>의 일부 사항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임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 사항이 <영상진흥기본법>에 근거하지도 않음
- 산업진흥의 측면이 아닌 문화예술로서 영화를 다루고 있는 법률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오랫동안 기본법적 성격을 갖고 있었던 <문화예술진흥법>인데, 이 법은 영화를 문화예술의 한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음(동법 2조)
- 영상 및 영화에 관한 법률 체계는 영상산업 또는 이를 포함하는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규범적인 형태로 만들어졌음. 그 결과 영화의 문화예술적 가치에 대한 보호와 진흥은 영화진흥정책과 영화진흥기구의 근거법인 <영비법>이 아니라 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예술 진흥기구 운영의 근거법인 <문화예술진흥법>의 관할대상에 보다 가깝기 때문에, <영비법> 등 영상 및 영화에 대한 법률은 산업적인 영역에 속한 다양한 영상문화를 지원하는 근거법률이 되기 어려운 상황임
- 특히 영상 관련한 기본법 중 대표적인 <영상진흥기본법>의 경우 2007년 한 차례 개정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그 후 영상산업 분야에 숏한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정 당시의 선언적인 규정을 고수하고 있어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고 평가됨
 - 이와 관련하여 이 법률이 영화의 문화예술적 진흥과 문화복지 확대 정책 시행의 법률적 근거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제기되기도 함
 - 한편 영화와 비디오물 등 전통적 영상산업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를>이 모든 사항을 관할하고 있어 <영상진흥법기본법>에 근거하여 ‘영상진흥’을 추진할 이유가 없음

- 따라서 이 법은 영상산업 분야 진흥정책을 총괄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 사문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개정방향

(1) 영상진흥기본법 폐지

- <영상진흥기본법>의 내용은 기본법으로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별법으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중복됨
 - 동법의 목적인 ‘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목적인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목적인 ‘영상산업의 진흥 촉진’과 다름이 없음
- 현행 <영상진흥기본법>을 폐지하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며, 영상산업에 특화된 조항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거나 통합할 수 있음

[표 66] 영상진흥기본법 폐지에 따른 법제 정비방안

현행조문	정비방안
제1조(목적)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포함
제2조(정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삽입
제3조(다른법률과의관계)	▶ 불필요
제4조(창작의자유등보장)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포함
제5조(정부의시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포함
제6조(법제상의조치등)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포함
제7조(영상물창작및제작진흥)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포함
제8조(조사·연구·개발및보급)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포함
제9조(영상물제작기술의개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포함
제10조(영상물의유통및배급촉진)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포함
제11조(영상전문인력의양성)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포함
제12조(영상관련진흥재원의운용)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포함
제13조(영상제작기반의확충)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포함
제14조(국제교류및협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포함
제15조(영상자료의보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포함

- 검토

- 문화산업 분야의 난립된 법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으로서는 법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방안이나 영상 및 영화분야가 갖고 있는 문화예술적 측면과 가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영상에 관한 정책목적과 기본 규정이 문화산업 분야 진흥을 전제로 하는 이 법에 일임될 경우 영상 분야를 매개로 하는 다양한 문화 활동에 대한 법적 지원의 근거가 약화될 우려가 있음

(2) <영상진흥기본법> 강화 및 <영비법> 전면 개정

- 현행 <영상진흥기본법>이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중복되는 이유는 영상진흥의 목적을 주로 산업적 차원으로 해석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 <영상진흥기본법> 목적조항에는 ‘영상문화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의 두 가지 목적이 모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역시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그리고 정의 조항에 ‘영상물’과 ‘영상산업’의 정의는 있으나, ‘영상문화’에 대한 정의는 없음. 이에 영화를 포함한 영상문화에 대한 정의 조항이 필요함
- 또한 이 법은 영상문화 정책의 대상을 정하고 있지 않는데, ‘영상문화 창달’을 위한 구체적 정책 대상을 이 법 안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단, 정책대상을 지나치게 뚜렷하게 정의할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영비법> 개정 방향
- <영상진흥기본법>의 법률적 정책 대상 불일치 문제 해소
- 시민의 영상문화 참여활동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조항 추가

2) 제언

- 본 연구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상문화의 진흥을 강조하고 있지만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이 이분법적으로 구분되거나 대립되는 영역이 아니며 많은 부분 중첩되고 있거나 상호보완적 측면이 있음을 간과하면 안됨
- 현재까지의 영상 산업 진흥 정책이 가져왔던 성과는 분명히 높이 평가해야 함. 영상문화 논의 기반 축적은 산업적 성과를 토대로 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임
- 영상(영화) 발전에 접근하는 관점이 다를 뿐, 기실 산업과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이 정책설계에서 분명히 인지되어야 함

- 한국에서의 영상 환경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산업적 관점과 문화적 관점 간의 상시적인 연계가 이뤄져야하며 협업할 수 있는 모델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음
- 구체적 사업 발굴과 제도 정비의 유기적 관계가 필요함
 - 지역 영상문화 진흥의 중요성을 선언적으로 강조한다고 해도 이에 대한 시민들의 체험적 경험이 부족하다면 공허한 관념에 머물 수 있음. 지역의 활동주체들과 시민 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사업과 실험을 통해 영상문화에 관한 상을 만들어 가야함
 - 기초와 광역, 중앙 등 서로 다른 층위에서 이뤄지는 정책 활동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는 중요하지만 각각 역할과 입장에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임. 지역에서 직접적 사업시행과 시도를 통한 활동모델을 발굴하는 과정과 중앙 단위에서의 제도 정비가 유기적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협력 관계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할 것임
- 생활문화 영역의 확대에 따른 지역 영상문화 활동의 참여 확대
 - 최근 법 제도적 변화에 따라 생활문화 영역 확보 사업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매개하기 위한 제도와 시설, 인력에 관한 다양한 정책들이 검토되고 있음
 - 지역 영상문화 정책 역시 이런 제도적 변화를 인지하면서 다양한 생활문화 정책 영역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적 문화 활동에서 영상 분야가 차지하는 영역을 확장해나가도록 설계되어야 함. 또한 세대, 계층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되는 생활문화 정책과 연계한 접근도 필요
- 제도화에 수반되는 규범적 성격의 강화 경향과 시민활동의 다양성 확보 노력 간의 균형 필요
 - 어떤 문화정책이건 행정 영역으로 들어와 제도화가 이뤄질수록 규범화되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행정의 피치 못할 속성임. 이에 문화정책이 갖는 공공성과 다양성의 원칙을 강화되는 제도적 규범화 경향 속에서 어떻게 관철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함
 - 활동의 주체가 되는 민간영역의 자율성과 다원성은 문화의 기본적 속성인 동시에, 개개인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가장 큰 원칙임. 제도의 규범적 속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안에서 개별 활동의 자율성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참고문헌

◎ 국내외 참고문헌

- 김미현(2013). 「지역의 영상정책 사례: 한국과 프랑스의 지역협력형 사업을 중심으로」, 영상예술연구, 22호, 313-338.
- 김준덕(2015). 「프랑스 영화의 지원정책」, 한국영화평론가협회 주최 <영상문화 환경 개선과 관객 지원정책을 위한 포럼>, 2015.6.29.
- 미디어트(2002). 공공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적지원구조 연구
- 영화진흥위원회(2003). 영화의 다양한 상영을 위한 기초연구
- 이미경(2003). 전주시민영화제와 문화민주주의, 전북대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논문
- 이지현(2004). 대안적 공공 영화관의 보급에 관한 연구-한국 영화의 다양성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차원에서,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영상예술학과 영화이론전공 석사논문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1). 2011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 학교 평가 연구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1). 2011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연구-예술꽃 씨앗학교를 중심으로
- 문화체육관광부(2011). 콘텐츠의 문화적 향유 확대 방안 연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1). 지역문화재단의 운영성과 분석 및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 영화진흥위원회(2012). 영화문화 향유권 강화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 양혜원(2012). 문화복지 정책의 사회, 경제적 가치 추정과 정책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13.4.3). 지역주민의 영화향유권 강화를 위한 정책설명회 자료집
- 학교 미디어교육 도입 평가와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 교사 설문 조사를 중심으로, 미디어와 교육 3권 1호(2013년 6월)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4). 학교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2014년
- 서울영상미디어센터(2015). 영화공동체를 상상하다 영화감상동호회 운영가이드사례집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 전라북도 영상로케이션 및 제작기반 활성화 방안,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2015.9
- 전북지역 학교 미디어교육 실행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15.9.24.
- 지역미디어센터의 학교미디어교육 협력체계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2015.8.14
- 한국콘텐츠진흥원(2015). 지역콘텐츠산업 발전 중장기 로드맵 수립
- 전북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안) 공청회 자료, 2015.2.25, 전북발전연구원

한국 영화·영화문화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 자료집. (사)한국영화평론가협회. 2015.6.29.
 지역민의 영상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 자료집. 2015.5.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2015). 2012-2013 공공·민간 예술지원 현황조사
 윤혜숙 (2012). 영화문화 향유권 강화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이선향(2013). 「한국의 민주화와 문화 정책의 변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담론 201. 16(3).
 119-143.
 전병원(2013). 「지방분권시대의 지역영화진흥정책 연구: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정책 및 영화
 진흥정책 비교분석을 통하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BBC (2014.10.17.) *Creative Scotland launches three-year film strategy*.
 BFI (2012). *Film Forever: Supporting UK Film*. London: BFI.
 Creative Scotland (2014). *Creative Scotland On Screen-Film Strategy 2014-17*. Alba:
 Creative Scotland.
 Creative Scotland (2014). *Unlocking Potential, Embracing Ambition: A shared plan
 for the arts, screen and creative industries 2014-2024*. Alba: Creative
 Scotland
 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s. (2014). *Triennial Review of the British
 Film Institute*. London: DCMS.
 CNC(2015). *Annuaire des Conseillers DRAC*.
 CNC(2015). *bilan 2014*. 191-193.
 Ingvild Bjerkeland(2015). "The Rise of the Regions-Norwegian film policy and the
 new regional cinema." *Nordisk kulturpolitisk tidsskrift* 18(1). 125-142.

● 인터넷 사이트

옥인상영관 사이트 www.okintheatre.com
 모퉁이극장 블로그 blog.naver.com/cornertheate
 필름에이지 www.filmage.kr
 미디토리 www.meditory.net
 21세기자막단 21stcentury.co.kr
 경기영상위원회 www.ggfc.or.kr
 서울영상위원회 www.seoulfc.or.kr

전남영상위원회 jnfc.or.kr

인천영상위원회 www.ifc.or.kr

전북독립영화협회 www.jifa.or.kr

부산독립영화협회 www.indipusan.or.kr

대전독립영화협회 www.difv.co.kr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 55cine.com

인천독립영화협회 cafe.daum.net/in-film

광주독립영화협회 cafe.daum.net/indif

제주독립영화협회 cafe.daum.net/indejeju

광주 시네마테크 광주극장 cafe.naver.com/cinemagwangju/

강릉 독립예술극장 신영극장 theque.tistory.com/26

대전아트시네마 cafe.naver.com/artcinema

청주시네마테크 씨네오딧세이 cafe.naver.com/cineodyssey

제주씨네아일랜드 www.cineisland.org/

프랑스 정부, “La réforme territoriale”, 2015년 11월 13일.

www.gouvernement.fr/action/la-reforme-territoriale

CNC 홈페이지 www.cnc.fr

위키피디아, “프랑스 인구” en.wikipedia.org/wiki/Demographics_of_France

Agence régionale du Centre pour livre, l'image et la culture numérique(CICLIC) 홈페이지 www.ciclic.fr/ciclic/ciclic-l-agence

Cité de l'image en mouvement d'Annecy(CITIA) 홈페이지 www.citia.org/

Pictanovo 홈페이지 www.pictanovo.com/

le Pôle Image Haute-Normandie 홈페이지 www.poleimagehn.com/

la Maison de l'Image Basse-Normandie 홈페이지 www.maisondelimage-bn.fr

l'Agence culturelle d'Alsace(ACA) 홈페이지 www.culture-alsace.org/

상파뉴아르덴 주정부 홈페이지

www.cr-champagne-ardenne.fr/Decouvrir/Culture/Pages/orcca.aspx

www.bbc.com/news/uk-scotland-29658000 (2015.10.10. 접근)

● 기사자료

부산일보 2013.8.19.일자. [시민이 문화다] 22. 모퉁이극장. 이호진 기자

한겨레 2015.11.08 일자. '문화 향유권' 돕는 사회적 기업, 공동체 성장 이끈다. 한겨레경제
사회연구원 이정연 선임연구원

독립영화 인터뷰 매거진 NOW 2015.09 No.8. 영화 보기의 새로운 활로 대안상영

민중의소리 2015.9.8.일자. [만민보] 영화제 실업자들이 모여 회사를 만들었어요. 최지현기자